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연구

연구책임자 : 이 경 아(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공동연구자 : 김 해 영(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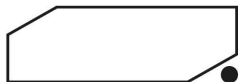
민 병 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현 영 섭(경 북 대 학 교)

김 세 화(연 세 대 학 교)

연구보조원 : 하 동 진(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유 보 람(연 세 대 학 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개인 견해를 밝힙니다.

# 목 차

<b>I. 서 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b>II. 미래사회 평생직업교육의 전망</b> .....	<b>8</b>
1. 미래변화의 동인 .....	8
2.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와 교육적 요구 .....	21
3. 평생직업교육의 해외 사례와 변화 방향 .....	44
4.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전망에 대한 시사점 .....	75
<b>III.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유관 정책 현황 분석</b> .....	<b>83</b>
1. 중앙부처 평생직업교육 정책 현황 .....	83
2.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유관 정책 현황 .....	109
3. 민간 차원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사례 .....	115
4. 시사점 .....	118
<b>IV.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조사</b> .....	<b>121</b>
1. 조사개요 .....	121
2. 요구분석을 위한 FGI 결과 .....	125
3.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	135
4. 시사점 .....	150
<b>V.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방향 및 전략</b> .....	<b>155</b>
1. 추진 방향 도출 개요 .....	155
2. 추진 방향 및 전략 .....	158

## 표 차례

<표 I -1> 초점집단면담 일정 및 대상 .....	5
<표 I -2> 델파이조사 참여 현황 .....	6
<표 I -3> 1차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	7
<표 I -4> 2차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	7
<표 II -1> 연령대별 인구 추계 .....	18
<표 II -2> 12대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 .....	22
<표 II -3> 비형식 교육훈련 전체 참여율 .....	28
<표 II -4>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연평균 참여율 .....	39
<표 II -5>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연평균 참여시간 (단위: 시) .....	40
<표 II -6> 독일 성인교육 추진체계 참여 기구 .....	48
<표 II -7> 싱가포르 Skillsfuture 대상별 프로그램 .....	53
<표 II -8> 경력기준의 생애단계별 SSG 프로그램 .....	56
<표 II -9> Udacity의 NanoDegree 교육과정 .....	59
<표 II -10> KI Campus 온라인 강의 필터링 .....	69
<표 II -11> 경력단계별 경력개발 서비스 체계 방안 .....	78
<표 III -1> 2021년 교육부 중점과제 .....	84
<표 III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분야 및 참여주체 .....	86
<표 III -3>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점과제 .....	88
<표 III -4> 2021년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	91
<표 III -5>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중점과제 .....	93
<표 III -6> 핵심장르별 인력양성 .....	94
<표 III -7>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중점과제 .....	95
<표 III -8> 2021년 중소기업벤처부 중점과제 .....	99
<표 III -9> 2021년 부처별 평생직업교육 정책현황 .....	105

<표 III-10>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	109
<표 III-11> 무역아카데미 프로그램 .....	111
<표 III-12>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년 하반기) .....	113
<표 III-13> 서울시 기술교육원 프로그램 .....	113
<표 IV-1> 델파이조사 참여 현황 .....	121
<표 IV-2> 델파이조사 응답자 명단 .....	121
<표 IV-3> 1차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	123
<표 IV-4> 2차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	123
<표 IV-5> 초점집단면담 일정 및 대상 .....	124
<표 IV-6> 평생직업교육 ‘주요 이슈’ 응답 결과(1차) .....	136
<표 IV-7> ‘서울비전2030’ 중 중점과제(1차) .....	137
<표 IV-8>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강화해야 할 과제(1차) .....	138
<표 IV-9>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추가해야 할 과제(1차) .....	140
<표 IV-10> 연령별 지원방안(1차) .....	141
<표 IV-11> 기타 주요 타겟그룹과 지원방안(1차) .....	142
<표 IV-12> 평생직업교육 ‘주요 이슈’ 응답 결과(2차) .....	143
<표 IV-13> ‘서울비전2030’ 중 중점과제(2차) .....	143
<표 IV-14>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강화해야 할 과제(2차) .....	144
<표 IV-15>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추가해야 할 과제(2차) .....	147
<표 IV-16> 연령별 지원방안(2차) .....	149
<표 IV-17> 기타 주요 타겟그룹과 지원방안(2차) .....	150

## 그림 차례

[그림 II-1] Technology Chasm .....	9
[그림 II-2] Technology Chasm과 Gartner Hyper Cycle 결합 .....	10
[그림 II-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	11
[그림 II-4] 한국의 기대 수명 .....	12
[그림 II-5] 광역시·도별 기대 수명 .....	13
[그림 II-6] 한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	13
[그림 II-7] UN의 새로운 인생 주기 .....	14
[그림 II-8] 주요 국가별 고령화 속도 전망 .....	15
[그림 II-9]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변화와 인구 Dead Cross 발생 .....	16
[그림 II-10] 인구 Dead Cross 발생 .....	16
[그림 II-11]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 .....	17
[그림 II-1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	17
[그림 II-13]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규모 .....	20
[그림 II-14]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19 신규 확진자 추이 .....	20
[그림 II-15]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19 신규 확진자 추이 .....	21
[그림 II-16]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직무기술 .....	24
[그림 II-17] 인터넷 백과사전, 논문, 특허 진화 양상 빅데이터 분석 .....	26
[그림 II-18] 세대별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	31
[그림 II-19] 시기별 경력 곡선 유형 .....	32
[그림 II-20] 인생 세 상자의 변화 .....	34
[그림 II-21] 인생 주기별 생활시간 .....	34
[그림 II-22] 시도별 생활시간 .....	35
[그림 II-23] 기술과 교육의 경주 .....	36
[그림 II-24] 경력전환과 경력모자이크 .....	37
[그림 II-25] 일할 권리와 인적자원개발의 거시적 모형 .....	41
[그림 II-26]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접근 모형 .....	42
[그림 II-27] 독일 연방정부/주정부의 성인교육 핵심기관 .....	45
[그림 II-28]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조직 .....	46
[그림 II-29] 독일 주정부별 시민대학의 규모 .....	47
[그림 II-30] 독일 교육연구부 직제 .....	50

[그림 II-31] 독일 기업규모별 직업교육학습자 현황	51
[그림 II-32] 싱가포르 SSG의 추진체계	55
[그림 II-33] MOOC의 발전	57
[그림 II-34] Udacity의 ‘Reboot Camp’ 구조	58
[그림 II-35] Nanodegree의 진행 과정	60
[그림 II-36] MBC의 구조	64
[그림 II-37] 보쉬의 스마트공장 개념	66
[그림 II-38] KI Campus 홈페이지	67
[그림 II-39]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구조	72
[그림 II-40]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의 사업 구조	75
[그림 III-1] 2021년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중점과제	83
[그림 III-2]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개념도	85
[그림 III-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개념도	86
[그림 III-4] W4브릿지 사업 개념도	89
[그림 III-5]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세스	98
[그림 III-6] 지식재산학 교육과정	103
[그림 III-7] SBA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도	110
[그림 III-8]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구성도	112
[그림 III-9]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 개요도	112
[그림 III-10]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교육과정 로드맵	116
[그림 III-1] 연령별 일자리정책 운영기관 현황	119
[그림 V-1]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방향 도출 과정	155
[그림 V-2]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156
[그림 V-3]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방향 및 전략(안)	15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빠른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2019년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진행은 서울시민의 삶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고 있으며, 향후 직업과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 예견되고 있음. 이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경제 구조와 직무가 바뀌고, 일부 직업은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대체되지만,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전망되고 있음.
-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시민들은 인생주기가 보다 길어지면서 학령기에 배우는, 혹은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고 있음. 잡코리아의 직장인 이직횟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경력 10년차 직장인의 평균 이직횟수가 2010년에는 2.9회에서 2019년에는 4.2회로 늘어났는데<sup>1)</sup>, 이는 과거에 비해 직장 이직횟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이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생에 걸쳐 수시적인 직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

### 나.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이원화와 통합 지원의 필요

- 지금까지 개인의 경력 전환과 경력개발, 이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은 주로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별로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하여 왔음<sup>2)</sup>.
- 이러한 성인들의 직업 혹은 일과 관련된 지원, 즉 진로탐색, 생애설계, 경력개발, 직업훈련 등의 국가적 지원은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그 대상에 따라 정부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음. 예컨대, 대학의 취업서비스센터,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부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27/95710148/1\(검색일:2021. 12.1\)](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27/95710148/1(검색일:2021. 12.1))

2)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대학생 및 생애전환기 성인의 진로 개발 지원 의지를 표명함(2018년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

-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대상의 시민들에게 일과 직업과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부서가 관여되어 있음.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관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교육부의 디지털 신기술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과 매치업 사업, 과기부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사업,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진행됨.
- 또한 서울시 자체적으로 일자리 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시기술교육원, 중장년 세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시민들의 취업 및 창업, 경력전환과 설계, 생애역량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이처럼 부처별로 분절적인 평생직업교육<sup>3)</sup>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 입장에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므로 시민 개개인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의 정보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시 개별 부서 혹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경우, 특히 생애전환기 직업탐색과 일자리 연동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통합적이고 맞춤형의 직업탐색과 상담, 교육훈련, 일자리 연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특히 특정 직업 영역에 대한 훈련과 취업성고가 주 목표가 되는 일자리 정책과 시민성의 함양 및 교양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이 주를 이루는 평생교육 정책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분절적인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그 성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개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과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적 서비스를 상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통합적 관점의 추진 전략이 필요함.

#### 다. 민간 영역의 급부상과 직업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필요

- 한편, 급변하는 사회에 평생직업교육에 관한 공적 서비스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분절적인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긴급한 직무역량 향상, 직업탐색과 상담 등을 서비스하는 민간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온라인 교육 및 모듈식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시기적절하게 접근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등 IT분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패스트캠프

3)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의 '일'과 연관된 진로탐색, 진로설계, 직업훈련, 역량향상 교육을 아울러 평생직업교육으로 그 범위를 정의하였음.

패스(Fast Campus), 다양한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Class101, 직무분야 전문가와 1:1 개인지도를 지원하는 숨고 등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 혹은 워킹맘들의 경력 설계와 개발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헤이조이스 등의 기업들은 주로 스타트업 회사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sup>4)</sup>.

- 이들 민간기업들이 시민들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이고 신속한 학습 콘텐츠를 적재 적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비용들은 전적으로 개인부담으로 이루어지며, 고용부의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고비용 개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취약계층의 경우 필요한 학습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임.
- 교육부의 ‘21년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나라 성인(만25~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로 코로나로 인해 전년(40.0%, 2020년 기준) 대비 9.3%p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청년층(25~34세, 40.6%) 참여율이 노년층(65~79세, 19.2%)보다 21.4%p 높았고, 고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34.7%)이 저소득층(월평균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17.6%)보다 17.1%p 높았으며,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취업자(34.4%)의 평생학습 참여가 가장 활발하였으나, 전년 대비 8.3%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28.6%)와 비경제활동인구(18.1%)의 참여율은 전년보다 각각 14.9%p, 1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 계층별 불평등이 보다 심화됨을 알 수 있음.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고령사회 가속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서울시민의 생애전환 및 경력설계, 진로탐색 및 교육훈련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생직업교육의 공적인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간 서울시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현황 및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고, 서울시민의 평생직업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4) 패스트캠퍼스의 경우 ‘19년 누적 투자유치액이 180억, 클래스101의 경우 ‘21년 300억 등으로 성인들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음([http://fast-track.asia/fastcampus\\_2019\\_funding/](http://fast-track.asia/fastcampus_2019_funding/))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 미래사회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 미래사회 및 평생직업교육의 전망
- 평생직업교육의 해외사례 벤치마킹

#### 국가 및 서울시 추진 평생직업교육 정책 사업 및 민간교육기관 현황

- 중앙정부 평생직업교육 정책 사업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유관 정책 사업
- 민간 평생직업교육 사례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요구 분석

- 평생직업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유관 기관 관계자 및 대상별 학습자 요구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방향 및 추진 전략 도출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방향 도출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전략 도출

### 나. 연구 방법 및 절차

#### 미래사회 및 평생직업교육 전망과 현황조사를 위한 문헌분석

- 미래사회 및 평생직업교육 관련 선행연구, 정책자료 분석
- 유관부처, 서울시, 민간 평생직업교육 기관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조사
  - ◆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의 2021년 업무보고 자료, 정책 브리핑, 결과보고서 및 주요 통계자료 분석
  -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관련 기본계획, 중점과제, 정책브리핑, 언론보도자료, 시민 대상 프로그램 안내 등을 통해 주요 운영기관을 6곳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현황 분석(SBA아카데미, 무역아카데미, 소상공인창업 아카데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기술교육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 ◆ 숨고, 탈잉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평생직업능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관계자 및 대상별 초점집단면담(FGI) 조사

- 초점집단면담은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영역별 평생직업교육 관계자 9명과 생애단계별 정책 당사자인 시민 18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였음.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초점집단면담 일정 및 대상

구분	일시	대상
영역별 평생직업교육 관계자	2021.10.26.(화) 10:00~12:00	- 공공 분야 여성 직업훈련 현장 담당자 2명 - 자치구 평생교육 관계자 1명 - 공공 분야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 1명
	2021.10.27.(수) 13:00~15:00	- 중장년 교육 관계자 1명
	2021.10.28.(목) 10:00~12:00	- 민간 직업훈련 현장 담당자 1명 - 공공 직업교육 관계자 1명 - 공공 청년지원사업 관계자 1명
	2021.10.28.(목) 15:00~17:00	- 여성 직업훈련 총괄기관 담당자 1명
평생직업교육 정책 당사자 (시민)	2021.11.16.(화) 18:00~20:00	- 청년 학습자 4명
	2021.11.18.(목) 10:00~12:00	- 경력단절 여성 학습자 5명
	2021.11.18.(목) 19:00~21:00	- 중장년 학습자 5명
	2021.11.11.(목) 14:00~16:00	- 노년층 학습자 4명

□ 관계자 면담 내용

- 평생직업교육 기관 관계자 면담 내용
  - ◆ 현재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상별 직업교육(정책) 현황 : 사업운영방식, 프로그램 운영 비용,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만족도 및 성과, 우수 사례
  - ◆ 현재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대상별 직업교육(정책)의 아쉬운 점 혹은 문제점

- ◆ 학습자 혹은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
  - ◆ 향후 서울시민들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에서의 필요 과제
- 평생직업교육 정책 당사자(시민) 대상 면담 내용
- ◆ 각자 경력 단절(퇴직 등) 계기와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된 과정
  - ◆ 새로운 직업탐색과 인생설계 과정에서 받았던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당시에 더 필요했던 지원요소
  - ◆ 다양한 기관주체들이 평생직업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당사자가 느꼈던 어려움
  - ◆ 다양한 기관에서 기초 취미교양 수준의 교육만 반복적으로 개설해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접근 방향
  - ◆ 향후 인생전환과 전직을 위해 후속세대에 필요한 지원 정책과 제도

□ 서울시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평생교육 분야 6명, 직업교육 분야 6명, 미래·경제 분야 4명, 청소년·어르신 등 대상별 전문가 4명씩 총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음[\*응답자 명단은 부록 참조].

<표 1-2> 델파이조사 참여 현황

조사대상자(A)	1차 조사		2차 조사	
	응답자(B)	응답률(B/A)	응답자(C)	응답률(C/A)
20명	18명	90.0%	17명	85.0%

○ 조사절차와 조사도구

- ◆ 1차 조사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일간, 2차 조사는 11월 8일부터 10일간 실시하였음. 1~2차 조사 모두 이메일 통해 발송하고 회수하였음.
- ◆ 1차 조사는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비전 수립과 과제 설정을 위한 기초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응답식 질문 7개 문항과 응답자 배경정보에 관한 6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1-3> 1차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영역	구분	문항내용
1	응답자 배경정보	성명, 성별, 연령, 소속, 관련 경력, 현 소속기관 근무기관
2	주요 이슈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의 주요 이슈와 그 이유
3	중점과제	'서울비전2030' 중 평생·직업교육분야의 중점 과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강화해야 할 과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추가해야 할 과제
4	타겟그룹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의 주요 타겟그룹과 지원방안
5	추진체계	현재 분산된 평생·직업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기타 의견	기타 의견(자유 기술)

- ◆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선택하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1-4> 2차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영역	구분	문항내용
1	주요 이슈	3개 영역 10개 이슈에 대한 중요도(5간 척도)
2	중점과제	'서울비전2030' 4개 영역별 중점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4개 영역별 중점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4개 영역별 추가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3	타겟그룹	타겟그룹별(세대별/대상별) 지원방안에 대한 중요도(5간 척도)
4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중요도(5간 척도)

□ 연구 전략 및 조사 문항 개발,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 정리, 도출된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방향 및 전략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2회) 및 연구진 협의회

## II . 미래사회 평생직업교육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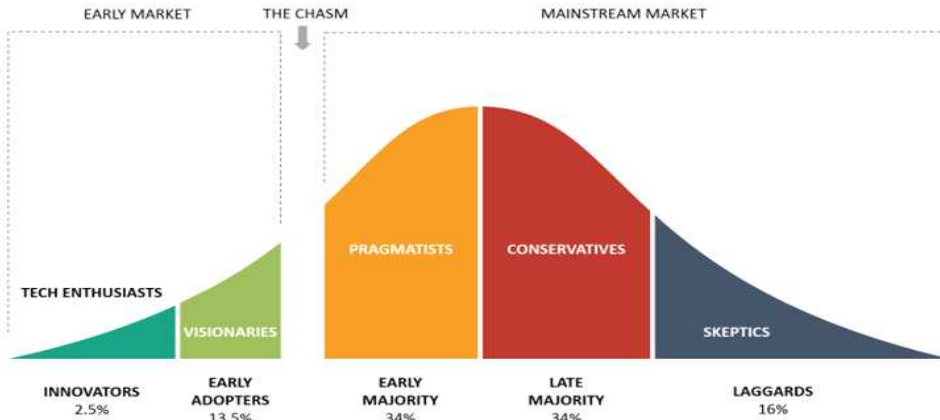
### 1. 미래변화의 동인

#### 가. 테크놀로지 발전과 4차 산업혁명

##### □ AI 기반 테크놀로지 Chasm과 16% 침투율

- AI 기반 테크놀로지는 이미 70년 전 에니그마(Enigma) 해독기계를 Alan Turing이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음. 하지만 당시의 암호 해독기계는 기계로 해석되었지 AI이 지위가 부여되지는 못하였음. 2000년대 들어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였음. 국내에서는 ‘알파고’ 라고 불린 AI와 이세돌 9단의 바둑을 통해 AI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음.
- AI는 사실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속도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에서 나타난 모든 정보처리기계의 속도를 넘어서는 정보처리 속도를 보이는 기계임. 하지만 단지 정보처리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술마저도 포함하고 있는 존재임. 현재는 특정한 훈련이나 학습 과정이 없이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이를 토대로 학습하여 능력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음. 예를 들어, 예전의 ‘알파고’ 는 수만 번의 기보를 습득하고 가르치는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바둑을 학습하고 1,000번 이상 우승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
- AI의 발전은 컴퓨팅 기술의 발전, 컴퓨팅 비용의 하락, 모바일 컴퓨팅의 가능 등 컴퓨팅 역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Gratton, 2011). 그리고 이런 컴퓨팅 관련 변화는 AI를 이용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확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음.
  - ◆ AI와 같은 기술의 확산 속도에 대한 이해는 Technology Chasm(테크놀로지 캐즘)으로 이해됨. Technology Chasm은 기술 대중화 변곡점이라고 하여, 기술이나 생산품의 주기변화에서 대중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변곡 지점 또는 지대를 의미함.
  - ◆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 또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중화 또는 사용 비율에 따라 6개의 단계로 구분됨. 이를 테크놀로지 수용 주기곡선(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이라고 함. 이 곡선은 혁신(Innovation), 초기진입(Early Adopters), 초기대중화(Early Majority), 후기대중화(Late Majority), 후가지체(Laggard)의 6단계임. 각각의 단계는 정규분포의 적률백분율에 따라 2.5%, 13.5%,

34.0%의 대중화 또는 사용비율로 구분됨.



[그림 II-1] Technology Cha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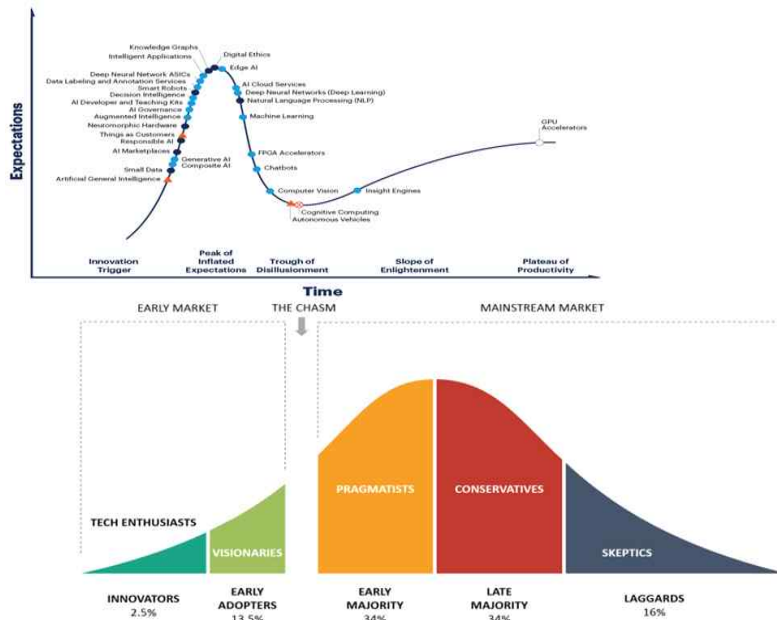
출처: B2U(2020).

※ 테크놀로지 대중화 곡선에서 변곡 지점은 초기진입(Early Adopters)과 초기대중화(Early Majority)의 사이에 존재하는 지대로서 대략 16.0%의 지역으로 표현됨. 이 지역을 변곡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상품, 서비스 등이 초기 노출 이후 대중화되고 많이 사용되는 즉, 확산되어 대중화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임. 이 지점을 변곡 지점, 또는 침투율 16% 지점이라고 함.

- ◆ 그런데 AI 기술은 Technology Chasm을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관련 테크놀러지의 Technology Chasm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킴. 즉, 기술 수용율의 촉진자로서 AI 기술이 작동하게 됨. 예를 들어, 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빅데이터 기술은 빅데이터 생성이나 활용에서 편리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었음. 이제는 공학이나 데이터 과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학습을 통해 빅데이터 자료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것임.
- ◆ 이런 현상을 단지 촉진이 아니라 수용성 폭풍(Adoption Storm)으로 표현하기도 함 (Original Clear, 2020). 수용성 폭풍이 발생할 경우, 특정 기술에 의해 다른 기술의 수용성이나 적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술 전체에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임. 예를 들어, Google에 의해서 스마트폰이 개발된 것은 초기에 Technology Chasm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소셜네트워크, 온라인시장, 가상거래, 비대면 상황 확대, 빅데이터 수집 강화 등 기술과 사회의 폭풍적 변화를 가져왔음. 현재는 AI기술이 다양한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새로운 폭풍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됨.

○ AI의 발전과 연결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기술

- ◆ 기술 발전을 예측하는데 빈번하게 활용되는 Gartner의 Hype Cycle을 기술수용 주기 곡선과 결합하면, 기술수용 변곡점을 넘어서 기술이 파악됨([그림 11-2] 참조). 예를 들어,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기업용 검색 솔루션(Insight Engines), 컴퓨팅 가속장치(CPU Accelerators)는 변곡점을 통과했거나 거의 통과하는 수준의 기술임. 이 기술들은 모두 AI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임. 더불어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챗봇(Chatbots), 반도체 설계 가속기술(FPGA Accelerator),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 딥러닝(Deep Learning), AI 클라우드 서비스(AI Cloud Services) 등임. 이 기술들은 모두 AI기반의 기술임.



[그림 11-2] Technology Chasm과 Gartner Hyper Cycle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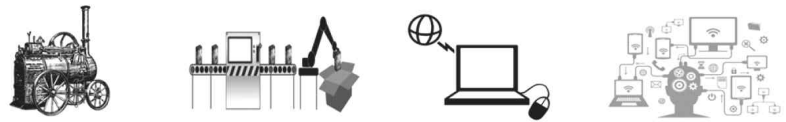
출처: Gartner(2020)와 B2U(2020)를 활용하여 연구진 구성.

#### □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동인

- AI 기술은 새로운 기술의 폭발적 확산을 주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유도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은 단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인류 삶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의 핵심적 변화 동인이면서 미래사회 자체를 의미함.
- ◆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자리 전망을 내놓으면서 부터임. 이

후, 4차 산업혁명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계, 교육계 등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변화가 추진됨(현영섭, 신은경, 2018).

- ◆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제3차 산업혁명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이 동반되면서 인간 삶의 물리적 공간, 사이버·온라인·디지털 공간, 생물공학적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새로운 기술융합 혁명 또는 이런 혁명이 적용되는 시대를 의미함(WEF, 2016).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 등으로 촉발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정보와 삶의 공간 구분이 사라지고, 통합되는 현상으로 특징됨.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1세기
특징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
영향	수공업 시대에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화 시대로 변화	전기와 생산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의 생성?가공?공유를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시대의 개막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하고 자동화?지능화되어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

[그림 II-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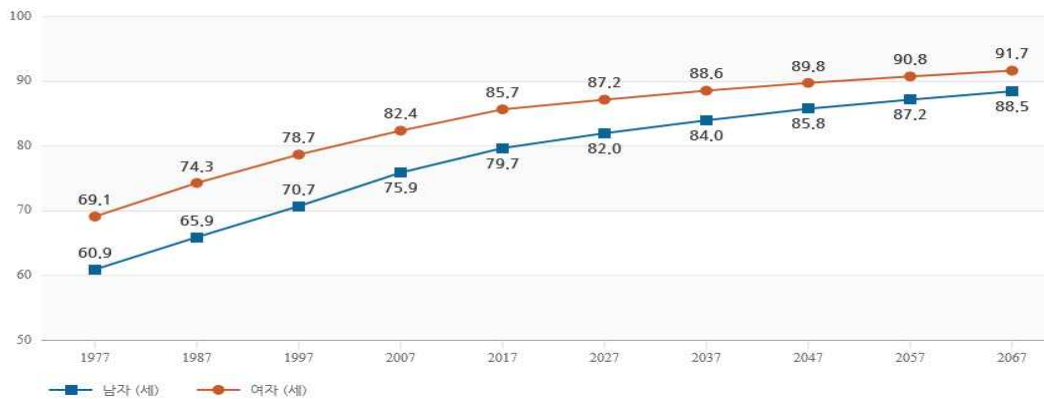
출처: 미래에셋대우(2016), 2.

- ◆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연결하고 이를 빠르게 데이터 처리하여 인간이 이해가능하고 또 대응가능한 정보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대응과 행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사회 변화를 유도함. 예를 들어, 가요의 역주행 현상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습임. 데이터의 접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노래가 새롭게 인기를 끌게 되는 것임.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모두가 연결된 초연결성(Hyper Connection), 초연결된 시스템의 통제, 활용을 위한 초지능성(Hyper 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함(조대연 외, 2017).

## 나. 인구 변화

### □ 긴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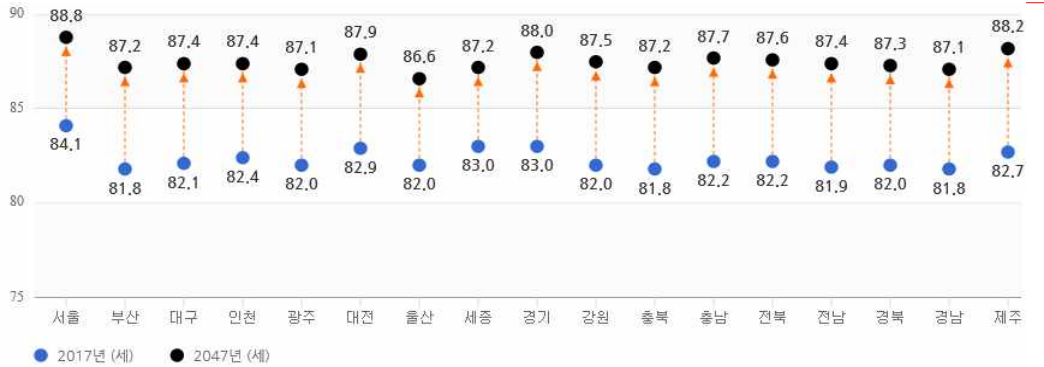
- 한국의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서울시민의 기대 수명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40세였으나 2021년 한국의 평균기대수명은 84세로 1세기 동안 2배 증가함. 따라서 수명증가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층의 증가를 의미함. 실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4] 한국의 기대 수명

출처: 통계청(2017).

- ◆ 한국의 기대수명을 보면,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그림 II-4] 참조). 2027년 84.6세, 2037년 86.3세, 2047년 87.8세, 2057년 89.0세, 2067년 90.1로 증가가 예상됨. 성별로 보면, 2037년부터 여성은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17).
- ◆ 서울시의 경우 2017년 기대 수명이 84.1세에서 2047년 88.8세로 다른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다는 추세를 보임([그림 II-5] 참조). 이는 가장 낮은 기대 수명을 보이는 울산에 비해 2.2년이 더 많은 수준임. 그만큼 서울 인구의 수명 연장 속도가 빠르며, 고령 인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할 것을 의미함.



[그림 II-5] 광역시·도별 기대 수명

출처: 통계청(2017).

-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건강 수명은 감소하고 있어서, 실제 고령기의 삶의 질에 대한 준비를 미흡할 수 있음.
- ◆ 기대 수명의 증가는 총 수명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임. 하지만 유병 수명을 제외한 이른바, 건강 수명에서는 한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II-6] 참조). 한국의 2016년 기대 수명은 82.3세인 것에 비해, 건강 수명은 64.5세로 유병 기간이 17.8년으로 나타남. 그런데, 2012년, 2014년 2016년으로 올수록 건강 수명이 감소하여 유병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6] 한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출처: 후생신보(2018).

- ◆ 기대 수명의 증가에 비해 건강 수명이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유병 기간이 증가하는 것임. 특히 60대 중반 이후부터 유병 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채 긴 생애를 맞이할 경우, 건강하지

않은 긴 생애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 사회적 부양비 증가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게 함.

## □ 긴 수명과 인생주기의 변화

-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생 주기도 함께 변화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장년기가 한국인의 인생주기로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것임.
- ◆ 한국 전쟁 후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한국인은 인생 주기 중 중·고령시기를 처음 경험하고 있음. 더구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중·고령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해지고 있음.
- ◆ 인생 주기의 변화를 예측한 UN(2015)은 새로운 인생주기 제시: 17세 이하 미성년,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구분하면서 새로운 인생 주기를 제시함(그림 II-7) 참조.



[그림 II-7] UN의 새로운 인생 주기

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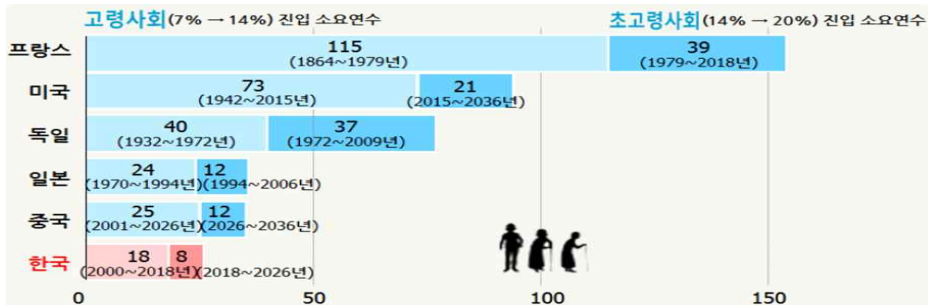
- ◆ UN의 새로운 인생 주기는 현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은 아님. 그러나 과거 40-50대의 중년층이 청년층으로 포함되고 60-70대가 중년층으로 구분되는 등, 인생 주기의 폭을 넓히면서 과거 중·노년기의 인생 주기가 젊은 인생 주기로 재배치되는 특성을 보임. 이는 결국 인생 주기의 확대이기도 하지만, 청년이나 중년의 특성을 보이는 인생 주기의 확대, 이에 해당되는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임.
- ◆ 따라서 과거에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와 여가를 즐기던 중년과 노년은 은퇴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활동, 노년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 활동, 사회적 관계와 지속적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활동 등이 모두 요구되는 상황

## □ 고령화 가속화와 연령 구조의 변화

- 한국의 고령 인구 규모가 많은 편은 아님. 하지만 저출생 등으로 인하여 고령화의 속

도가 빠른 국가임.

- ◆ OECD국가 중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등을 제외한 서구 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면 노인인구 비율은 낮은 편임. 서구 국가 중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손꼽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보다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음(통계청, 2017).
- ◆ 한국의 문제는 고령화 속도임. 예를 들어, 프랑스는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총 154년이 걸렸고, 미국은 94년, 독일은 77년이었음. 반면에 한국은 26년으로 2026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국가로 진입함(그림 II-8] 참조). 이 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임.



[그림 II-8] 주요 국가별 고령화 속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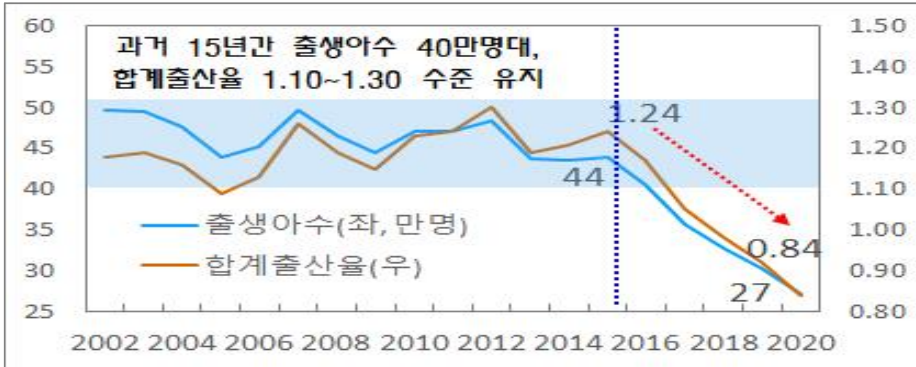
출처: 고령화산업친화지원센터(2013).

- 2020을 분기점으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됨. 그 이유는 저출생의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것에 원인이 있기도 함.
- ◆ 빠른 고령화의 속도는 특히 2020년부터 더욱 가속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이는 저출생의 상황에서 두드러지는데, 국가 기관마다 저출생 예상 추이가 차이가 나타나지만, 가장 어두운 전망은 지속적으로 출생율이 낮아지는 것임.

#### □ 한국의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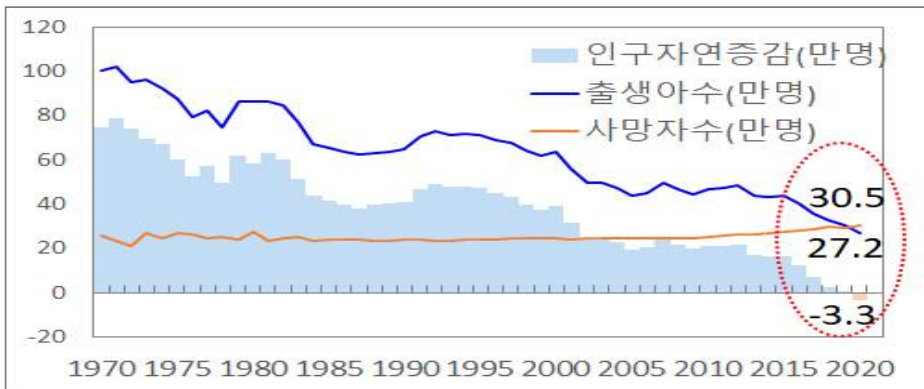
- 2020년 합계출산율 0.84%(출생아수 27.2만 명)로 세계 최하위(198개국 중 198위)임
- 가장 비관적 예상은 합계출산율을 2040년 0.73%로 예상함. 더 나아가, 2020년에 최초로 '인구 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여 향후 인구 감소 가속화가 예상됨.
- '인구 Dead Cross' 는 출생율과 사망률이 교차하여 사망률이 출생율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임. 2020년 한국은 처음 '인구 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였고, 추세가 유지

될 경우 향후 50년 동안 1,2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9]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화와 인구 Dead Cross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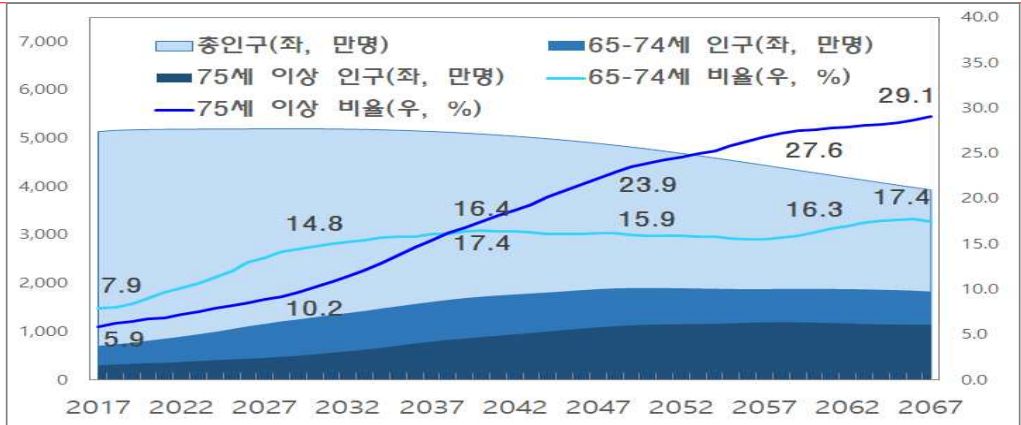
출처: 제3기 인구정책 TF(2021), p.1.



[그림 II-10] 인구 Dead Cross 발생

출처: 제3기 인구정책 TF(2021), p.1.

- ◆ 또한 고령인구 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 인구내 세대차가 발생하기도 함. 2020년 고령인구 비율 15.7%에서 2025년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함. 이로 인하여 2020년 중위연령 43.7세에서 2040년 54.4세, 2060년 62.2세로 증가하고, 고령 인구내 고령화도 증가함.



[그림 II-11]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

출처: 제3기 인구정책 TF(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p.2.

-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여 사회 전반의 변화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2017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73.2%이지만, 2067년에는 45.4%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6.5%로 증가함.



[그림 II-1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출처: 통계청(2017).

- ◆ 연령대별 인구의 규모도 향후 상당한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2021년에 20대와 30대가 약 1,390만명, 40대와 50대가 약 1,670만명이고, 2027년의 경우 20대와 30대가 약 1,250만명, 40대와 50대가 약 1,610만명 이상으로 파악됨. 2047년에는 이 연령대가 모두 20년 이상 연령이 증가하면서, 20대와 30대는 약 760만명, 40대와 50대

는 약 1,270만명으로 예상됨.

- 향후 25년 이내에 20-30대의 청년층은 2021년 대비 절반 가량으로 인구가 감소함. 그리고 40-50대로 4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 60대 이상은 2,000만명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파악됨. 이런 연구구조의 변화는 각종 소비, 주택, 가족 형태, 직업, 산업 등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임. 서울은 2027년 927만명, 2037년 887만명, 2047년 832만명으로 감소 예상됨. 향후 25년 동안 11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될 예정임.

<표 II-1> 연령대별 인구 추계

연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2027년											
전체	51,933,215	3,140,645	4,424,861	5,388,733	7,120,145	7,603,883	8,582,257	8,141,077	4,928,370	2,188,884	414,360
남자	25,971,995	1,611,939	2,271,703	2,799,360	3,796,724	3,931,051	4,323,399	4,010,316	2,286,477	837,315	103,711
여자	25,961,220	1,528,706	2,153,158	2,589,373	3,323,421	3,672,832	4,258,858	4,130,761	2,641,893	1,351,569	310,649
2037년											
전체	51,381,324	3,414,888	3,114,693	4,417,368	5,474,412	7,149,679	7,616,197	8,427,286	7,512,152	3,563,875	690,774
남자	25,596,145	1,752,856	1,598,014	2,254,503	2,822,224	3,803,055	3,909,664	4,188,541	3,569,924	1,489,223	208,141
여자	25,785,179	1,662,032	1,516,679	2,162,865	2,652,188	3,346,624	3,706,533	4,238,745	3,942,228	2,074,652	482,633
2047년											
전체	48,910,639	2,863,022	3,386,649	3,124,180	4,502,720	5,518,360	7,193,009	7,546,703	7,921,563	5,578,049	1,276,384
남자	24,241,349	1,469,602	1,737,706	1,588,453	2,275,575	2,836,820	3,805,104	3,838,031	3,832,575	2,424,286	433,197
여자	24,669,290	1,393,420	1,648,943	1,535,727	2,227,145	2,681,540	3,387,905	3,708,672	4,088,988	3,153,763	843,187
2057년											
전체	44,387,327	2,289,388	2,841,640	3,393,469	3,207,678	4,552,158	5,580,538	7,176,098	7,202,286	6,102,351	2,041,721
남자	21,957,985	1,175,145	1,458,045	1,726,844	1,608,096	2,293,641	2,854,410	3,772,410	3,591,588	2,742,014	735,792
여자	22,429,342	1,114,243	1,383,595	1,666,625	1,599,582	2,258,517	2,726,128	3,403,688	3,610,698	3,360,337	1,305,929

출처: 통계청(2017).

## 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 □ 화석연료의 종말

-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목되면서, 화석연료 사용 제한이 강하게 제안되고 또 실천됨. 이에 에너지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구조 변화에 대한 미래분석의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셸(Shell)로 알려진 로열더치셸그룹의 미래연구 시나리오임. 이 시나리오는 스크램블(Scramble) 시나리오와 블루프린터(Blueprint) 시나리오의 2개로 구분됨.

- 스크램블 시나리오: 화석연료를 계속하면서 자원 고갈이 진행되고, 자원에 대한 경

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 발생됨. 2020년대 이후 에너지 부국과 빈국으로 구분되며,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국제적 협의나 노력은 발전하지 못하는 부정적 미래 예측 시나리오임. 이 시나리오에서는 궁지에 몰려 선진국에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각국 정부의 에너지 대응이 중요하게 강조됨(Shell International Limited, 2005).

- ◆ 블루프린트 시나리오: 블루프린트 시나리오는 긍정적 미래 예측을 보여줌. 2020년 이후 기후변화의 위협에 동의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급과 관련되어, 국가, 단체, 기업 등이 모두 연계·참여하는 연합체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방식, 생활 패턴,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 활성화됨(Shell International Limited, 2005).

#### □ 탄소발자국 축소를 위한 노력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함. 탄소발자국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과 관련하여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임(기후변화홍보포털, 2021; 위키백과, 2020).
- 탄소발자국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인증 그리고 에너지 구조 변화의 노력은 온실효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상징함.
-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기반 형성 등의 정책 기초를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구체적인 향후 정책으로는 석탄 발전소의 양수발전소로 전환,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생산 분야의 변화, 내연기관활용 자동차 생산 금지, 건축 단열 기준 강화 등 건축 분야 에너지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변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또 운영될 예정임(관계부처 합동, 2018).

### 라.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유행

#### □ 전세계의 감염병 팬데믹

- 100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한 지구적 재앙은 팬데믹이 선언됨.

- ◆ 2021년 8월 2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8,182,570명으로 약 2억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은 4,222,338명임. 확진자의 주요 발생 국가는 미국, 인도, 브라질이며, 유럽대륙 전체도 다수의 확진자가 보고됨(Google,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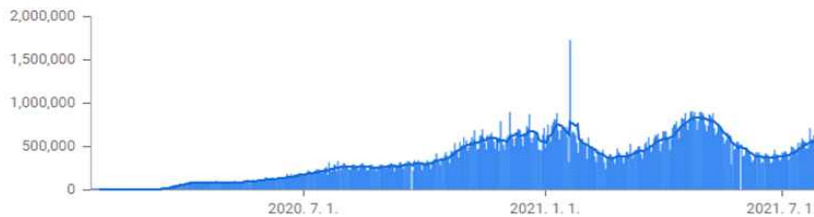


[그림 II-13]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규모

출처: Google(2021).

#### ○ 향후 지속된 팬데믹

- ◆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대한 백신이 접종되고 있으나, 전세계의 누적 확진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신규 확진자의 규모는 유형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지만, 증가와 감소를 지속하면서도 전체적인 규모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전파 속도와 유형을 고려할 때,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19의 감염 확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19는 지속적인 생물학적 현상이면서도,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현상으로 당분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14] 전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19 신규 확진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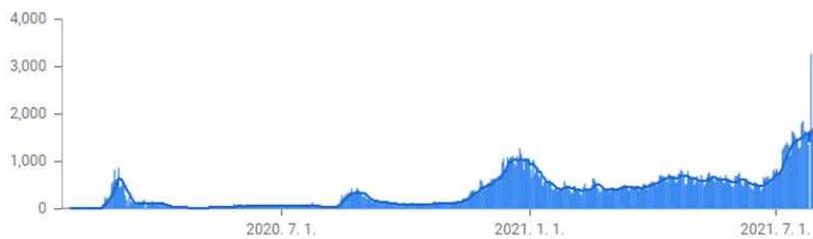
출처: Google(2021).

#### □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추세임. 하지만 대규모 확산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완전한 종식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상생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 2021년 8월 2일 현재 한국의 총 확진자수는 199,878명이고 사망자 수는 2,098명임.

전체 인구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145,922명으로 13.8%임.

- ◆ 한국도 전세계의 유형 경향과 동일하게 누적 확진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확진자수 역시 전세계의 경향과 유사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II-15]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Google(2021).

-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19 상황도 단기간에 종식되거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어려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어도, 다양한 요인에 의한 확진자 발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요한 사항은 코로나 바이러스19 종식이 이루어지더라도 팬데믹으로 발생한 사회적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2.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

### 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 사회

#### □ 일자리 파괴,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우울한 소식

- 모바일, 컴퓨팅, AI 등 새로운 기술력은 상호 촉진 지능을 통해 산업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전환할 것임.
- 이중 생산의 방식은 전통적 생산과 디지털전환 생산으로 구분되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생산은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19와 같은 전염병은 감염도시의 운영 방식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컴퓨팅을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등장하였음. 이는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변화로 예측될 수 있음.

- ◆ 일자리의 변화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직종의 등장과 직종 소멸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임. 즉, 지식·기술의 생성·소멸 주기가 짧아져,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등 일자리의 변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025년 노동인구 70%인 1,800만명 일자리가 변동성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한국고용정보원, 2016).
- ◆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직무 수행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 및 직종을 발생시키는 영향을 발생시킴. 즉,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기존의 지식의 유효성 반감기가 줄어들게 됨. 2020년까지 축적된 직무역량의 절반 이상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교육부, 2018). 또한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인해 원격 및 모바일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직무 시·공간과 직무 방식의 변화가 발생됨.
- ◆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산업영역이 등장하고 관련 직업도 새롭게 등장함.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주력산업 유망분야에서는 미래형자동차나 로봇의 수요인력이 5개 가량 증가함. 유망신산업에서는 AR/VR 분야가 20배, 항공드론이 8배, 에너지 산업이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력산업의 유망분야나 유망신산업 분야는 분야를 막론하고 필요인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산업의 새로운 변화는 대량해고와 직업전환을 필요로 함.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일자리 증발은 재양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동자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실제로 할아버지 때부터 일을 하던 자동차 생산공장은 점점 축소되어 3대째에서는 결국 실업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고 있음. 이런 공장의 폐쇄는 국내의 공장 이전이 아니라 국외 공장 이전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더욱 일자리 증발을 심각하게 함(Gratton, 2011).

<표 II-2> 12대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

(단위:천 명)

	주력산업 유망분야							유망신산업					합계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선박	첨단 소재	OL ED	시스템 반도체	IoT 가전	로봇	에너지 신산업	고급 소비재	바이오 헬스	항공 드론	AR /VR	
2015	7.5	1.0	16.3	11.9	24.9	26.8	16.6	13.6	74.2	6.6	0.4	2.8	202.7
2025	52.8	12.0	31.2	19.4	53.1	45.3	83.9	67.8	136.5	33.9	3.5	45.4	584.8

출처: 교육부(2018), p.5.

- ◆ 한편 새로운 직종으로서 컴퓨팅 또는 코딩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함. 컴퓨터 관련 전공생이 앞을 더욱 필요해지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임. 그래서 가장 각광받는 대학 전공 중에 하나로 컴퓨터 관련 전공이 포함될 것임. 하지만 우울한 측면은 컴퓨팅 관련 노동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 그림자 노동으로 흡수되는 일자리로 인하여 일자리의 증가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 ◆ 특정 분야, 특히 컴퓨팅 관련 노동수요가 존재한다고 해서 일자리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 즉, 일을 제한된 인력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또는 비제도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임.
  - ◆ 예를 들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학습과 관련된 교사나 강사가 더 채용되는 것은 아님. 또한 학습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평생교육사나 교육공학 전문가가 더 채용되는 것도 아님. 그 일은 기존의 교사나 강사 또는 평생교육사가 그대로 수행하도록 이전되는 그림자 노동(Shadow Labor)으로 흡수되는 특성을 가짐. 즉, 줌이나 웹엑스 로그인을 하고, 카메라와 비대면 시설을 점검하고, 사전 온라인 접속을 점검하고, 온라인 회의나 강의를 위한 사전 안내를 하고, 강의녹화를 하고, 녹화된 강의를 유튜브 채널이 올리고, 온라인 피드백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은 교사나 강사 또는 평생교육사에게 부여되는 디지털 그림자 노동임.
  - ◆ 결국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새로운 직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채용이 발생하기보다는 새로운 교육과 전환이 발생하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의 증가나 채용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연결되는 아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역량과 교육수요는 증가함.
  - ◆ 특정 분야의 새로운 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요구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항임. 즉, 기존의 교육방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애 단계별 새로운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요청됨. 그리고 이런 새로운 교육방식의 핵심은 평생교육임.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적용을 지원하는 것이 모든 생애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임.
  - ◆ 새로운 일자리 확대는 새로운 역량과 교육의 필요와 연결됨. 이에 디지털 전환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논의도 확대됨. 예를 들어 소프트 스킬, 복합적 문제해

결능력, 감성지능 등은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역량들임(조대연 외, 2017). WEF(2016)는 주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필요 역량을 다루었음. 관련하여, 관련 역량을 조사하고 이를 제안하였음. 특히 세계경제포럼(WEF)은 사회관계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함. 사회관계 기술은 협동, 감성지능, 협상, 설득, 서비스지향성, 타인교육훈련 지원 등을 의미함. 이는 앞서 논의한 연계성과 집단지성의 활동이 중요해진다는 것과 공통된 맥락을 갖고 있음(조대연 외, 2017).

- ◆ 그 외에도 기본적인 능력, 기본적 직무기술, 자원관리기술, 체계적 기술, 테크놀로지 관련 기술, 복합문제해결능력 등이 강조되었음. 예를 들어, WEF(2016)는 35개의 핵심직무 기술을 제시하면서 이 역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글로벌 과학기술정책기관, 2016; 조대연 외, 2017; WEF, 2016).



[그림 II-16]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직무기술

출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기관(2016), 5.

#### □ 분절화와 연결화의 새로운 업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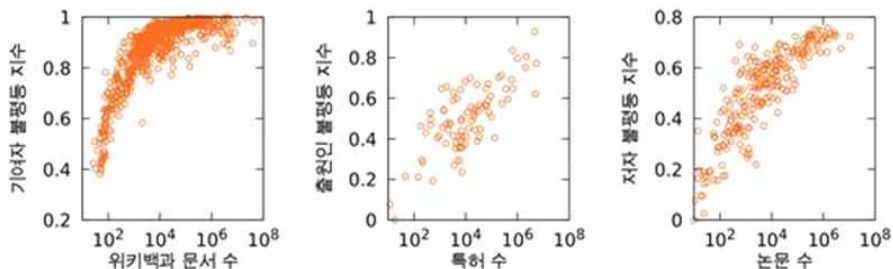
- 모바일의 발전이든 코로나 바이러스19의 영향이든 개인이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확대되었음. 이를 스마트워커(Smart Worker)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생산방식에서 일하는 사람의 물리적 위치나 생산자로서의 위치가 고립화되는 것은 분명함. 이를 분절화라고 표현할 수 있음(Gratton, 2011).
- ◆ 분절화는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보다는 제각각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또 이런 이유로 생산의 모든 과정을 조율하거나 이해하는 방식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분

에만 충실한 방식임.

- ◆ 옷을 유통하는 소매점이 없더라도, 옷을 만드는 일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 결제하는 일 등은 제각각의 일로 구분됨. 유명 의류브랜드인 베네통의 이탈리아 본사의 물류는 단 2명이 책임지고 있음. 컴퓨팅에 의하여 의류 배송은 주문, 상품포장, 배송 등이 기계화되고 일부분의 일반 물류담당자가 책임지게 됨.
  - ◆ 미래에는 이런 분절화는 더욱 커져서 의료 수술의 방법 역시 원격으로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하고, 이를 오프라인에서 준비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따로 구성되는 등 의료서비스의 분절화 역시 예견됨(Gratton, 2011).
- 연결과 집단지성을 필요로 하는 일로의 변화가 발견됨. 분절화 되었다고 하여, 혼자서 일하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님. 오히려 분절화는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결성과 집단 지성을 필요로 함.
- ◆ 생산 방식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온라인 금융의 발전, 생산기지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연결과 집단지성을 더욱 요구함.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는 여러 병원 또는 여러 지역의 의사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혁신적 공동 작업에 참여하여 전에 없던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음.
  - ◆ 이런 이유로 미래사회의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컴퓨팅 능력보다 협력과 연결의 개방성 그리고 참여임.
- 매가컴퍼니와 소규모 기업가의 등장도 강화됨.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이제 매가컴퍼니, 즉 대기업의 생산활동 결과물도 있으나 소규모 기업가 로 표현되는 1인 생산자의 생산활동 결과물도 있음.
- ◆ 대기업의 생산이나 소비지원 체제가 운영되기도 하지만, 프로슈머(Prosumer)로 표현되는 1인 생산자 역시 경제 활동의 주요한 몫을 담당하게 됨. 프로슈머는 자신 나름의 생산 방식을 갖고는 있으나 이 역시 연계와 집단지성 그리고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할 수도 있음.
  - ◆ 미래의 생산은 대기업만의 역할이 아니라 개인 생산자의 역할이기도 함. 이미 유튜브를 통해 개인생산자는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이나 유통업 측면에서의 새로운 상품거래를 가능하게 함. 또한 한국의 ‘호미’가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것 역시 1인 생산자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줌.

## □ 온라인 빅데이터의 개인 형성

- 클라우드 방식과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전은 미래의 기술발전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 작용 방식, 지식의 축적과 소통 방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옴.
-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통적 지위에서 보편적 지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임. 이제 대중은 지식의 강력한 소비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을 넘어서 생산자로서의 지위도 갖게 되는 것임. 이는 앞서 예를 든 호미 판매자와 같이 1인 생산자와 판매 가능한 상황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다양한 지식의 창고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이 올리는 지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SNS 기반의 지식창고는 매시간 단위로 과거 지식의 수십 배에 이르는 정보를 누적시키고 있음.
  - ◆ 이는 결국 지식의 축적자 또는 생산자로서 일반 대중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또한 매우 광범위한 수준의 지식축적의 가속화를 대중이 이끌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지식 생산자 그리고 지식의 유행을 이끄는 역할자로서 대중의 역할을 강화함.
- 지식생산자로서의 대중의 역할은 다양한 온라인 지식 창구나 지식 축적 현상에 나타남.
  - ◆ 2018년 KIST의 연구팀은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특허수, 논문 수의 증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음. 이 연구는 결국 지식의 축적자 또는 생산자는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급격하게 대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었음.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식의 축적이 감소하고, 일부 대중이나 유력한 생산자로 집중되는 지식생산과 축적의 불평등화 또는 권력화가 나타나는 것을 밝혀냈음 ([그림 II-17] 참조).



[그림 II-17] 인터넷 백과사전, 논문, 특허 진화 양상 빅데이터 분석

출처: Yun, Lee, & Jeong(2018). 한국과학기술정보원(2018)에서 재인용.

- ◆ 따라서 지식 생산에서 초기와 중기까지는 대중의 지식 생산 확산, 대중의 의견결정력 강화 등이 나타나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특정 집단으로 지식생산이 집중되면서 지식편중이나 권력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에서도 영향력이 높은 지식 생산자가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순위를 독점하거나 편향성을 유도하는 등의 현상은 이미 지적되고 있음. 이는 지식의 생산 독점이나 특정 계층으로의 편향뿐만 아니라 지식의 소비에서도 편향성이 강화된다는 보고도 다수 존재함(김진영, 조성배, 2020; 석보라, 김활빈, 2019).

## □ 그림자 노동과 학습 노동의 증가

### ○ 셀프서비스로 인한 그림자 노동의 증가

- ◆ 최근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노동인 그림자노동(Shadow Labor)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였음. 그림자 노동은 네트워크화 되는 디지털 노동으로 인하여 노동이 외주화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노동임.
- ◆ 또한 그림자 노동은 온라인상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노동이 소비자, 사용자,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노동을 포함함. 대부분의 그림자 노동은 대가가 없이 발생하는 노동의 유형임(박상철 외, 2021; 박상철, 이웅규, 2019; Ilich, 2009).
- ◆ 예를 들어, 지속적인 암호 재개정, 공인인증서의 교체 및 로그인,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노동, 셀프계산대나 키호스크에서의 계산·지불·포장 등을 포함함. 또한 디지털화로 인한 그림자 노동 외에도 가사노동도 여성에게 부과되는 추가 노동으로서 그림자노동에 해당됨(박상철, 이웅규, 2019; Ilich, 2009).
- ◆ 그림자노동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림자노동에 대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예를 들어, 가사노동의 경우 이를 그림자노동으로 인정하고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반영하여 가사노동을 하는 가족구성원의 그림자노동을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 학습저해요인으로서 학습에서 그림자 노동의 증가

- ◆ 그림자 노동은 학습에서도 발생됨. 기존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19, 디지털 전환 등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이 증가하면서, 학습자는 로그인, 인증, 채팅, 유튜브 시청, 이메일 확인, 문자 확인 등의 디지털 그림자 노동이 증가하였음. 또한 강사나 교육담

당자 역시 추가적인 그림자 노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 학습자의 상황을 보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홍보나 알림을 알기 위해 이메일, SNS, 홈페이지 검색, 참여 희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튜브 등의 사전 학습, 온라인 학습 시스템 설치 및 점검, 온라인 강좌 참여를 위한 학습장소 설정, 온라인 학습 설비 점검, 학습 후 평가를 위한 온라인 응답 등등 다양한 그림자 노동이 존재함. 온라인 과정의 수행 상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강의라도 관련된 서비스를 평생교육기관에서 적극 제공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림자노동의 형태로 진행됨.
- ◆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에서 그림자노동은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학습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됨. 또한 강사나 평생교육담당자의 입장에서 그림자 노동은 업무의 과중화, 학습 운영을 위한 개인적 자본의 투여,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의 증가 등의 부담이 발생함.

#### □ 숙고와 관찰의 학습 부재의 일터

##### ○ 온라인 일터에서의 학습 부재

- ◆ 일터는 전통적인 학습공간이었으나, 20세기에 와서야 학습공간으로서 인정되는 추세임. 하지만 최근 온라인 방식의 직무수행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그리고 분절화된 일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해짐.
- ◆ 이런 경향은 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일의 수행 과정을 숙고하고, 타인의 일 수행을 관찰하는 등 전통적인 무형식학습을 불가능하게 함. 이는 일터 상황에서 개인화된 학습만 가능하게 하는 것임(Gratton, 2011).

##### ○ 숙련성 또는 전문성 향상 기회 증발

- ◆ 일터에서의 학습은 전문가로부터 도제형식으로 배우거나, OJT와 같이 일을 통해 배우는 경우가 다수였음. 하지만 공동의 작업과 토론의 문화는 온라인 분절화의 과정에서 다수 사라지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하지만 이는 온라인 검색이나 유튜브 강사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함.
- ◆ 이로 인하여 단편적인 학습이나 지식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고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학습 기회는 사라지고 있음. 또한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직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표 II-3> 비형식 교육훈련 전체 참여율

	비형식 교육훈련 전체 참여율 (직무 관련성 및 고용주 지원 여부 무관) Total participation in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regardless of job-relatedness and employer sponsorship)						
	총합 Total	기업규모 Size of enterprise				경제 분야 Economic sector	
		임직원 1-10명 1-10 employed persons	임직원 11-50명 11-50 employed persons	임직원 51-250명 51-250 employed persons	임직원 250명 초과 Over 250 employed persons	민간분야 Private	공공분야 <sup>2)</sup> Public <sup>2)</sup>
(1)	(2)	(3)	(4)	(5)	(6)	(7)	
OECD 회원국							
한국 <sup>3)</sup>	59	39	60	72	84	51	84
호주 <sup>3)</sup>	65	49	59	72	81	54	82
캐나다 <sup>3)</sup>	64	48	63	67	77	54	80
칠레 <sup>4)</sup>	55	38	60	62	76	47	67
이스라엘 <sup>4)</sup>	57	42	56	62	71	44	72
일본 <sup>5)</sup>	49	36	48	53	63	46	63
멕시코 <sup>6)</sup>	42	24	46	57	67	31	57
뉴질랜드 <sup>4)</sup>	74	63	74	81	85	65	85
미국 <sup>7)</sup>	68	52	61	75	78	60	79
파트너 국가 러시아 <sup>8)</sup>	23	14	19	27	33	17	29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 p.184.

- ◆ 예를 들어 <표 II-3>을 보면, 기업규모에 따라 비형식 교육훈련 참여율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다른 OECD 회원국에서도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비형식 교육훈련 참여율이 평균 이하로 내려가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또는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학습기회가 제한되고, 이는 숙련자로서의 역량 개발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함.

□ 디지털 전환에 따른 평생교육 요구

-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직업교육 및 차세대를 위한 교육에서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방향의 교육 요구가 강함. 특히 코딩, 컴퓨팅 등의 디지털 기본 역량과 함께 융합, 의사소통, 협업 등의 역량을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역량으로 강조됨.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과 부담의 증가, 개인 삶의 피폐화, 긴 인생에서의 빈곤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개인만이 책임을 지거나 특정 연령층만 책임이 부가되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교육훈련 제공과 함께 국가나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의 공교육 특성을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 즉 ‘2 Track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2 Track 전략’은 디지털 전환 적응의 책임을 개인과 지자체(또는 국가)가 함께 나눠서 지는 것을 의미함.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학습바우처, 평생공교육의 개념과 정책이

논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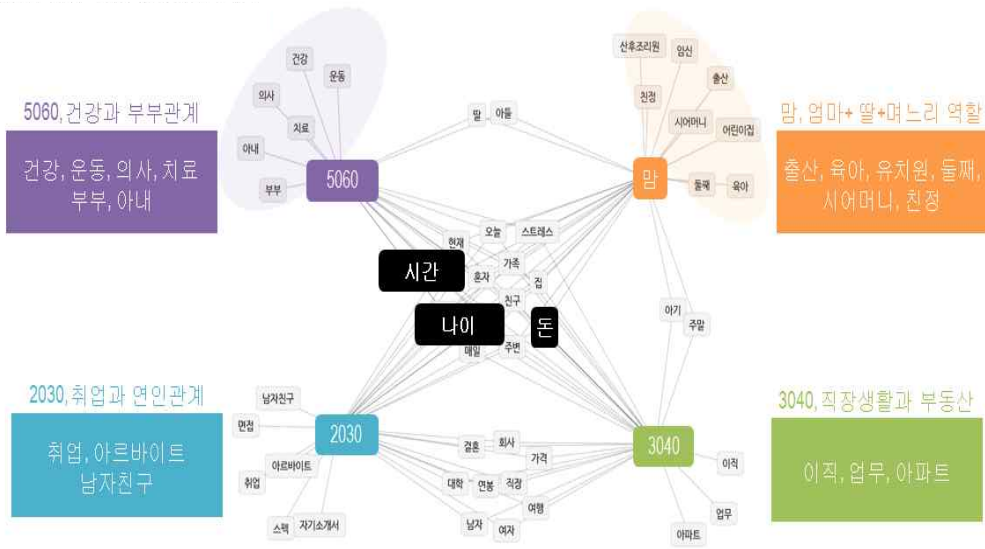
- 직업교육훈련의 계층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요청됨. 소득계층, 취업여부, 연령 등에 따라 직업관련 비형식 교육의 참여 차이가 크게 존재함. 이런 차이는 디지털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진로전환과 탐색 등을 위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그림자 노동 지원이 필요함. 다양한 온라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에 대한 그림자노동 축소나 지원의 요구가 강화됨. 민간 강사나 학습자의 온라인 디지털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공, 공유 학습 시스템이나 공유 학습방송 시설 제공, 로컬텍트(Localtext)로서 온라인 학습관의 운영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새로운 교육 테크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사회 적응 및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를 위한 접근 방법의 고려가 추천됨. 예를 들어,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3차원의 학습공간 운영, 스마트 학습기구나 프로그램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활용한 직업전문 교육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나. 경력전환(Career Transformation: CT) 사회

### □ 인생주기 확대로 경력전환이 요구되는 사회

- 인생주기에 상관없이 나이, 돈, 시간에 대한 고민 심화
  - ◆ 긴 생애와 인생주기의 확대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노동, 사회활동, 복지, 가족관계, 학습 등에서 새로운 변화와 요구를 가져옴. 이런 변화와 요구는 한편으로는 세대차를 강화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간 공통된 고민거리를 안겨 주고 있음.
  - ◆ 예를 들어, 인생주기가 늘어나면서, 변화는 인생 전반에 걸친 근로, 사회 활동, 학습 요구 확대를 가져옴. 20-30대에 주로 요구되었던 취업준비는 40대 이상 중·고령층에게도 요구됨. 연령대에 상관없이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안정적 소득 확보에 집중됨.
  - ◆ 이로 인하여 세대 간 고민도 유사성이 커지고 있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분석에 따르면 2030, 3040, 5060의 연령층에 상관없이, 시간, 나이, 돈이 공통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고민이었음. 시간과 나이를 유사한 측면에 존재하므로, 결국 시간과 돈이었음.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시간, 나이, 돈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고민이었음.
  - ◆ 한편으로는 연령대별로 관심사항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였음. 이는 연령대별 주요 삶의 과제나 이슈에 대한 것이었음. 2030은 취업, 아르바이트, 연애 등이 중

요한 이슈라면, 3040은 결혼하고 일을 구하고 집을 구하는 부분이 강하게 강조되었음. 40-50은 건강, 운동, 부부에 대한 사항이 주요하게 부각되었으며, 한편 자주 등장한 표현 중에 하나는 “맘(mom)”, “엄마” 와 관련된 것으로 출산, 육아, 어린이 집 등이 주요어로 등장하였음. “맘(mom)” 으로 표현된 부분은 세대의 구분이 되지 않고 세대 융합된 부분으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의 공통된 관심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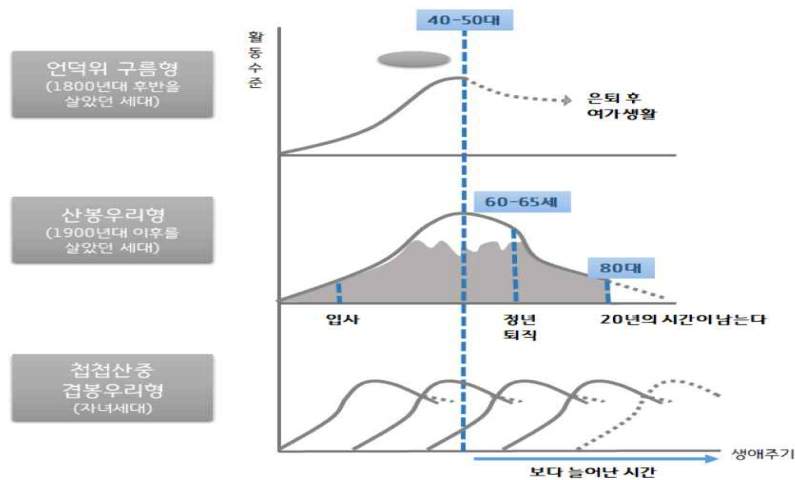


[그림 11-18] 세대별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결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p.2.

- ◆ 세대별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 시간은 인생의 흐름이나 주기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요인이었음. 시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근로나 능력을 키워야할 요인이면서 새롭게 활용해야할 자산임. 2030대에게는 진로와 관계에 시간을 써야하고, 3040대는 결혼, 출산, 육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 부족의 단계임. 50-60대를 넘으면 새로운 인생단계를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재투자가 위한 방법을 고민함. 돈은 결국 생애주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요구와도 관련되는 고민거리였음.
- 긴 인생에 따라 지속적 경력전환 필요
  - ◆ 인생주기가 길어지면서, 일과 학습에 대한 프레임이 변화됨. 인생에서 중년기와 노년기의 증가는 이 시기의 삶의 질 유지 또는 제고를 위한 추가적 노력 요구됨.

- 직업의 전환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생애에 여러 직종을 선택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때로는 동일한 영역에서 여러 직무 유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예를 들어 평생교육 분야에서 강사에서 평생교육담당자로, 이후에 시민활동가로 변화된다면, 평생교육의 영역 안에서 경력전환이 발생하는 것임. 또 직업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어느 경우든지 중·고령기로 갈수록 경력전환에 대한 준비의 필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됨(Gratton, 2011).



[그림 II-19] 시기별 경력곡선 유형

출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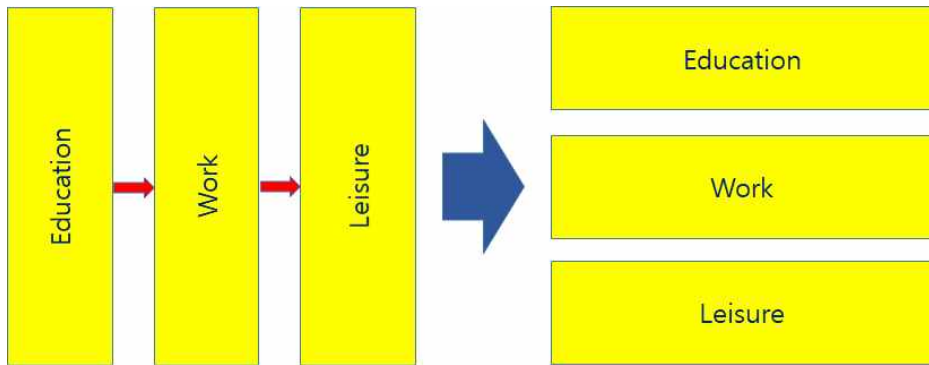
- 경력전환에 대한 일본 사회에서의 시대적 변화를 추적한 가즈히로(2018)의 연구에 따르면, 1800년대의 경력은 하나의 경력으로 일생을 충분히 살 수 있었음. 그 이유는 수명이 40대 정도였기 때문임. 그래서 이 시기의 경력곡선 유형을 ‘언덕위 구름형’으로 부름. 실제 경력의 모든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그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언덕위 구름형’으로 명명함. 1900년대에도 수명이 길어졌으나, 정년퇴직과 그 이후까지 하나의 경력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하나의 경력곡선으로도 전 생애경력이 가능했던 시기임. 이에 이 시대의 경력곡선 유형을 ‘산봉우리형’으로 명명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9에서 재인용).
- 2000년대 이후 긴 인생으로 인한 인생의 길이에 따라 일생동안 높은 활동수준을 유지해야 하도록 요구받음. 부모세대의 경우도 자녀의 활동수준의 부담에 따라 활동수준을 높이도록 함께 요구 받음. 따라서 하나의 경력으로만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이에 긴 인생 동안 여러 경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가즈히로(2018)는 ‘첩첩산중 겹봉우리형’으로 표현함. ‘첩첩산중 겹봉우리형’은 여러 경력곡선이 인생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경력곡선이 서로 중복된 영역이 존재하여, 경력 전환을 위한 시기가 인생 전반에 걸쳐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9에서 재인용).

- ◆ 일반적으로 ‘첩첩산중 겹봉우리형’은 편중형 경력(Carillon Career)으로 학술적으로 논의됨(Gratton, 2011). 이름의 차이로 기본적으로 인생에서 여러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일함.
- ◆ 편중형 경력은 인생주기 전반에서 경력전환이 수시로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함. 경력전환은 새로운 경력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직이나 창업, 또는 유사 업무 수행,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포괄함.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자동차 일을 하던 사람이 1인 자동차 강의로 전환할 경우, 편중형 경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경력전환을 위해 새로운 경력에 대한 준비로서 학습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 ○ 편중형 경력으로 인한 평생학습 요구 강화

- ◆ 편중형 경력으로 인한 인생에서의 경력전환과 이로 인한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 특히 평생직업교육 또는 진로경력지원 프로그램이 중요 이슈로 부각
- ◆ 또한 단순한 일과 관련된 경력이 아니라 평생 동안의 경력전환은 일과 여가의 균형, 이른바 ‘워라벨(WLB)’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생의 세 상자(Three Boxes of Life)’의 변화에 대한 신경지명이 유용해지고 있음. 과거에는 학습의 시간, 근로의 시간, 여가의 시간으로 인생이 구분되었으나, 현대에는 학습, 근로, 여가를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음. 이른바 인생의 세 상자가 동시에 열려져 있는 상태임. 따라서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도 하고 근로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어야 함.
- ◆ 인생의 세 상자에서 교육은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을 포함함. 전 생애단계에서 요구에 따라 다양한 학습 기회가 필요해짐. 평생교육의 필요는 생애단계에서 함께 수행해야 하는 근로와 여가를 고려하여 평생교육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즉, 중·고령층의 생애주기에서도 근로와 여가 등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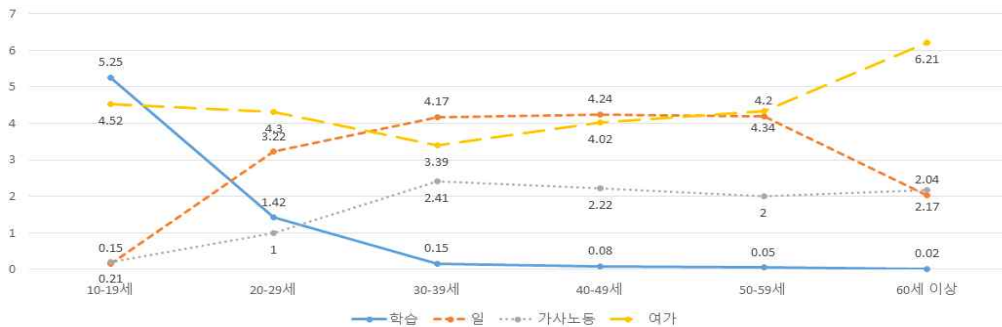
[그림 II-20] 인생 세 상자의 변화

출처: Bolles(1981).

□ 새로운 기술 추격과 경력전환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필요

○ 생애단계별 학습시간 변화와 중·고령층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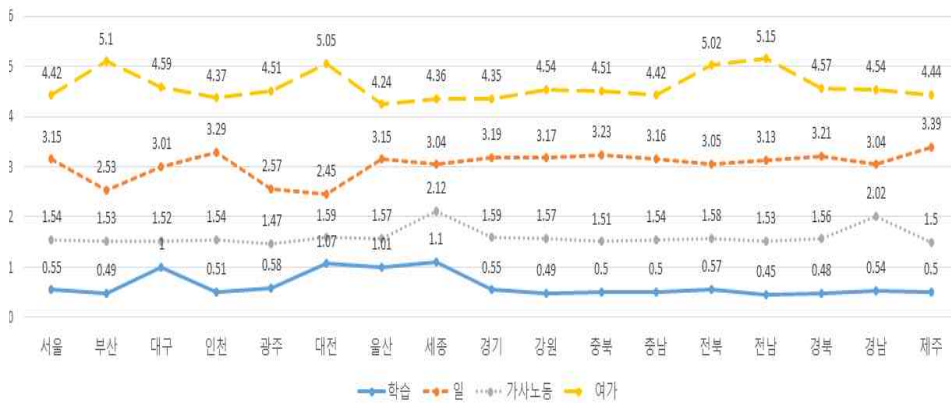
- ◆ 2019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30대부터 학습시간은 하루 15분으로 감소하고, 40대부터는 8분, 5분 등으로 감소한 수준으로 유지됨. 반면에 일시간은 50대까지 4시 30분 정도로 계속 유지되었고 여가시간은 30대에 3시 39분에서 계속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6시간 21분이 될 정도로 여가시간의 비중이 높아짐(통계청, 2020).
- ◆ 학습시간, 일시간, 여가시간을 비교할 때, 30-40대의 학습시간 급저하, 50대의 여가와 일의 교차, 60대의 여가시간 중심으로 생활시간 변화 등이 생애주기에서의 주요한 변화임. 학습과 여가, 일에 대한 준비를 사전 준비하는 상황에서 30대, 40대, 50대의 학습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그림 II-21] 참조).



[그림 II-21] 인생주기별 생활시간

출처: 통계청(2020), p.10.

- ◆ 서울시만을 보면, 평균 55분 정도로 다른 광역시에 비교하여 7위 수준임. 부산, 인천을 제외하면 광역시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경력전환의 관점에서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학습의 필요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그림 II-22] 참조).
- ◆ 전반적으로 인생주기 변화와 경력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학습과 근로의 필요가 커짐에도, 자신의 학습 요구를 파악하고 학습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존재함. 특히 중·고령층은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경험도 부족함. 따라서 평생교육의 요구를 자각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그림 II-22] 시도별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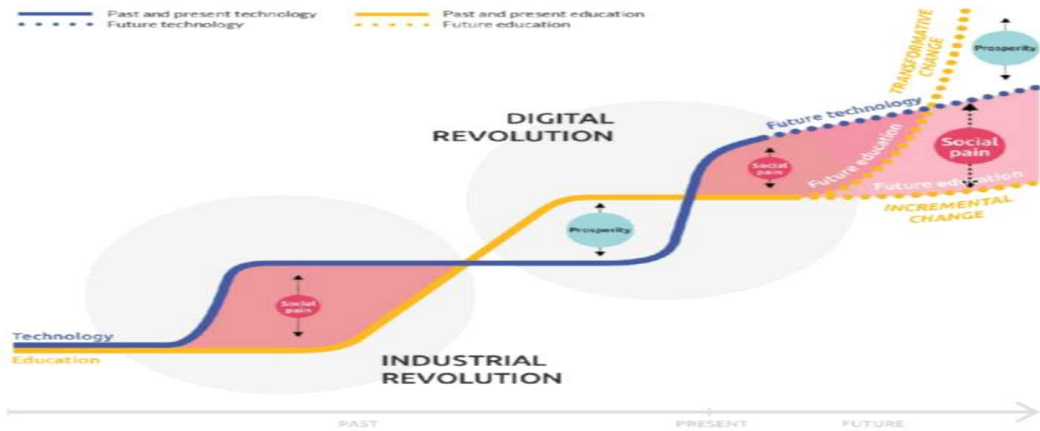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0), p.36.

### ○ 평생직업교육의 확대 필요

- ◆ 경력개발이나 경력전환의 필요성은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직결됨. 하지만 그동안 평생교육은 평생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직업교육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간 차이, 특성화학교와 학원 중심의 직업교육,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 등으로 치우쳐진 것에 원인이 있음(현영섭 외, 2021).
- ◆ 또한 인생 전체에서 보면, 중·고령층의 경력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최근 한국의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경력초기에서의 경력개발 및 첫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이 대학 진출, 대학 이후 진로 탐색 활동의 미흡 등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인생 초기에 첫 경력을 갖기 위한 경력지원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이를 반영하여 자유학기제와 같이 청소년 단계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이나 대학교의 융합전

공 제도 등이 강화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평생교육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거나, 제한된 학습자원으로 충분한 경력개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님.

- ◆ 경력전환과 경력진입을 위한 지원은 이제 사회변화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하지만 경력전환과 경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평생학습체제는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경력전환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인생 전 주기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조성, 전문적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 홍보, 메타버스 등 새로운 학습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의 종합적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 이를 위해 평생학습 정책에서 전 생애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전 생애 평생직업교육은 한편으로는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한 축으로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인생주기의 연장으로 인한 경력전환을 한 축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함. 이런 관점에서 OECD(2019)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과 교육을 통한 개인의 학습과 발전의 관계를 경주로 그리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림 II-23] 기술과 교육의 경주

출처: OECD(2019),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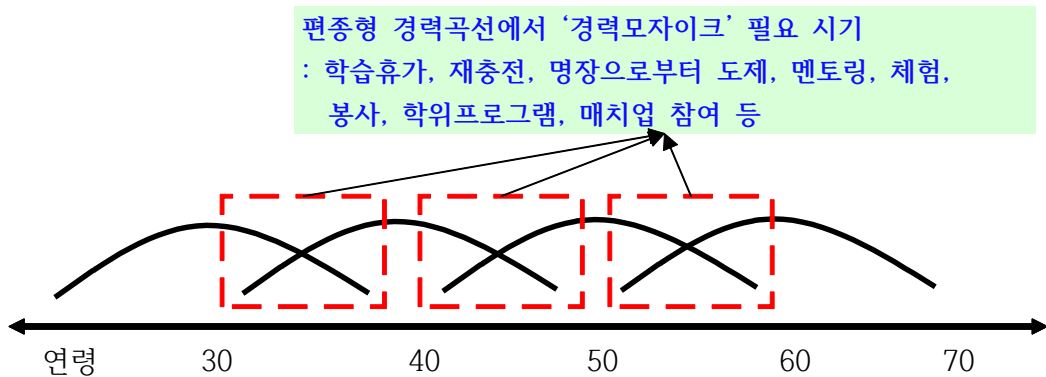
- ◆ [그림 II-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기술과 교육이 서로 발맞추어 발전해왔음. 하지만 산업혁명 시기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교육이 뒤처지면서 사회적 고통의 시기가 발생하였음. 이후 다시 교육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현

재까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였음. 하지만 최근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교육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격차의 시기가 시작됨.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격차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증가하는 상황임.

- ◆ 이에 미래교육은 디지털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반영해야 함. 또한 새로운 산업혁명에서의 사고나 논리를 넘어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직업교육, 평생 동안의 지속적인 경력 전환과 적응 유도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평생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경력전환을 위한 경력모자이크 지원 정책의 확대

- ◆ 평생 동안의 경력전환을 돕기 위해 경력전환이나 진입이 필요한 생애전환단계에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적 학습에 참여하고 새로운 진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모자이크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생애주기 확대 및 편종형 경력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제2, 제3의 경력개발과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즉, 다양한 경력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경력 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일생동안 새로운 경력 준비를 위해 다양한 경력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경력모자이크(learning+career mosaic)’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청됨.



[그림 II-24] 경력전환과 경력모자이크

- ◆ 경력모자이크는 학습휴가, 봉사, 체험, 취미활동, 자기개발, 멘토링 참여, 도제제도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준비하는 시기이자 활동의 집합체를

의미함.

- ◆ 경력모자이크는 다양한 경력전환 준비 프로그램, 학습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임. 경력모자이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제제도, 학습휴가제, 학습계좌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동 등이 포함됨. 그 예를 몇 가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 경력모자이크 프로그램 1: 명장 도제제도 운영. 전문가로부터 진로희망 분야의 전문 학습을 할 수 있는 도제제도 운영. 각 분야의 명장이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전문분야 학습을 위한 도제제도임. 도제제도는 명장이 개인적으로도 운영 가능하지만,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이 인증을 받아 도제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하게 함.
- ◆ 경력모자이크 프로그램 2: 나노디그리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온라인으로 전문성 높은 4-6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분야 초급수준으로 인정하는 나노디그리 과정 운영. 현재 매치업제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임. 이에 4차 산업혁명, 긴 생애시대의 준비 등을 위해, 전문성 높은 온라인 강의를 패키지로 묶어서 나노디그리를 인정하는 방식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지원함. 나노디그리는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이를 통해 입사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정책 구조 포함
- ◆ 경력모자이크 프로그램 3: 경력모자이크 지원체제로서 학습휴가제 활성화함. 학습휴가제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주요 기업의 학습휴가 의무제 적용, 일반노동자나 국민의 학습휴가권 확보를 위한 국민유급 학습휴가제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경력준비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여가권 보장이 필요함.
- ◆ 경력모자이크 프로그램 4: 경력모자이크 지원체제로서 학습계좌제 활성화. 학습이력을 누적·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학습계좌제가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경력모자이크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누적하고 향후 진로와 연계하기 위한 체계로 학습계좌제를 보완하여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학습계좌제의 이력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이력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개인입력 내용은 추가 인증하는 등의 개선 포함함.

#### □ 진로소외자 등 신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

##### ○ 진로소외자를 위한 경력전환 지원 정책의 확대

- ◆ 진로소외자의 증가와 직업교육을 통한 노동활동의 안정적 유지, 계층이동성 등이

어려워진 상황임. 진로소외자는 진로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에서 소외되어 경력 개발이나 전환에 대응하기 어려운 진로소외계층을 의미함. 예를 들어, 중소기업 종사자, 중·고령층 퇴직(예정)자, 위기지방대학 재학생, 소멸위기지역 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층, 저학력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배경 이주 여성 및 노동자 등임.

- ◆ 진로소외자는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열악하며, 향후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진로개발 및 취업이 불가능해지거나 노동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현재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진로소외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생계를 위해 단기일자리에 전전하거나 취업에 지속적 실패, 일을 하고 있으나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와 참여는 대단히 열악한 상태임. 2019년 이후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약 15년 전에 비해 20.1%로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평균(약 30%)의 2/3 수준임.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연평균 시간은 40시간 임(<표 II-4> 참조). 연령이나 경제활동유형으로 비교하면, 직업관련 목적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연령의 경우 최대 7%p 차이가 나타남.

<표 II-4>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연평균 참여율

구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20.1	8.5	13.4	30.0
성별	남성	25.4	12.4	16.2	35.1
	여성	14.8	6.3	10.8	23.3
연령	25~34세	29.6	10.0	18.3	32.3
	35~44세	28.0	15.7	16.2	32.4
	45~54세	21.0	32.4	16.2	25.8
	55~64세	15.0	12.2	11.8	28.3
	65~79세	6.0	6.0	5.1	10.9
경제활동인구	취업	25.7	17.4	17.2	33.9
	실업	20.6	1.8	12.7	28.6
	비경제활동	3.0	0.7	2.2	7.4
지역	서울 및 광역시	19.7	9.8	13.4	27.6
	중소도시	20.7	5.7	11.9	32.5
	농어촌	20.1	10.0	16.6	30.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20).

<표 II-5>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연평균 참여시간 (단위: 시)

구분		영역별			
		전체 (형식·비형식)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목적*	
전체		76	424	63	40
성	남성	71	433	54	34
	여성	81	411	71	50
연령	25~34세	122	476	79	66
	35~44세	53	289	48	32
	45~54세	67	317	62	33
	55~64세	66	419	61	30
	65~79세	70	371	69	8
학력	중졸이하	56	583	52	12
	고졸	79	448	62	31
	대졸이상	78	402	65	46
경제활동상태	취업	59	354	51	28
	실업	169	484	126	166
	비경제활동	122	494	93	167
월가소득	150만원 미만	98	441	69	59
	150~300만원미만	70	419	63	38
	300~500만원미만	68	384	59	34
	500만원 이상	82	440	65	43
지역	서울 및 광역시	79	447	64	40
	중소도시	69	370	59	38
	농어촌	83	458	68	42
취약계층**	취약	89	317	75	67
	비취약	76	427	62	3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20).

- ◆ 하지만 참여시간을 보면, 중·고령층과 20~30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남. 또한 채용된 상태에 비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의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따라서 한국에서 직업목적의 비형식교육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며, 연령이나 경제활동 등에 의해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서, 다양한 취약 요인에 의한 누적된 진로기회 불평등 효과, 이른바 Matthew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참여시간은 매우 적어서 충분한 직업숙련성을 갖추거나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의 새로운 전략 적용 필요

- ◆ 취약계층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모색되고 있음.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역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역동성의 연결고리를 해체하는 것임. 취약계층의 발생인 취약화의 주요 원인은 소득의 저하이고, 주변화를 통해 더욱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특성을 가짐.
- ◆ 소득 저하를 방지하고 주변화를 해체하기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지적 관점과 직업교육 관점이 가능함. 복지적 관점은 사회복지나 고용보험과 같이 최소한의 빈곤 수준을 면하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공공근로를 주요 방법으로 함. 평생직업교육

관점은 이른바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것’ 과 같이,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서 빈곤 상황을 해소하려는데 있음(현영섭 외, 2020).

- ◆ 주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직업교육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이 강하였으나 점차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 관점이 확장되고 있음. 취약계층 평생직업교육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취업 지원으로 구체화됨. 다만 평생직업교육이 복지정책을 대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고 양립하는 관점을 지지함. 따라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정성을 위한 복지기반에 기초하여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평생직업교육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음.
- ◆ 이상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은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정권을 넘어서 일할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의를 가짐.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일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회확대 및 취업과 복지의 연결을 핵심적 활동으로 함(현영섭 외, 2020).
- ◆ 일할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은 단독적으로 역할이 규정되는 것은 아님. 즉, 사회적으로 안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인 사회적 안정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복지 기반 위에서 평생직업교육이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함. 만약, 기본 복지 기반이 취약하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평생직업교육을 추구할 경우 취약계층 중 일부만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 또 대다수의 평생직업교육 대상 취약계층은 다시 사회적 배제로 돌아오게 되는 복지의 빈곤 복귀 상태를 경험하게 됨(현영섭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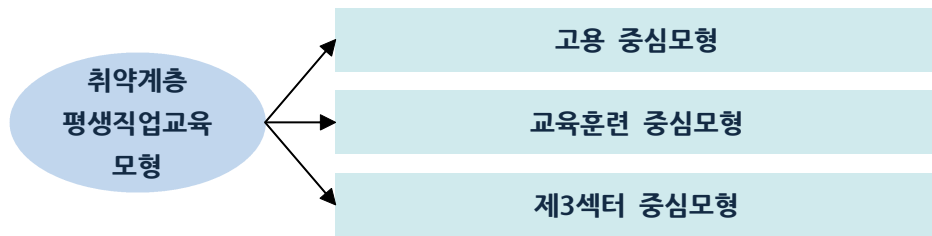
[그림 11-25] 일할 권리와 인적자원개발의 거시적 모형

출처: 현영섭 외(2020), p.23.

- ◆ 취약계층 평생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적 지원은 크게 3가지의 접근방법이 존재해왔음. 이 중 고용 중심모형은 적극적 국가 모형을 적용하면서 근로와 복지 연계의 지원 방식을 취할 경우 나타남. 기본적으로 복지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관점을 가짐. 이에 시장에서 실패하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복지 지출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갖게 됨. 다만 근로를 하도록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훈련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 중심모형은 충분한 평생직업교육 역할을 보장하지는 않는 유형이기도 함(현영섭 외, 2020).

- ◆ 교육훈련 중심모형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노동 능력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두게 됨.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능력 개발을 통하여 다수의 취약계층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한편, 공적 부조 의존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막고자 함(현영섭 외, 2020).
- ◆ 새롭게 등장하는 제3섹터 중심모형은 사회 보장 국가에서 출발하였으나 다양한 상황에서 확대되는 추세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공동체, 참여적 관계, 공유경제 등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및 시장의 원리와 모습에 기초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는 관점임(현영섭 외, 2020).



[그림 11-26]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접근 모형

출처: 현영섭 외(2020), p.28.

- ◆ 제3섹터 중심모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시장은 기존의 노동시장을 배격하는 것은 아님. 제3섹터 중심모형은 새로운 생산체제에서 취약계층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참여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노동시장과 유형을 수용함(현영섭 외, 2020).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평생직업교육은 심리적 차원, 사회적 관계적 차원, 복지 및 취업 연계적 차원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자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현영섭 외, 2020). 제3섹터 중심모형은 지역 또는 마을 공동체의 강화를 통한 시민성과 공동체 기반의 일터 개발, 평생직업교육 등 직업능력향상 지원 등을 중요시함.
- ◆ 이상의 관점을 적용한다면, 평생직업교육은 단순한 직업교육훈련이나 고용만을 목

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적 자원, 지역의 특성 반영 등의 ‘Locatech’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실제로 최근까지도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전반에서 지역공동체, 지역제도로써 평생직업교육의 역할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 새로운 평생직업교육의 정책은 지역에 기반한 산업, 소비자, 생산자 등에 기초하여 평생직업교육이 실행되는 것, 다양한 직업 영역에 대한 체험과 실습의 기회 제공, 새로운 기술이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짐.

#### ○ 진로소외자의 평생직업교육 필요

- ◆ 진로소외자의 경우 진로 포부를 갖고 꿈을 위해 도전하기 보다는 포기하거나 제한된 진로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아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가정에서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임. 이에 진로소외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미래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시설 운영이 필요함. 예를 들어, 진로장학금 지급, ‘서울 퓨처센터’ 운영 등임
- ◆ 진로장학금 지급: 진로소외자가 경력모자이크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이 가능하도록 진로장학금을 지급함. 경력모자이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학습비 등을 현금 등으로 후불 지급하는 방식임. 국민유급학습휴가제와 연동할 수 있음.
- ◆ ‘서울 퓨처센터’ 운영: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온라인서비스,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직업교육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기관임. 아동청소년(10대), 청년(20-30대), 중장년(40-50대), 노년(60대 이상)의 생애단계에 따라 경력개발, 진로직업교육 등의 평생직업교육이 가능한 기관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온라인서비스,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제공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나노디그리 형태로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을 10-20학점으로 묶어서 운영됨. 진로직업교육 이외에 다양한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지역학, 인문학,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운영함. 또한 진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이외에 경력상담, 학습상담 서비스의 제공도 퓨처센터의 주요한 기능으로 포함됨. 여기에 장애인 퓨처센터 등 특수계층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됨.
- ◆ 진로소외자를 위한 학습그림자노동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 수강을 위한 디지털 비용, 필요 시설 및 공간, 학습대체인건비(학습휴가제 등), 학습등록 및 참여, 교통비, 교재비, 가사대체비 등의 그림자노동을 지원함. 평생교육을 공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학습그림자 노동을 지원하여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지원함.

### 3. 평생직업교육의 해외 사례와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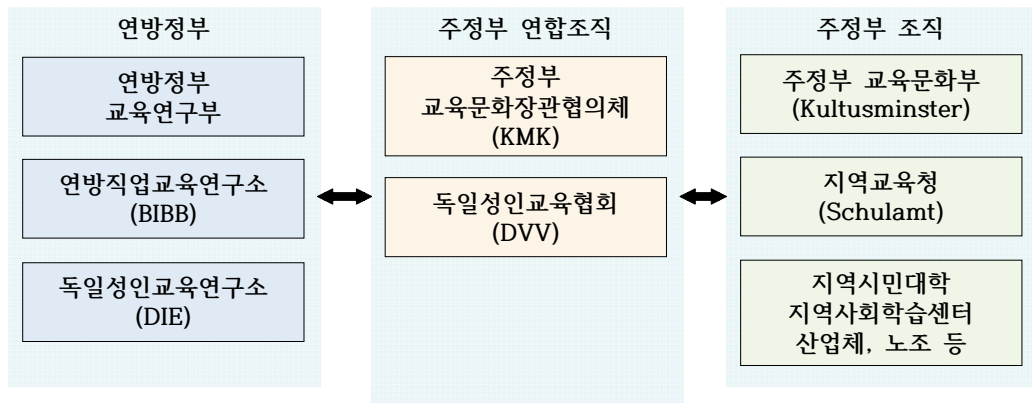
#### 가. 독일의 평생직업교육 추진체계

##### □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 ○ 지방정부 중심의 직업교육 중심 추진체계

- ◆ 직업교육 영역의 전통적 선진 국가인 독일은 20세기 초반 바이마르공화국 시기부터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으로 평생교육이 시작되었음. 이후 나치정권에 의해서 왜곡된 교육으로 점철되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서독 중심이기는 하지만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하여, 직업교육 트랙을 강화하였음. 한국에서 직업교육은 일반교육, 즉 대학교 진학교육이나 대기업 취업준비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취득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독일에서 직업교육은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바로 일터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교육에 비해 더욱 중요하고 우선되는 교육으로 지원되었음.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조선아, 2018).
- ◆ 독일의 직업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권한에 부합되는 체계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음. 연방정부는 교육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가 있음. 교육연구부는 한국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와 유사함. 따라서 직업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예산 관리를 교육연구부에서 수행함(BMBF, 2021).
- ◆ 독일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단체가 국공립 또는 민간의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연방직업교육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와 독일성인교육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DIE) 등임. 연방직업교육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방정부 수준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정책실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기관임. 그리고 독일성인교육연구소는 성인교육, 즉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연구와 정책 계획 그리고 수행을 하는 기관임. 이 두 기관은 독일의 연방정부 수준에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임.
- ◆ 다만 여기서 논의해야 할 점은 독일에서 평생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의 표현 차이임.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 평생교육보다는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성인교육은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으로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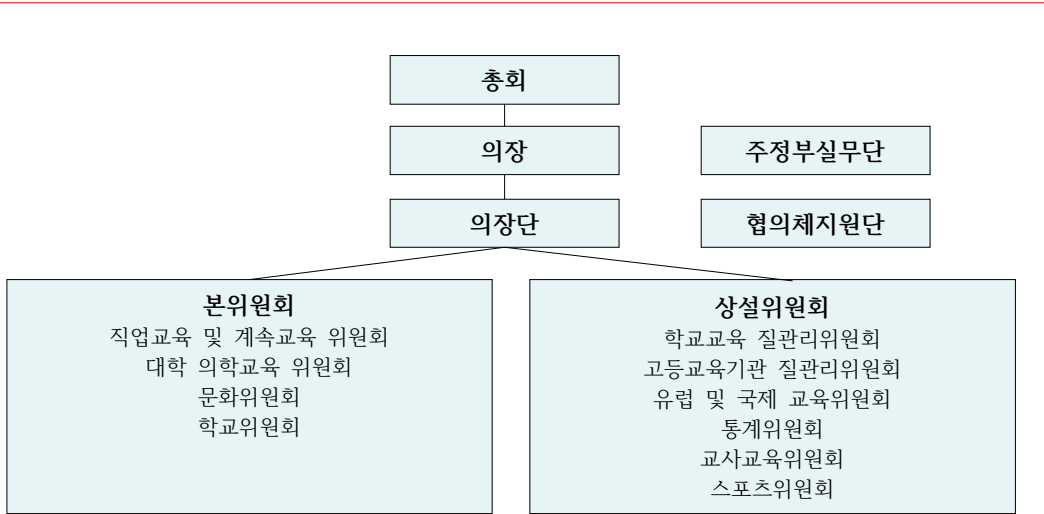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모두 의미함. 직업교육은 성인교육 중 직업준비 또는 직업 지속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의미함. 직업교육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수준의 교육도 모두 포함됨.



[그림 11-27] 독일 연방정부/주정부의 성인교육 핵심기관

출처: 현영섭 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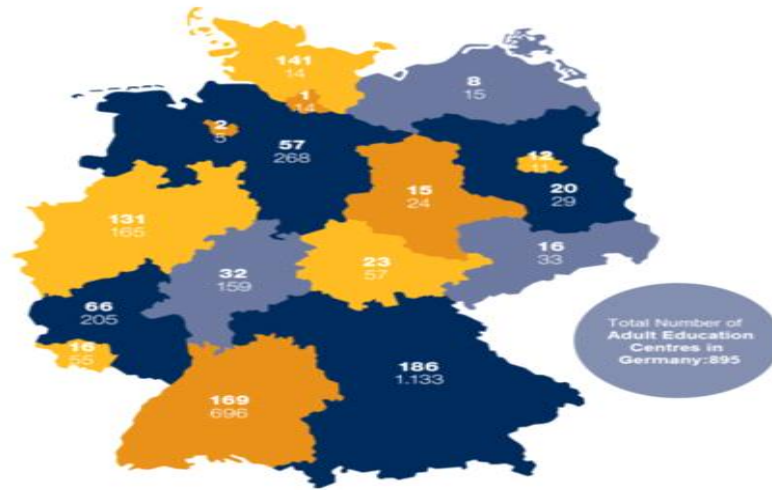
- ◆ 주정부는 한국의 광역지자체에 해당됨. 주정부의 성인교육 관련 기관은 개별 주정부 자체의 조직과 주정부의 연합 조직으로 구분됨, 주정부 연합 조직은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ultusminister Konferenz: MNK)와 독립성인교육협회(Deutscher Volkshochschul-Verband: DVV)이 대표적임.
- ◆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는 교육 문화 분야의 최상위기구로서 1948년에 설립되었음. 협의체는 주정부의 교육 및 문화 영역의 책임자인 교육문화장관으로 구성된 협의와 의사결정 기구임. 즉, 연방정부에 의하여 성인교육 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결정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됨. 이를 예산이나 기타 지원으로 협력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역할임. 또한 독일 전체의 시스템이나 국제적 관계는 연방정부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됨(KMK, 2021).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표 부속 조직임. 그리고 협의체의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면서, 의장단을 구성하고 그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음. 본위원회와 상설위원회는 교육과 문화 영역의 주요 영역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협의체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임.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위원회에서 담당함(KMK, 2021).



[그림 11-28]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조직

출처: KMK(2021)에서 정리.

- ◆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은 연방정부에도 전달되지만, 개별 주정부가 자체 조례를 규정하여 성인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실천하도록 할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함. 즉, 독일의 성인교육의 실천은 주정부의 조례기반으로 진행되고, 이를 위해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가 주정부 간의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성인교육에서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
- ◆ 주정부 연합조직인 독일성인교육협회(Deutsche Volkshochschul-Verband: DVV)는 독일 마을마다 위치한 시민대학의 연합회임. 독일에서 시민대학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유지하면서, 노동교육, 시민교육, 지역복지 등과 연계되어 성인교육을 추진하는 지역수준의 핵심적 기구였음. 시민대학은 독일 전역에 위치하여, 지역 성인교육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만큼 독일성인교육협회는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지자체 성인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단체임(DVV, 2021).
- ◆ 독일의 시민대학의 연합체인 독일성인교육협회는 독일성인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조직이면서, 성인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참여자임. 독일에서 시민대학은 독일성인교육센터 중에 하나로 독일 전역에 약 3,000 여개의 센터 중 895개가 시민대학임(DVV, 2021).



[그림 II-29] 독일 주정부별 시민대학의 규모

출처: VHS(2017).

○ 지방정부 중심의 직업교육 중심 추진체계

- ◆ 독일의 직업교육 체계는 주정부를 성인교육의 일환으로서 주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됨. 주정부는 독일에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음. 독특한 점은 주정부가 각각의 정부라는 점에서 장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주정부에 교육문화부장관이 존재함. 장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함. 즉, 주정부는 개별적인 국가수준의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 수반과 각료를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그만큼 성인교육에서의 독립성과 자결성을 갖고 있어야 함.
- ◆ 주정부의 ‘교육문화부(Kultusminster)’는 교육과 문화의 두 가지 영역을 관리하는 부처임. 교육문화부의 교육 영역은 지역의 일반교육, 즉 청소년이나 성인의 일반계 및 대학의 교육 영역을 담당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교육 또는 성인교육을 담당함.
- ◆ 주정부 교육문화부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주정부 차원에서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상정, 지역 시민대학이나 성인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함. 다만 직업교육의 계획과 운영에서 기업과 노동

조합은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함.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노동조합에서 실시하기도 함.

- ◆ 독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 수준에서 직업교육 또는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참여하는 것 역시 특징임. <표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성인교육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정책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참여하는 각종 기구는 다양함.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련 연구소가 연방정부 수준의 정책 계획이나 실행에 참여함. 그리고 연방 교육 협회는 주정부마다 센터나 지소가 있고, 이 센터나 지소의 연방정부 수준의 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구임. 따라서 연방 교육 협회는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의 연합체인 교육문화장관협의체와 성인교육에 대한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함. 주정부도 각각의 주정부내에 존재하는 연방교육협회의 지소나 관계단체와 성인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진행함.

<표 II-6> 독일 성인교육 추진체계 참여 기구

유형	기관	홈페이지
교육 관련 정부기구	- 독일 성인 교육 연구소 - 연방 직업 교육 연구소	www.die-bonne.de www.dihk.de
연방 교육 협회	- 독일성인교육협회 - 독일상공회의소연합 - 연방직업교육기관연합회 - 독일평생교육단체총괄협회 - 사립학교총괄협회 - 원격교육및학습미디어전문협회 - 성인교육을 위한 독일카톨릭협회 - 성인교육을 위한 독일 개신교 협회 - 교육 및 과학 노동조합 - 일과 삶에 관한 연방 조직 - 독일교육 확립을 위한 활성화 기구 - 가톨릭 사회 교육 협회	www.dvv.chs.de www.dihk.de www.bildungsverband.info www.dvwo.de www.dvwo.de www.forum-distance-learning.de www.keb-deuchland.de www.dead.de www.verdi.de, www.gew.de www.arbeitundleben.de www.adb.de www.aksb.de
교육 관련 사회단체	- 독일교육과학협회성인교육부 - 독일 평생교육 연구원	steam.human.uni-postdamde/sektion-eb/ www.dgwf.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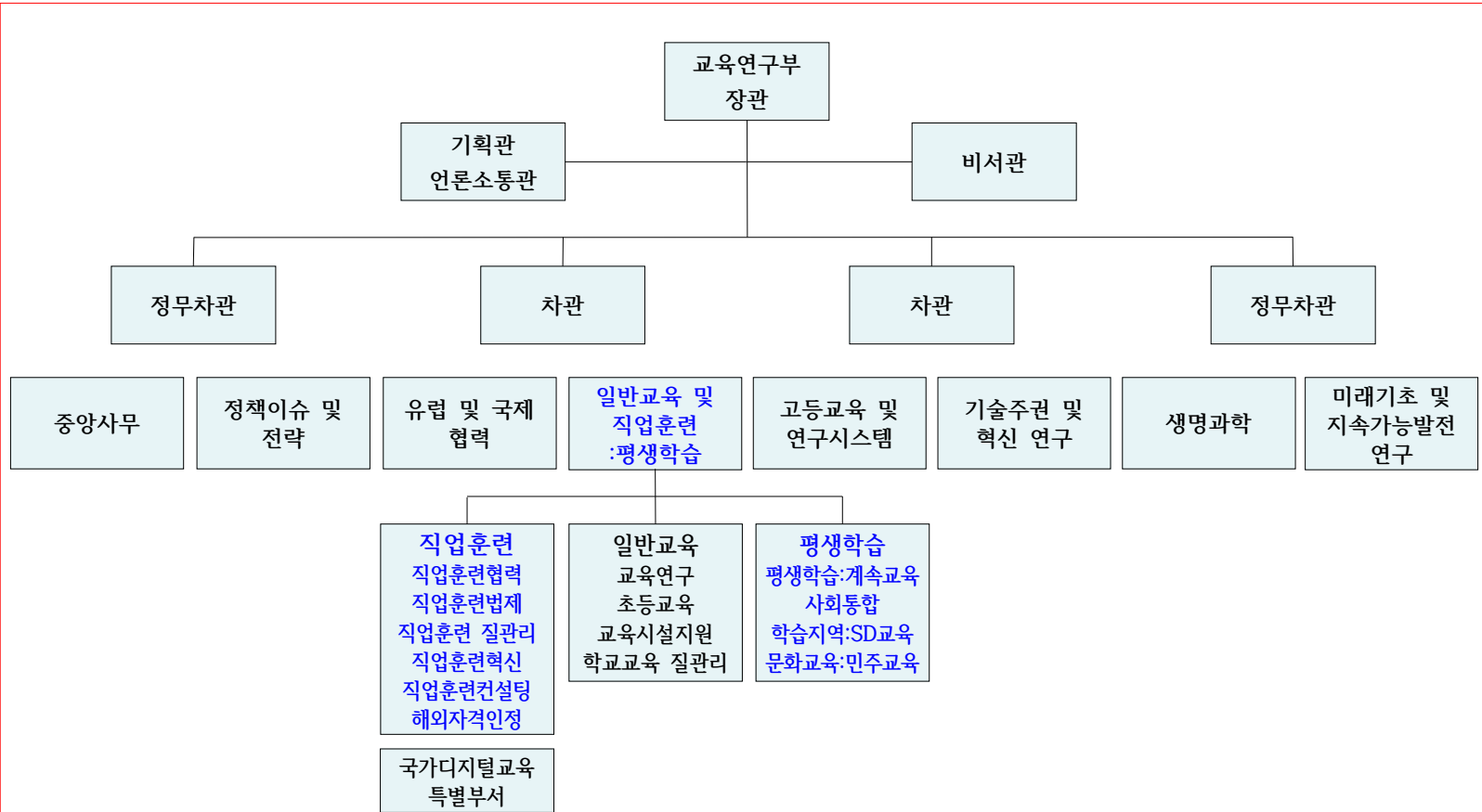
출처: 현영섭 외(2021)에서 재인용.

- ◆ 독일 주정부 수준에 성인교육의 논의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민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임. 단순한 참여 수준을 넘어서, 정책

이나 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연구와 방안의 마련에 참여하고, 이를 의논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함.

####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구분과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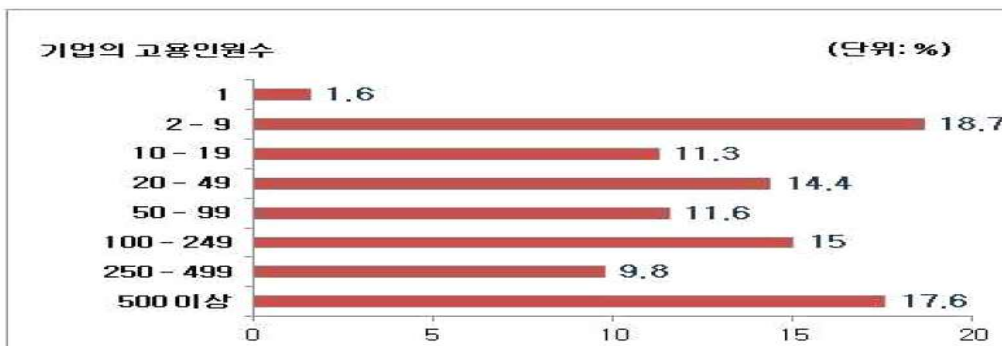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이원화
-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는 한국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친 중앙정부부처임. 이에 차관이 4명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정무 차관 2명으로 구성됨([그림 II-30] 참조).
- 더불어 교육 부문의 경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구분되는 부서(한국에서는 국이나 실에 해당)인 ‘일반교육 및 직업훈련: 평생학습’ 국이 있음. 하지만 하위 직제를 보면, 직업교육, 일반교육, 평생학습의 세 개로 구분됨. 따라서 교육 부문의 직제에서 일반교육보다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즉 성인교육의 영역의 더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이와 함께 직업교육에서는 직업훈련협력, 직업훈련법제, 직업훈련 질 관리, 직업훈련혁신, 직업훈련컨설팅, 해외자격인정을 직무로 담당함. 평생학습에서는 평생학습(계속교육), 사회통합, 학습지역(SD교육), 문화교육(민주교육)을 주요 직무로 담당함. 이런 측면에서 직업교육은 연방정부에서는 직업교육의 체제관리나 제도 관리에 초점을 두는 반면, 평생교육은 프로그램영역을 중심으로 연방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보임.
- 직업평생교육으로의 통합적 접근
  - ◆ 독일의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의 이원화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구분이 아님. 직업교육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라면,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체제를 활용한 콘텐츠 정책 및 사업 영역임. 이런 점은 독일의 직업평생교육으로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구분이었음.
  - ◆ 직업평생교육으로의 통합적 접근은 첫째, 직업교육의 제도와 평생학습의 콘텐츠를 연계하는 것이었음. 예를 들어, 직업교육의 주체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노동조합은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인문학, 리더십, 시민의식, 예술문학 등의 콘텐츠를 담아내고 있음. 이를 통해 직업교육이 직업역량과 함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되어 평생직업교육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



[그림 11-30] 독일 교육연구부 직제

출처: BMBF(2021).

- ◆ 둘째, 독일의 직업평생교육으로 통합적 접근은 평생 동안의 직업세계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경력을 전환하고 삶의 주기에 따라 적응해나가는 전 생애적 경력전환의 지원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 첫째와도 유사하지만, 이는 전 생애에 걸친 개인의 직업적·사회적·생리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이 통합되도록 하는 관점임. 대표적으로 전 생애의 경력전환 지원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 셋째, 독일의 직업평생교육의 통합적 접근은 그 특성으로 인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다수의 직장인이 직업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음. [그림 II-31]은 약간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독일이 기업고용인원 규모가 작은 경우도 다수 근로자가 직업교육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평생직업교육으로 직업교육이 정착되고 있다는 점과, 직장의 규모 등에 의해 직업교육의 격차가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평생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존재함.



[그림 II-31] 독일 기업규모별 직업교육학습자 현황

출처: 코트라(2013), p.9.

## 나. 싱가포르의 SkillsFuture 추진체계

### □ SkillsFuture의 배경과 주요내용

- ◆ SkillsFuture Singapore(이하 SSG)는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로 인한 싱가포르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장의 극복과 외국인 근로자 감축을 위해 생산력 향상을 추진하였음. 생산력 향상은 고속련 근로자의 수요 증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졌음.
- ◆ 고속련 근로자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는 기술, 지식, 경력 등을 고려한 직무별 세부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별 세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 및 사업으로 싱가포르 교육부를 중심으로 SSG을 시작하였음. 다만 SSG는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의 사항을 특징적으로 추구하는 범정부 정책 및 사업이 되고 있음.

- ① 싱가포르 교육 및 직업교육 전반의 생태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함.
- ② 기술숙련을 통해 평생교육의 문화와 전체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함.
- ③ 교육부뿐만 아니라 노동부, 사립교육위원회(Committee for Private Education: CPE), 성인교육원(Institute for Adult Learning: IAL) 등이 참여하여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④ 인생의 초기 출발단계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함 (Sillsfuture 홈페이지, 2021; SSG-WSG 홈페이지, 2020).

- ◆ SSG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싱가포르 교육, 특히 직업교육 영역에서의 문화와 생태계를 전환하는 것을 포함함.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이 직업숙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면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임. 단순한 과거의 학력위주 또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을 위해 교육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SSG은 교육부와 같이 한 부처나 한 기관에 한정되기 보다는 관련된 다수의 부처가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임. 특히 사립교육기관의 혁신을 위해 사립교육위원회가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 역시 의무적으로 진행됨.
- ◆ SSG은 전 생애동안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도 특징적임. SSG의 프로그램 대상을 보면, 학생, 초기경력 근로자(Early Career Employee), 중기경력 근로자(Mid-career Employee), 고용주(Employer), 훈련공급자(Training Provider), 평생 학습(Learning Through Life)으로 구분하였음. 물론 대상자의 구분이기도 하지만, 생애의 모든 순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경력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상 구분이기도 함. 세부적인 구분은 <표 II-7>과 같음.

<표 II-7> 싱가포르 Skillsfuture 대상별 프로그램

대상	SSG 프로그램
학생	SS근로-학습 프로그램, 교육 및 경력 가이드, 강화된 인턴십, SS근로-학습 대학원 프로그램, SS 시리즈, 기술 Frameworks, MyskillsFuture, SS근로-학습자격증, SS근로-학습 학위후 프로그램, SS근로-학습 학위, 테크기술 가속화
초기경력 근로자	SG기술교육프로그램, SS 학점과정, SS근로-학습 프로그램, SS 학습 Awards, 교육 및 경력 가이드, SS근로-학습 대학원 프로그램, SS 시리즈, MyskillsFuture, P-Max, SS Advice, 디지털직장을 위한 SS, SS리더십 개발과정, 기술 Frameworks, SS 자격제, SS근로-학습 학위, 테크기술 가속화
중기경력 근로자	SG중기경력자 경력프로그램, SG기술교육프로그램, SS 학점과정, SS근로-학습 프로그램, SS 학습 Awards, 교육 및 경력 가이드, SS근로-학습 대학원 프로그램, SS 시리즈, MyskillsFuture, P-Max, SS Advice, 디지털직장을 위한 SS, SS리더십 개발과정, 기술 Frameworks, SS 중기경력강화보조금, SS 자격제, SS근로-학습 학위, 테크기술 가속화, SS 중기경력지원패키지
고용주	SS근로-학습 프로그램, SS 학습 Awards, SS근로-학습자격증, SS근로-학습 학위후 프로그램, P-Max, SS 고용주 Awards, 디지털직장을 위한 SS, SS리더십 개발과정, 기술 Frameworks, 테크기술 가속화, 훈련 및 성인교육 전환계획, 일터학습 효율성 국가센터, SS 기업 학점제, SS 중기경력지원패키지
훈련공급자	SS 시리즈, 기술 Frameworks, SS 중기경력강화보조금, 훈련 및 성인교육 전환계획
평생을 통한 학습	SS 학점제, 교육 및 경력 가이드, SS 시리즈, MyskillsFuture, SS Advice, 디지털직장을 위한 SS, 기술 Frameworks

출처: Sillsfuture 홈페이지(2021).

- ◆ SSG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중요한 운영 전략은 생애전반에 걸친 직업교육, 즉 평생직업교육과 경력주기별 지원이었음. 또한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력을 중심으로 초기경력, 중기경력, 고용주, 훈련공급자를 대상으로 공통 프로그램과 차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었음.
- ◆ SSG의 프로그램은 일과 학습(Work-study)을 함께 연계하는 프로그램(SS근로-학습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공통 프로그램으로 훈련공급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었음.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직무영역에 대한 전문기술을 심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illsfuture 홈페이지, 2021). SS근로-학습 프로그램은 ITE 분야 졸업생(12-36개월 프로그램), Poly 테크닉 졸업생(12-18개월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학위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모듈화되어 있는 직업역량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위해 고용주와 수강생 모두에게 재정 지원을 제

공함. 특히 초기 입직자를 위해서 5,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초기 임금을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하며, 고용주에게는 코로나19 대응 자금 형태도 채용지원금이 제공됨. SS근로-학습 프로그램은 다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로 운영됨.

① 근로-학습 학위제 운영: Work-Study Degree(WSDeg) 프로그램은 SS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근로-학습 프로그램의 일부임. 이 학위제를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하게 된 분야와 직결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줌. 근로-학습 학위제는 구조화된 OJT와 교실수업이 통합된 형태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운영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함. 또한 일터 현장에서의 학생에 대한 평가도 기업과 대학이 함께 하도록 하고 있음.

② 근로-학습 프로그램의 구성: ITE SSG, Poly SSG, Poly & A Level SSG의 세 가지 학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ITE SSG와 Poly SSG는 ITE 분야와 Poly 분야의 최근 졸업생의 진출분야에 대한 취업과 전문기술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임. 그리고 Poly & A Level SSG는 Poly 분야의 최근 졸업생과 전문대 재학생 및 근로 성인(Working Adult)을 위해 ITE SSG와 Poly SSG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진입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임. 즉, Poly & A Level SSG는 프로그램 입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임.

③ 근로-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경력가이드(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력 지원 상담), 강화된 인턴십(Poly 테크닉 과정의 2/3와 IT과정의 1/2 지점에서 시작하여 2년 동안 제공되는 인턴십 프로그램), SS 시리즈(데이터분석, 재정, 테크기반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사이버 보안, 기업가정신, 생산, 지역솔루션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 훈련 프로그램), MyskillsFuture(온라인 기반의 원스톱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동안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탐색 활동 지원), 기술 Frameworks(고용주, 노조,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개발된 고용, 경력, 직업, 직무, 세로운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P-MAX(중소기업의 채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상사와 스태프가 서로 소통하고 HR 실천을 적용하도록 워크숍 운영 및 관련 비용 제공) 등 (Sillsfuture 홈페이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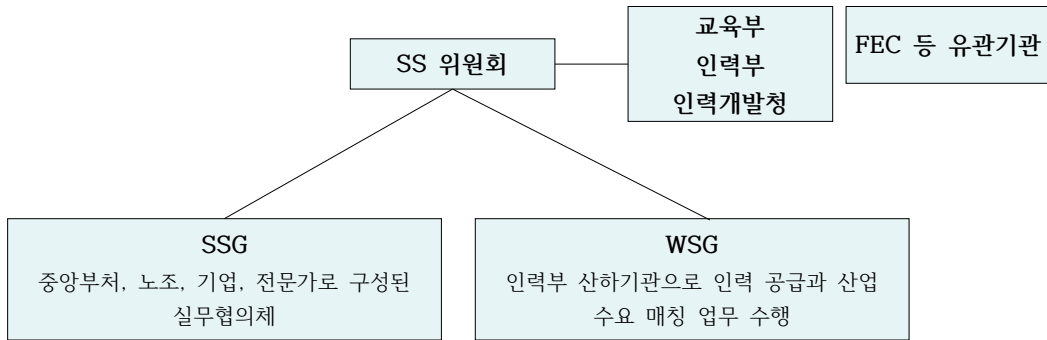
## □ SkillsFuture의 추진체계와 특징

### ○ SSG의 추진체계

- ◆ SSG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생애 그리고 학생부터 근로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적과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SSG의 정책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① 교육, 훈련, 경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선택 기회 제공
- ②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육훈련 통합시스템 개발
- ③ 기술 및 숙련에 기초한 고용주 인정과 경력개발 향상
- ④ 평생학습 지원 문화 강화(Sillsfuture 홈페이지, 2021)

- ◆ 이상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경제위원회(Future Economy Council: FEC), 교육훈련 제공기관, 고용주, 노조와 협력하여 SS 위원회(SikllsFuture Council)가 사업을 총괄함. SS 위원회에는 교육부, 인력부, 인력개발청이 주무부처로 참여하며, 산하에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운영함.



[그림 II-32] 싱가포르 SSG의 추진체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에서 정리.

- ◆ [그림 II-32]의 SSG 추진체계를 보면, 교육부, 인력부, 인력개발청의 세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SS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SS 위원회가 SSG 정책을 전담함. SS 위원회는 SSG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 수준의 기관인 SSG(SkillFutrure Singapore)와 WSG(Workforce Singapore)를 설립하였음. 이 두 기관은 전문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됨.
- ◆ SSG는 교육부, 인력부 등의 정부부처와 함께 노조 대표, 기업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임. 이 기관은 구직자 및 근로자의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함. WSG는 인력부 산하기관으로 산업수요에 따라 인력을 매칭하여 취업시키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SS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에 싱가포르 경제위원회인 FEC 등의 기관이 협력주체로 참여. SS 위원회는 교육, 노동, 경제의 핵심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

○ SSG의 특징

- ◆ 생애단계별의 기술 교육훈련의 제공이 SSG의 중요한 특징임. <표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SSG의 프로그램은 경력기준의 생애단계별로 차별 프로그램과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함. 예를 들어, 진로 및 훈련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은 모든 대상에게 제공되어 SS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선택과 안내를 제공함. 더불어 개인의 학습이력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개인학습포트폴리오 역시 온라인 포털형태로 제공되면서 모든 대상자에게 제공됨.

<표 II-8> 경력기준의 생애 단계별 SSG 프로그램

대상		학생 및 사회초년생	초기 경력자	중기 경력자
SSG 프로그램				
ECG	진로전문상담	○	○	○
ILP	개인학습포트폴리오(교육, 직업, 경력안내 등을 위한 포털사이트)	○	○	○
강화된 인턴십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학습, 해외인턴십 등	○		
SS 학점제	25세 이상 자격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	○	○
근로-학습 프로그램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진출 예정 분야 직업 훈련프로그램	○		
기술기반 모듈 과정	단기훈련프로그램		○	○
SS 학습 Awards	장학금 제공 및 학위취득 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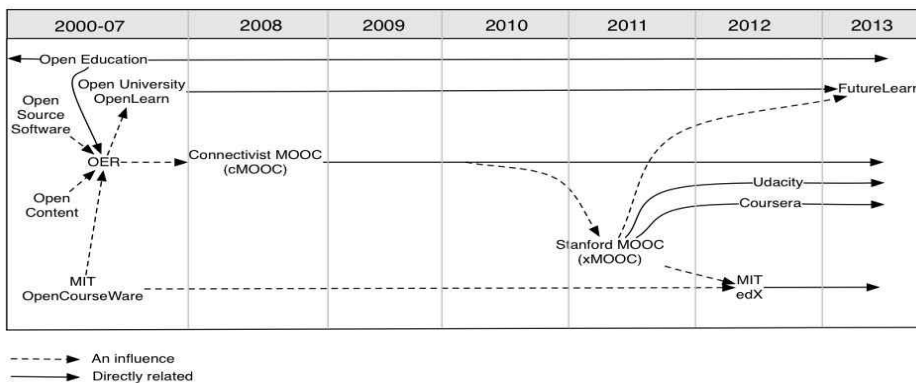
- ◆ 경력단계별 기술 교육훈련인 평생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부처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SSG이 진행되는 것 역시 중요한 특징이었음. 이를 위해 교육부, 인력부 등의 중앙부처를 연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교육은 교육부 그리고 취업은 인력부로 역할을 분할하여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점 역시 특징적이었음.

## 다. 모듈형 온라인 직업교육 제공: NanoDegree

### □ NanoDegree의 배경

#### ○ 지방정부 중심의 직업교육 중심 추진체계

- ◆ ‘Nanodegree’ 는 개방형 온라인 교육은 MOOC의 한 종류로 이해됨. 하지만, 무료 강의가 아닌 상업적 특성이 포함되었으며, 온라인 학습제공 업체인 ‘Udacity’ 의 상품 브랜드명이었음. MOOC는 2002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정규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OCW(Open Course Ware)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출발하였음. 이후 다수의 대학으로 확산되면서, 2008년 이후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운동으로 전환되었음(위키백과, 2017). 2011년에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 강좌를 개방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MOOC라는 표현이 등장하였음. 그리고 MOOC를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된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인증하는 나노디그리 유형의 프로그램이 발전하였음(현영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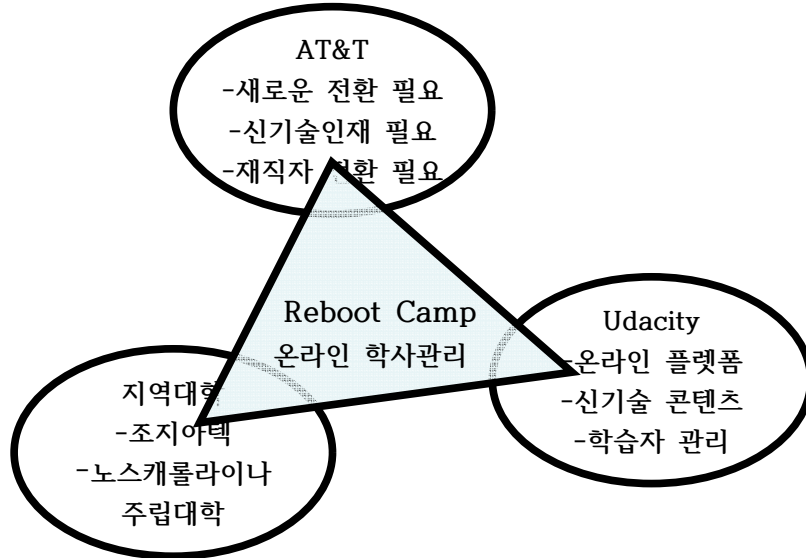


[그림 II-33] MOOC의 발전

출처: 위키백과(2017).

- ◆ [그림 II-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Udacity나 Coursera는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여 대학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업체로 대규모 학습자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임. 이 중 Udacity는 미국 기업인 AT&T사의 요청으로 새로운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이 과정을 ‘Reboot Camp’ 라고 명명하였음. 초기 ‘NanoDegree’ 는 AT&T사의 제한된 교육내용과 대상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이였음. 다만 필요한 지식을 세분화하고, 지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온라인 과정 교수자로 참여하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낱개로 이수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자격증을 부여하였음. 따라서 초기의 ‘NanoDegree’ 는 Udacity가 제공하는 교육이수증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II-34] Udacity의 ‘Reboot Camp’ 구조

출처: 현영섭(2017), 35.

- ◆ 이후 4차 산업혁명 확대, 온라인 교육과정 수요 증가, 모듈화된 교육과정 제공 등의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서 ‘NanoDegree’ 가 평가되면서, 유사한 제공업체의 등장, 국가수준의 ‘NanoDegree’ 제공체제 구축 등으로 확산되었음. 한국은 ‘매치업(Match業)’ 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원, 대학 또는 온라인 학습제공 업체, 기업이 연계하여 재직자 또는 임직희망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 NanoDegree의 특징

- ◆ Udacity에서 제공하는 ‘NanoDegree’ 는 최근에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세부과정을 구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AI나 디지털 코딩과 같이 디지털 역량이나 지식과 관련된 전문 교육과정임.
- ◆ 최근까지 Udacity에서 제공하는 ‘NanoDegree’ 는 교육과정을 14개의 범주로 구분

하였음. 14개의 범주는 Android, Data Analytics, Data Science, Developer Essentials, Digital Marketing, Georgia Tech Masters in CS, iOS, Machine Learning, Mobile App Development, Non-Tech, Software Engineering, Virtual Reality, Web Development 였음.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서는 다수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Android 범주에는 24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음(<표 II-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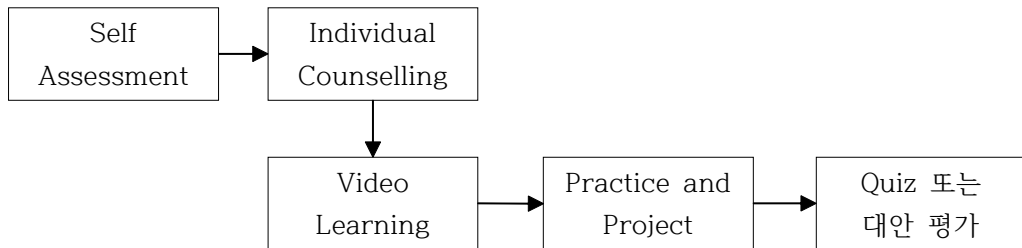
<표 II-9> Udacity의 NanoDegree 교육과정

범주	범주내 교육내용	프로젝트 수	수준	인증기업
Android	Android Basics	10 Projects	Beginner	Google
	Android Developer	7 Projects	Intermediate	Google
	Developing Android Apps	3 Projects	Intermediate	Google
	Advanced Android App Development	2 Projects	Advanced	Google
	Android Development for Beginners	5 Projects	Beginner	Google
	Android Basics: User Input	2 Projects	Beginner	Google
	Android Basics: Multiscreen Apps.	3 Projects	Beginner	Google
	Android Basics: Networking	2 Projects	Beginner	Google
	Android Basics: Data Storage	2 Projects	Beginner	Google
	Java Programming Basics		Beginner	Google
	Firebase in a Weekend: Android		Intermediate	Google
	Firebase Analytics: Android		Intermediate	Google
	Passwordless Login Solutions for Android		Intermediate	Facebook
	GitHub & Collaboration		Beginner	Google
	Google Location Services on Android		Intermediate	Google
	Add Google Maps to your Android App		Intermediate	Google
	Monetize Your Android App with Ads		Intermediate	Google
	Material Design for Android Developers, Project Make Your App Material		Intermediate	Google
	Android Performance		Advanced	Google
	Gradle for Android and Java, Project Build It Bigger		Advanced	Google
	Android TV and Google Cast Development		Advanced	Google
	Android Auto Development		Advanced	Google
	UX Design for Mobile Developers		Beginner	Google
Intro to Java Programming		Beginner	San Jose State University	
... 등 13개				

출처: 현영섭(2017)에서 정리.

- ◆ 각각의 교육과정은 분야 최고 전문가의 온라인 강의와 프로젝트 수행으로 구성됨. 프로젝트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과제로 과정마다 부여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규모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교육과정의 인증기업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해당기업의 입사시 특전 혜택을 받거나 고려되는 기업임. 즉, 기업은 특정 교육과정을 평가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이수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입사를 위한 사전교육으로 ‘NanoDegree’ 를 활용함.

- ◆ ‘NanoDegree’의 이수 는 교육과정 전문가팀에서 프로젝트 등을 평가하여 결정됨. 만약 이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모든 과정의 수강은 무료로 진행됨. 하지만 이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평가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 비용은 일반적으로 5만원 정도 내외임.
- ◆ ‘NanoDegree’의 전체 이수 과정은 자기점검, 개인별 상담, 온라인 화상 학습, 프로젝트 수행, 퀴즈나 대안 평가 등으로 구성됨. 과정에 따라서 프로젝트나 퀴즈가 없을 수 있음. 그리고 나서 이수가 확인되면 이수증 발급이 진행됨. 이수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됨.



[그림 II-35] Nanodegree의 진행 과정

출처: 현영섭(2017), p.42.

- ◆ ‘NanoDegree’의 추진체계는 ‘NanoDegree’를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제공업체 (예를 들어, Udacity 등),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 학습과정을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산업체로 구성됨. 그리고 한국과 같이 국가 수준에서 ‘NanoDegree’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유관기관이 추진체계에 포함됨.
- ◆ ‘NanoDegree’ 추진체계에서 핵심은 온라인 학습제공업체와 산업체임. 이 두 주체는 서로 협력하여 ‘NanoDegree’의 내용 구성, 인증 등을 관할하기 때문임. 즉, ‘NanoDegree’의 질을 결정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검증의 역할을 두 주체가 하고 있음.

#### □ NanoDegree의 장점

- ◆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의 교육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우수성이 인정됨. 이는 기존의 온라인 과정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임. 여기에 더해서 ‘NanoDegree’는 작은 학습단위로 모듈화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필요한 교육내용

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코딩방법을 배우기 위해 전산개론이나 대학학과 입학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을 찾아서 수강하면 되는 것임.

- ◆ ‘NanoDegree’는 3-6개월 또는 12개월 정도로 한정된 기간 동안 전문적 교육에 참요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필요한 것만 배운다는 점에서 이수에 필요한 시간이 축소됨. 이는 전통적 교육과정을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나누고 또 간소화하여 이수에 필요한 시간을 축소하는 것임. 또한 전공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에만 집중하여 학습에 투자하여 전공학습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특징이었음.
- ◆ 외부의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최상의 교육내용을 ‘NanoDegree’에 반영할 수 있음. 또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체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취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산업체와 취업희망자는 가깝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라. 지역기반 소외계층 평생직업교육: Manchester Bidwell Corporation

### □ Manchester Bidwell Corporation(MBC)의 시작

- ◆ MBC는 다양한 단위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묶여져 있는 청소년 및 성인 교육기관임. 여기서 ‘다양한 단위’는 재즈, 도자기, 합창, 생물학, 요리 등 다양한 영역이나 주제를 다룬다는 것임.
- ◆ MBC는 미국 최고 수준의 소외계층 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흑인 소년의 작은 경험이 출발점이었음. MBC의 창립자인 빌 스트릭랜드(Bill Strickland)는 미국 피츠버그에 사는 저소득층 가정의 흑인 청소년이었음.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은 흑인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빌 스트릭랜드는 저소득층으로서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음. 빌스트릭랜드 피츠버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진학하였고, 지역의 흑인 차별 문화에 대한 불만과 학업에 대한 의욕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음. 특히 빌 스트릭랜드는 아버지가 배관공이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도박과 술에 빠져 지내는 상황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빌 스트릭랜드는 학교에 있는 예술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예, 건축, 사진 등에 대한 전문가인 프랭크 로스(Frank Ross)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음. 프랭크 로스는 빌 스트릭랜드에서 아트센터에 들어오라고 하였

음. 이 때 빌 스트릭랜드는 처음 도자기를 빚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도자기의 아름다움이나 흙의 감촉에 매료되어 2년 동안 매일 학교 예술센터에서 도자기 작업에 몰두하였음.

- ◆ 학교의 예술센터에서 도예에 심취한 빌 스트릭랜드는 더 나아가 자신의 집 지하실을 개조하여 아프리에를 만들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국어 가정교사를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직접 아프리에를 만들고 근처에 사는 아이들에서 물레를 돌리는 방법,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음. 이후에는 주변의 부서진 주택을 빌려 암실로 개조하여 사진 교실을 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음. 대학교 다니면서도 활동을 계속하던 빌 스트릭랜드는 대학교 졸업 후 아프리에를 맨체스터 크래프트만 길드(Manchester Craftsman's Guild)로 이름을 붙이고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에 전념하였음. 이후 비즈웰 컬처 훈련센터(Bidwell Cultural and Training Center)의 경영 제안에 따라 비즈웰 컬처 훈련센터 프로그램에 맨체스터 크래프트만 길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였음. 현재도 맨체스터 비드웰 코리레이션의 청소년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핵심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Manchester Bidwell Corporation, 2020).
- ◆ MBC는 1960년대에는 도자기, 디자인, 디지털 사진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1970년대에는 원예, 의료, 음악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가능한 좋은 환경에서 가능한 모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후 유사한 조직과 통합을 추진하게 됨. 즉,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원예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섭외하여 통합이나 연계하는 것임. 이렇게 함으로써 최상의 교육 조건을 갖춘 곳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었음. 실제로 MCG 재즈, 드류 메티슨 센터와 같이 추가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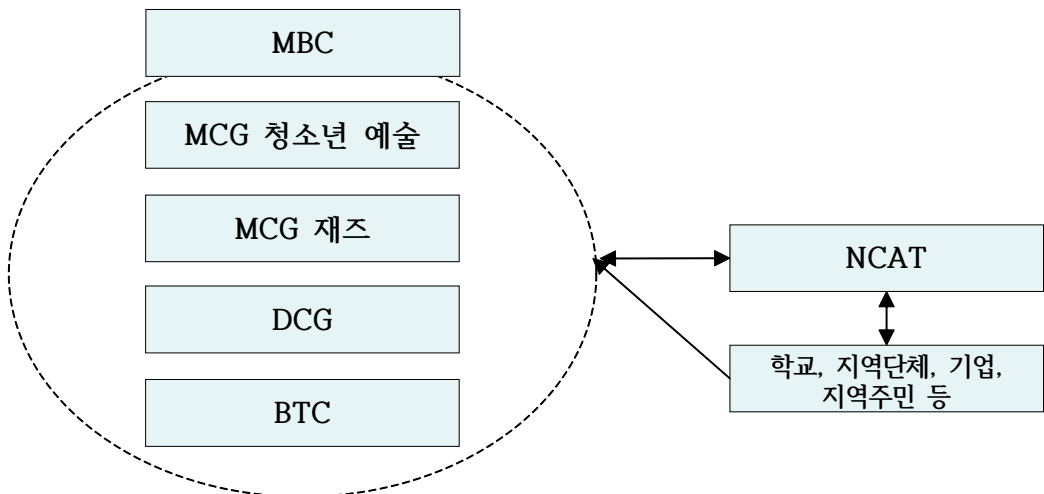
#### □ MBC의 운영

- ◆ MBC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운영되는데, 프로그램이 전파되는 방식의 일종으로, 여러 기관에 MBC의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그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임.
- ◆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생산하는 핵심 주체는 MCG 청소년 예술(MCG Youth & Arts) 프로그램임. MCG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방과후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도제프로그램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프로그램임. MCG 청소년 예술에는 도예, 디자인 아트, 디지털 아트, 사진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음. 또한 MCG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을 위한 저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 MCG 재즈는 피츠버그의 재즈 커뮤니티와 장기간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 및 예술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MBC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프로그램이면서 직업교육 센터임. MCG 재즈는 매년 콘서트를 개최하고, 재즈 분야의 저명한 연주자 및 새로운 신입 연주자가 협연하고 함께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하여, MBC를 통해 교육을 받는 청소년과 성인이 데뷔를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미션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하며, 오비도/비디오 출판 등의 다양한 아카이브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 드류 메티슨 센터(Drew Mathieson Center: DMC)도 MCG의 설립 시기에서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이자 직업교육 센터였음. 드류 메티슨 센터는 예술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서부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하고 있음. 드류 메티슨 센터는 비드웰 훈련 센터(Bidwell Training Center: BTC)의 본부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음. 그래서 청소년이나 성인이 농업, 화훼 등의 분야에 대한 자신의 미래 경력에 대한 설계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또한 드류 메티슨 센터는 난초, 포인세티아, 수국, 허비스커스, 허브, 채소 등을 키우고 생산하는 과정을 운영함. 그리고 피츠버그 그리고 이외 지역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함.
- ◆ 국가 예술 및 기술 센터(National Center for Arts & Technology: NCAT)는 오랫동안 MBC의 교육 모델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고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 기관임. 즉, NCAT는 MBC와 연계하여 MBC 모델의 발전, 문제점의 제거, 도전적 과제의 수행, 외부 전파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NCAT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개선하는 것도 MBC와의 협력 사항이기도 함. MBC는 NCAT를 통해서 MBC의 프로그램이 기업이나 일터의 교육으로도 운영되는 성과를 가져왔음.
- ◆ 비드웰 훈련 센터(Bidwell Training Center: BTC)는 MBC의 성인대상 경력개발 기관임. BTC는 MBC의 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이었던 MBC의 프로그램을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임. 특히 BTC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학이나 학교의 학점 인정 프로그램으로서 인정되어 학점 연계가 되고 있음. BTC는 화학실험기술자, 문화 예술, 의료지원전문가, 원예 기술, 약학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 영역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직무현장 경험과 경력에 대한 신념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리고 상담과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MBC의 구조와 장점

- ◆ MBC는 빌 스트리랜드가 처음 만들었을 때, 한 학생이 도예를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음. 하지만 현재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다수의 기관에서 운영되며, MBC 자체의 조직도 커진 상태임. 현재 미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는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 또는 단체로 인정됨.
- ◆ MBC의 주요 조직은 <그림 II-36>과 같이,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됨. 4개의 조직은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대상에 따라 차별적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예술과 문화, 재즈, 농업, 기타 전문직,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4개의 기관이 차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를 모두 묶어서 MBC라고 할 수 있음. 더불어 NCAT는 국가기관으로서 MBC의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또 NCAT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협조 기관으로 MBC에 포함됨.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지역의 다양한 조직이 연관됨. 예를 들어, 학교, 대학, 기업, 지역사회단체는 MBC의 프로그램을 적용받거나 학생을 보내거나 MBC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곳임. 일종의 지역 생태계로서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그림 II-36] MBC의 구조

출처: Manchester Bidwell Corporation(2020)에서 연구자 정리.

- ◆ MBC의 장점은 첫째, 민간주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갖고 있으며 이를 우수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타기관에 전파한다는 것임. 그리고 이를 통해 MBC의 하위 조직이 확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그리고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와주기 위해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기업, 지역사회기관 등에 제공되는 점이 특징적임.

- ◆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성인과 같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상단을 제공하는 등 평생직업교육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임. 단기적 교육훈련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인생주기에 따라 직업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것임.
- ◆ 셋째, 직업교육실천문화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즉,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MBC를 넘어서 피츠버그 지역 전체, 더 크게는 미국 전체에서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업을 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강화까지 연계하는 등 직업교육의 실천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마. 디지털 AI 학습 온라인 캠퍼스: 독일의 ‘KI Campus’

### □ 디지털 교육 강조와 ‘KI Campus’ 운영

#### ○ 새로운 산업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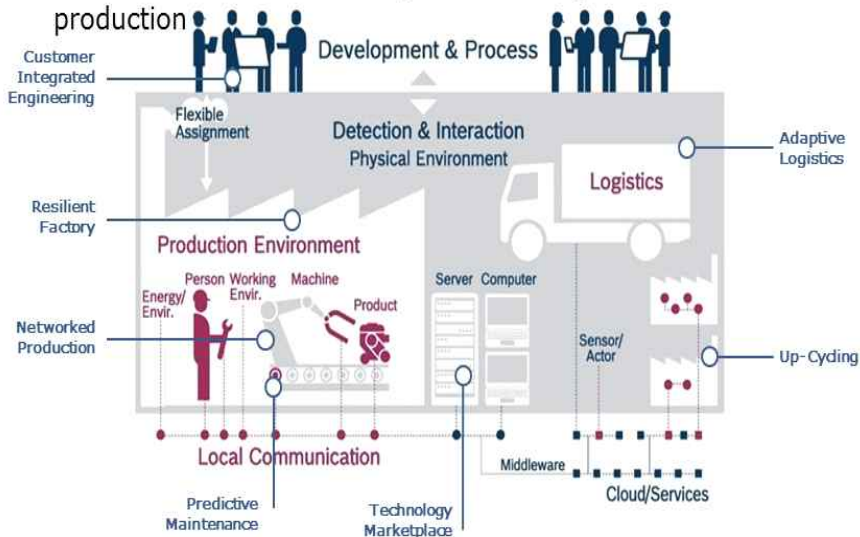
- ◆ 독일은 그 동안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과 이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이원체제로 운영해왔음. 여기서 이원체제는 학교를 통한 직업교육과 도제체도로 대표되는 산업체를 통한 직업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 ◆ 또한 독일은 산업관련 위기 상황을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맞이하였음. 중국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한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독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이 제조업 위기를 가져오고 있었음.
- ◆ 제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제조업의 핵심 기업유형인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혁신 또는 새로운 제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정책을 추진하였음. 대표적으로 ‘하이테크 전략 2020’ 과 ‘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하였음. ‘하이테크 전략 2020’ 과 ‘Industry 4.0’ 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제조업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계획이었음(정보통신진흥센터, 2016; 조대연 외, 2017).
- ◆ ‘하이테크 전략 2020’ 은 2006년부터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

한 다양한 정책을 모은 종합 전략임. 당초 ‘하이테크 전략 2020’ 는 2010년 중간 점검 후 2020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하지만 2011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의 프레임을 도입하여 ‘Industry 4.0’ 을 통합하였고, 2014년에는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 로 새롭게 발표되었음(정보통신진흥센터, 2016).

- ◆ 하이테크 전략 2020에는 5대 중점 영역과 10대 미래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음. 5대 수요 분야는 기후/에너지, 보건/식량, 정보통신, 이동성, 안전이었고, 10대 프로젝트 중 정보통신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Industry 4.0이 포함되었음(정보통신진흥센터, 2016).
- ◆ ‘Industry 4.0’ 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 또는 활용하여 제품 생산, 유통, 소비자 구매, 소비자 활용 등의 모든 단계의 기술을 혁신하는 프로젝트였음. 이 프로젝트에는 보쉬, 지멘스, SAP 등의 민간 기업, 공과대학, 분야 관계자 등이 working group으로 참여하였음. ‘Industry 4.0’ 프로젝트의 핵심은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데 있음. 즉,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자원 조달부터 제품 생산 및 물류까지 그리고 고객서비스 까지도 자동화하는 것임(정보통신진흥센터, 2016; 조대연 외, 2017).

## Smart Factory

→ New business models through the convergence of IT &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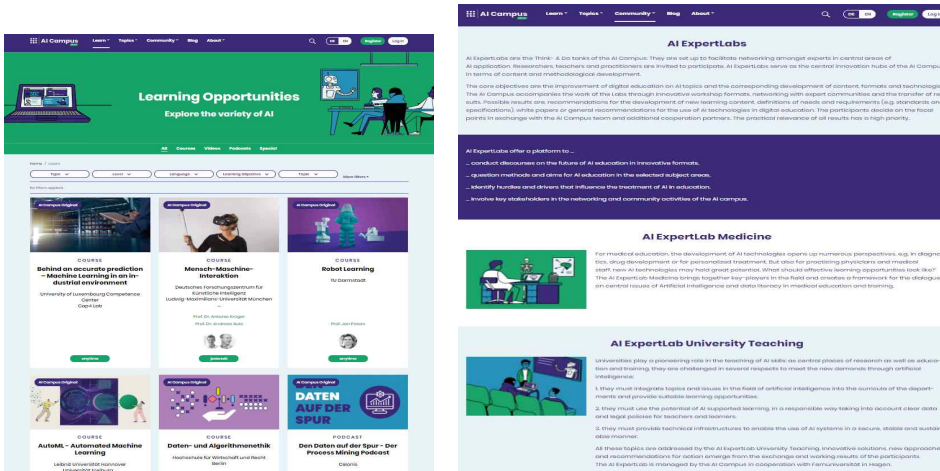


[그림 11-37] 보쉬의 스마트공장 개념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p.18.

○ AI전문 온라인 학습공간인 ‘KI Campus’ 개설

- ◆ 디지털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제조업 분야의 변화와 함께 독일은 전 국민이 AI 관련 학습을 편리하게 하고 또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AI에 대한 온라인 학습플랫폼인 ‘Die Lernplattform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를 20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음. 2021년 현재는 Beta 버전을 운영하고 있음.
- ◆ ‘KI Campus’ 는 독일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BMBWF)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며, 4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2019년부터 참여하여 이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온라인 학습과정을 개발하여 ‘KI Campus’ 에 탑재하고 있음.
- ◆ 협력기관은 대학, 기업 등이 대다수이며,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나 센터 등에서 온라인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용 코드(code)를 부여함. 이 코드는 ‘KI Campus’ 의 다른 온라인 학습과정과 연계 수준, 관련 자격증과 연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코드임.
- ◆ ‘KI Campus’ 의 교육과정은 전면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며, Nanodegree나 MOOC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상황이후 다수의 학습자가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독일의 새로운 학습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교육정책네트워크, 2021).



[그림 II-38] KI Campus 홈페이지

출처: KI Campus(2021).

## □ ‘KI Campus’ 의 강의 운영

### ○ 비전 및 원칙

- ◆ ‘KI Campus’ 비전은 “An AI-competent society” 로 해석하면 ‘인공지능 역량 사회’ 라고 할 수 있음(KI Campus, 2021). 독일 사회 전체의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해석됨.
- ◆ ‘KI Campus’ 미션은 “We Strengthen AI Skills And Competences Through Innovative, Digital Learning Opportunities.” 였음(KI Campus, 2021). 즉, 혁신적 그리고 디지털 학습 기회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인공지능을 콘텐츠로 하는 디지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KI Campus’ 의 핵심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실제로 ‘KI Campus’ 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등을 보면,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됨.
- ◆ ‘KI Campus’ 원칙은 다음의 6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이 원칙은 ‘KI Campus’ 의 교육과정 개발, 협력, 학습자 지원 등의 모든 서비스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음.

- ① 다른 플랫폼이나 기구와의 기술적 협력이 가장 기본적인 운영 원칙임.
- ② 학습자와 학습과정이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의 핵심임. 특히 교수 활동에서 학습자의 학습 활동으로 변화를 추구함.
- ③ ‘KI Campus’ 의 교수설계는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혁신적이고(innovative),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를 지향함.
- ④ ‘KI Campus’ 는 민첩하고(agile), 참여적이고(participative), 사용자 지향적(user-oriented) 과정 운영을 지향함.
- ⑤ ‘KI Campus’ 의 학습 형태는 학습분석과 추천시스템 등의 인공지능 방법을 활용하고, 높은 수준의 명확성, 개별화, 적용가능성을 제공함.
- ⑥ ‘KI Campus’ 의 모든 과정과 자원은 개방적 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 EOR)의 원칙에 따라 개발되고 제공됨(KI Campus, 2021)

### ○ 교육과정의 구성

- ◆ ‘KI Campus’ 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주제(topic)로는 의학, 학교, 데이터, 머신러닝으로 구분됨. 의학, 학교, 데이터, 머신러닝의 주제는 온라인 학습과정이 적용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음. 즉,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topic임.

<표 II-10> KI Campus 온라인 강의 필터링

필터링 기준	세부 구분
유형	Course, Podcast, Special, Video
수준	Beginner, Advanced, Experts
언어	German, English
학습목표	Got to know AI, Study AI, Apply AI
유형	About AI, Data literacy, Fundamental methods of AI, Machine Learning, Human-computer interaction, Robotics, Data science & big data, Internet of things and industry 4.0, AI in medicine, AI for public administration, AI for managers, AI in education, Societal aspects of AI.
저작권	CC0 1.0, CC-BY-SA 4.0, CC-By-NC-SA 4.0, Other, No open license
공급자	AI campus original, Partner, External

출처: KI Campus(2021).

- ◆ 또한 인공지능 온라인 과정을 유형(Type), 수준(Level), 언어(Language), 학습목적(Learning Objective), 저작권(License), 공급자(Supplier)로 구분하여 필터링할 수 있음. 각 필터의 조건을 설정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범주나 유형의 온라인 학습과정을 검색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음.
- ◆ ‘KI Campus’ 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가능하며, 회원 가입 후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과정뿐만 아니라 커뮤니티(Community)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커뮤니티는 AI관련 학습이나 실험을 하는 동아리 또는 연구팀으로 연결됨.
- ◆ 특정 과정을 선택하면, 기초적인 정보로 개관, 학습내용, 학습후 성취, 선수학습 요구 사항, 과정 제공자, 강의 시간, 강의 형태, 수준, 저작권 유형 등이 제공됨.
- ◆ 독일의 ‘KI Campus’ 는 한국의 K-MOOC와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AI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타 제공자에 의해서 온라인 학습이 공급되며, 각종 자격과 연계되는 등 전문성과 사회적 보상 연계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 더불어 커뮤니티와 같은 연구팀과의 연계, 강의 개설한 전문가와의 연계 강화, 과정과 관련된 기관의 채용 등으로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

## 바. 대학-지역 연계 컨소시엄: 일본 대학 컨소시엄 사례

### □ 대학 컨소시엄의 배경

#### ○ 지역 침체와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학령인구 감소, 지방인구 유출, 지방경제 쇠퇴 등을 먼저 경험하였음. 그러면서 지역의 인구, 교육, 문화, 산업 등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학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였음. 즉,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가치가 수용된 것임. 이런 가치와 인식은 일본 대학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성장하였으나 지역의 문제는 도외시하였다는 자성에 기초한 것이었음. 더불어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대학의 운영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으로 평가되었음.
- ◆ 한편 대학은 교육기관으로 지역의 청년 그리고 성인 등 다양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인식 역시 함께 커졌음. 이로 인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평생학습의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자원을 대학에서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정책 방향이 수용되었음. 대학은 협소한 개념의 공간과 역할 범위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음.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다수의 대학 간의 차별성을 장점으로 보고 서로 연계하여 상호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학습과 지식의 거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됨(권두승, 이윤조, 2018).

#### ○ 대학 경영 악화의 탈출구 필요

- ◆ 일본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국가임. 대학 중 사립대학이 70% 이상으로 대다수의 대학인 사립대학임. 이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현상은 일본 전역에 산재한 사립대학에 치명타를 주고 있었음. 국립대학도 이런 위기에서 안전하지는 않았음. 이에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의해 대학의 위기는 더욱 확산되었음(권두승, 이윤조, 2018).
- ◆ 대학 위기와 지방소멸이 상황은 두 이슈 또는 주체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대학별 특성화와 지역과 연계화라는 기조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음. 원래 일본 대학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운영될 수 있는 자립형 조직이었음. 하지만 입학 자원 감소, 중앙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자립형의 특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학별 특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 대학 간 그리고 지역과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 경영을 추구하는 것임.

## □ 대학 컨소시엄 사업 추진

### ○ 커뮤니티센터의 추진

- ◆ 일본은 1970년대부터 대학과 대학 간 특성화와 연계화를 강화하기 위해, 학점 교류제를 실시하였음. A대학의 학생이 B대학에서 강의를 30학점까지 수강하고 이를 A대학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학점교류제임. 이른바 ‘단위호환제도’ 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2000년대 직전에는 단위호환제도의 한계학점을 30학점에서 60학점으로 확대하였음. 참여대학은 2008년에는 565개가 될 정도로 20년 동안 4배 이상이 증가하였음(권두승, 이운조, 2018). 학점 교류 이외에도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공동연구 지원, 교양과목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교양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음.

### ○ 중앙정부의 대학 컨소시엄 정책 추진

- ◆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중앙정부(문부과학성)가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하였음.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별 대학 컨소시엄을 위한 협의회가 운영되었고, 2004년 11월에 대학 간 컨소시엄이 연합하여 ‘전국 대학 컨소시엄 협의회’가 발족하였음. ‘전국 대학 컨소시엄 협의회’는 대학 컨소시엄 교토에 위치하였음. 2010년에는 ‘전국 대학 컨소시엄 협의회’에 총 48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음(권두승, 이운조, 2018).
- ◆ 지방정부에서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의 대학간 컨소시엄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음. 2013년부터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센터(Center of Community: COC) 사업’이 진행되었음. ‘COC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연구, 사회공헌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COC 사업’ 참여 주체는 지방정부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비정부단체, 주민모임, 기타 기관 등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음(박노동,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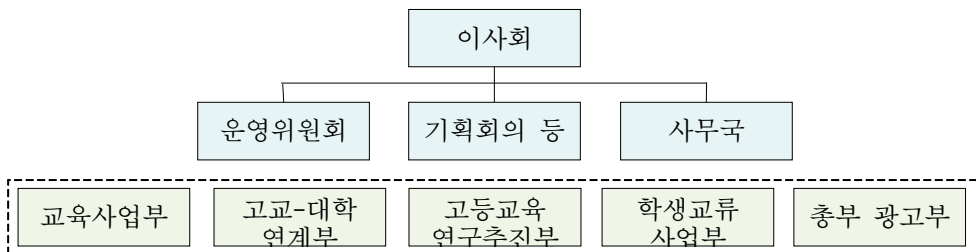
## □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사례

### ○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구조

- ◆ ‘대학 컨소시엄 교토’는 일본의 고도인 교토시에 위치하는 3개 대학(리츠메이칸 대학, 류코쿠 대학, 도지샤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단법인임. 단위호환제가 운영되면서 교토에 위치한 대학 간 학점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4년 ‘교토 대학 센터’가 설치되었고, 1998년 문부과학성의 인가를 받아 ‘대학 컨소시엄 교토’로 발전

하였음. ‘대학 컨소시엄 교토’는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공립대학이 모두 참여하면 2006년에는 55개가 넘는 법인이 참여하고 있음.

- ◆ 교토는 1,200년이 넘는 고도로서 한국의 경주와 비슷함. 또한 다수의 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로서 일본에서 유명하였음. 하지만 지방도시로서 제조업이나 관광산업이 쇠퇴하면서 대학이 이전하는 등 급격한 도시 축소 시기로 접어들었음. 이에 1990년대에 들어 교토시는 ‘대학 도시 교토 21 계획’을 수립하였음.
- ◆ ‘대학 도시 교토 21 계획’은 대학 간 연계 강화, 연구 활동 지원, 기업 연계 강화, 국제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그리고 ‘대학 도시 교토 21 계획’을 토대로 ‘교토 대학 센터’가 설립되었음. ‘교토 대학 센터’가 발전하여 재단법인이 되면서 ‘대학 컨소시엄 교토’가 출범하였음. 2000년에는 교토역을 중심으로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핵심 공간이자 시민, 대학, 학생, 기업 등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인 ‘캠퍼스프라자 교토’가 개원되었음.
- ◆ ‘대학 컨소시엄 교토’는 재단법인으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위원회와 사무국 그리고 5개의 부서로 구성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사업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함.
- ◆ 5개의 부서는 각각 자신의 역할을 차별적으로 수행함.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교육사업부는 단위호환사업, 인턴쉽 사업, 생애학습 컬리지, 도서관 공동 이용 사업, 장애학생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고교-대학 연계 사업부는 고교-대학 연계를 중심으로 연계 협의회 사무국 운영, ‘교토 one campus’ 사업 등을 추진함. 고등교육 연구추진부는 각종 연구 지원 사업, 국제교류 및 유학생 지원, 통계조사, 도시정책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 교류 사업부는 학생 영화제, 교토 학생 예술 작품전, 학생 아르바이트 정보 지원, 대학 컨소시엄 교토 스포츠 클럽 관련 업무를 수행함. 총무 광고부는 재단 전반의 사무를 총괄하며, 광고, 전국 대학 컨소시엄 협의회 사무국 운영, 발행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권두승, 이윤조, 2018).



[그림 II-39]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구조

출처: 권두승, 이윤조(2018).

○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운영

- ◆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재정에서 수입은 참가단체 부담금 수입, 사업 수입, 위탁 사업 및 조성금 수입으로 구성됨. 주요한 수입은 참가단체인 대학의 부담금 수입임.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수입은 연간 80억 원 정도이며, 일본 전체 ‘대학 컨소시엄’ 수입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컨소시엄임(권두승, 이윤조, 2018).
- ◆ ‘대학 컨소시엄 교토’와 연계하여 교토시는 지역과 대학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함. 교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대학생이 협력하여 문제해결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단위 사업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음. 실행된 사업에는 지역의 다양한 역사 기록을 지적재산권으로 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 교토의 관광 명소에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 교토 상가 지역의 조명 시설을 활용하여 특색을 살리는 도시 조명 사업 등으로 다양함(박노동,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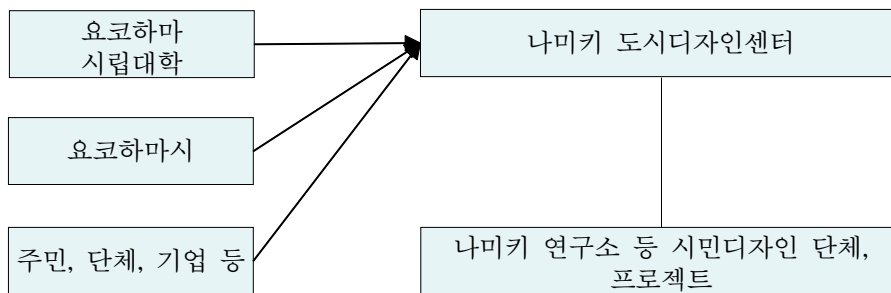
□ ‘요코하마시립대학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의 사례

○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설치 배경

- ◆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항구도시로서 1960년대와 70년대까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공장지대가 나미키 지역의 중요한 시설이었고 생산 체제였음. 하지만 도심에 위치한 공장 등을 바다매립지로 이동시키면서 나미키 지역은 공동화되었고 이를 배후 주거 지역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었음.
- ◆ 이후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나미키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활력 감소 등으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쇠락하고 있음. 40년 전인 1970년대 말과 80년대에는 조선소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거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고령 인구가 일부 거주하는 촌락이 되었음(배유진, 김유란, 2019). 또한 인구감소로 지역의 소비력이 저하되고 관련 시설이 축소되면서 다시 인구 유출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요코하마의 문제 지역으로 평가되었음.
- ◆ 나미키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의 ‘COC 사업’을 통해 요코하마시립대학교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Urban Design Center for Namiki: UDCN)’를 설립·운영하였음.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의 개원은 2014년이었고,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이후 나미키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2018년에 나미키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42%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음(UDC Initiative, 2014).

○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의 운영

- ◆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의 운영 목적: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장수환경 조성의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함.
- ◆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의 핵심 조직: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가 지역 재생을 위한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 핵심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주민자치회와의 연계였음.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고,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을 찾아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요코하마시립대학교 재학생을 활용하였음. 예를 들어, 간호학과 학생은 주민 건강 진단, 미술전공 학생은 도시 갤러리 운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재원을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가 제공하였음.



[그림 II-40]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의 사업 구조

- ◆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의 자원 공유: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 운영을 위해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의 공간과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학 자원이 공유되었음.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를 통해 나미키 주민 중에는 지역활동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음. 예를 들어 ‘나미키 연구소’가 그 예임. 이런 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정보, 참여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또한 마을에서 일하기 프로젝트와 같이 지역의 공동생활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음. 그 예로 목제분 생산 및 꽃심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음. 이외에도 문화강좌, 지역이야기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제공받고 있음(UDC Initiative, 2020).
- ◆ 지속가능전략: 요코하마시립대학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2017년에 그쳤으나 이후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요코하마시립대학의 교수공동체 공헌 프로젝트, 나미키맵 프로젝트 등의 자

체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 2021년부터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회로 발전시키며 지역관리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UDC Initiative, 2020).

## 4.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전망에 대한 시사점

### □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평생직업교육 체제(D-Campus) 구축 및 운영

#### ○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평생직업교육의 한계

- ◆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진입 등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학교교육으로는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접근가능성 등에서 제한이 존재함.
- ◆ 한편 현재 제공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직업교육은 긴 생애를 준비해야 하는 인간의 생애단계별 접근보다는 젊은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나마 대학 등의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여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 직업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기도 함.

#### ○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제공 방법 고민 필요

- ◆ 평생동안 자신의 경력을 설계하고 만들고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 역시 평생동안의 경력모자이크에 기반한 평생직업교육으로서 전환되어야 함. 20~30대, 40~50대, 60~70대의 특성에 부합되는 평생 또는 전 생애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평생직업교육의 틀을 짜고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함.
- ◆ 젊은 층은 생애 첫 경력을 개발하고 전문직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충분한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또한 중·고령층은 경력전환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활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의 관점에서 평생직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 중·고령층은 경제적 삶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있는 전개를 계속하기 위한 디지털 지원을 요구함. 디지털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경력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여 필요한 학습, 복지, 인간관

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 이런 디지털 전환에 따른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추천됨. 이른바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캠퍼스와 같은 것으로, 가칭 Digital Campus라고 불릴 수 있음. 마치 독일의 KI-Campus와 유사함. 디지털 캠퍼스를 통해 디지털 관련 전문적 직업교육, 디지털 전환 적응 교육, 디지털 에이징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정보 획득, 교육 참여, 학습이력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 또한 디지털 캠퍼스는 디지털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접촉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진단, 복지 안전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생애단계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함.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산업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 육성

- ◆ AI 전문가, 메타버스 디자이너,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SNS 사업 전문가 등 디지털 전환과 이로 인한 신산업 직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의 공급은 대학이나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직군을 파악하고 이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직업교육을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을 추천할 필요가 있음.

□ 긴 생애를 준비하는 평생직업교육 방향 설정

○ 긴 생애의 지속적 직업활동을 위한 경력모자이크 구축 지원

- ◆ 인구 전체의 고령화와 함께 서울의 젊은 층이 거주, 교육의 문제로 경기도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음. 최근 300만 명 이상이 이사를 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인구유출로 인한 고령화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전 생애동안 3회 이상의 직업을 갖는 것이 일상화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직업 생활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긴 생애에 대비한 평생직업교육 지원 정책 계획 수립이 필요함.
- ◆ 이에 긴 생애 동안 최소한 3회 이상의 전문직업교육 기회를 서울시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 생애전환기 직업교육 기회 제공 정책의 계획·실천이 요구됨. 이를 위해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을 하듯이, 자신의 경력을 진단 및 상담하고 필요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애전환기 직업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경력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정보 및 기회 제공 확대

○ 긴 생애 지원 산업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 ◆ 고령사회에서 긴 생애와 관련된 신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버산업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디지털 에이징 지원, 실버인력 직업교육 및 활용, 노인 편의 환경 조성, 노인 질병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을 고려해야 함.
- ◆ 물론 복지, 의료 등 각각의 분야에서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이고 서울시 전체의 계획이나 방향을 고려한 것은 아님. 이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고령사회와 긴 생애 사회에서 어떤 노인 관련 산업 인력을 육성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구체적인 직업을 발굴하여 직업교육과 연계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됨.

○ 경력단계를 기준으로 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 ◆ 긴 생애를 경험하지만 단지 생애단계로만 경력이나 직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오히려 경력의 수준이나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청소년 및 사회초년 청년, 초기 경력자, 중기 경력자, 장인(노년층) 등으로 경력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운영이 추천됨. 즉, 30대에서 초기 경력자가 될 수 있고, 20대 초반에서 중기 경력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연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 직무 경험, 학습 경험 등을 중요하게 보고 이를 기준으로 경력상담, 학습이력 관리, 인턴쉽, 도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 평생 직업교육 또는 경력단계별로 경력개발 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 예를 들어, <표 II-11>과 같이, 경력단계를 청소년 및 사회초년 청년, 초기 경력자, 중기 경력자, 장인(노년층)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력개발 지원체계를 운영함. 여기에서 장인은 노년층으로 장기간의 숙련 기간을 거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멘토, 스승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르치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임.

<표 II-11> 경력단계별 경력개발 서비스 체계 방안

경력개발 서비스 \ 대상	학생 및 사회초년 청년	초기 경력자	중기 경력자	장인(노년층)
경력상담	○	○	○	○
학습이력	○	○	○	○
인턴십	○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	○	○	○
도제 프로그램	○	○		
학위 취득 및 장학 지원		○	○	○

□ 명소와 도제프로그램의 연계

-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연계한 교육시스템 부재
  - ◆ 문화, 음식, 패션, 관광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서울의 명소가 여러 곳 존재하고, 이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도 유명함.
  - ◆ 서울의 다양한 명소가 있으나 이를 교육으로 연결하는 것은 보이지 않음. 반면에 다양한 직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명소와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OJT를 제공하는 도제 프로그램 공급처로서 명소 활용
  - ◆ 명소가 더욱 발전하고 젊은 층이 공급되고 새로운 세대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명소가 교육의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명소의 주요 점포나 생산업체 등을 도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이나 취업 희망자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 또한 명소에 ‘서울 도제원(가칭)’을 설치하여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최고의 직업교육은 현장에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노하우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며, 특히 독일의 직업교육이 2가지 트랙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제 프로그램이 우수하게 평가됨. 이런 점을 벤치마킹하여 서울 지역의 명소의 점포와 연계하는 도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추천됨.

□ 편하게 진로탐색하는 메타버스 진로상담 Street 조성

- 진로상담의 부담감 존재
  - ◆ 취업자에게는 시간의 부족, 현 직장에 대한 부담 등이 존재함. 또 미취업자는 낙인

효과, 원하는 진로 자체를 모르는 경우 진로 관련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 물리적 방문의 한계 등을 경험함.

-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층의 빠른 진로 탐색 및 적응, 청년층의 진로탐색의 빈도 증가 등을 위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 메타버스를 활용한 진로상담 Street 또는 센터 운영

- ◆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진로상담 Street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이를 통해 진로 진단, 진로 상담, 진로 체험 등을 가상공간에서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최근에는 VR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 준비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공간을 진로 탐색, 상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 다만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고령층의 접근성 문제, 메타버스의 가상 서비스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제한, 별도의 전문적 기관에서 지속적 운영 지원 필요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중장기적 접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 진로소외계층 지원 정책 강화

#### ○ 진로 또는 경력개발의 소외 계층 발생

- ◆ 전통적 소외계층은 새로운 변화 적응과 직업 세계의 진출 기회의 제한으로 진로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 대중적 선호나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양성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경력개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진로소수자 또는 진로소외자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사범대학 재학생(교사를 선발하는 규모가 극도로 축소되면서도, 사범대학 입학생 규모는 그대로라서 진로소외자 발생), 지방대학의 인문사회대학 재학생, 다문화 배경의 이주 여성 및 노동자, 저학력층 등 다양함.
- ◆ 한편 진로소외자는 생업에 급급한 나머지 일용직 등의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여 안정적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포함됨. 단기 일자리는 인적자본의 확대를 가로막으면서 다시금 노동활동과 경력개발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킴. 더불어 연령에 의한 진로소외자도 발생됨. 즉, 50대, 60대 이상 등의 중·고령층은 새로운 경력개발을 위한 기회에서 젊은 층과 경쟁해야 하고 일한 경험이 있으나 연령에 의한 차별적 지위를 갖게 되는 등 진로소외계층으로 파악됨.

### ○ 지역, 생계, 경력을 위한 진로허브 구축 고려

- ◆ 서울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대도시라는 점에서 진로소외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만들 수 있음. 진로소외자에게 중요한 점은 지역 토착성과 생계 보장 그리고 새로운 도전 기회임. 지역에 연계되어야 지속가능한 경력개발이 가능하고, 생계가 보장되어야 경력개발에 몰입할 수 있음.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경력을 구축하기 위한 개별화되고 새로운 교육 기회가 필요함. 예를 들어, 23살의 사회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경력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나누는 것, 49세의 여성으로 새로운 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경력에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 ◆ 새로운 기회에 대한 탐색 기회로서 진로 탐색과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직업이나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진로소외자를 위한 진로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진로허브는 새로운 진로나 경력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며, 필요하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나 일거리를 만드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임.

## □ 시민학습이력제 운영

### ○ 평생직업교육과 관련된 개인학습자의 이력 관리 시스템 필요

- ◆ 국가 수준에서 학습계좌제를 운영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고 실제 가입하여 학습이력을 관리하는 회원수가 적은 수준임. 하지만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필요한 이력을 증명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정됨.
- ◆ 직업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직업 관련 역량을 스스로 관리하고 또 채용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것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학습뿐만 아니라 일한 경험, 일한 성과, 구체적인 직무 수행 내용 등을 담아서 실효성 있는 경력 관련 이력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

### ○ 시민학습이력제 구축 및 운영

- ◆ 국가의 학습계좌제가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실질적 개선 및 실효성 제고는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음.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추천됨.
- ◆ 시민학습이력제는 이력을 증명하기 보다는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직업교육 관련 학습참여 이력과 직무 수행 이력을 기재하고 필요한 자격이나 학습프로그램을 찾고

관련 상담 및 교육기관으로 연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이 적절함. 특히 직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요한

#### □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행 역량 강화

##### ○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행 역량 제한

- ◆ 서울 인구 규모,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행 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또한 서울시의 평생교육, 직업교육, 문화교육, 시민교육은 여러 단체나 기관으로 구분되고 제각각 운영되어 중앙정부의 분절된 평생직업교육과 다를 바 없음.
- ◆ 이에 평생직업교육의 새로운 개념에 입각하여 정책 체계에 대한 새로운 틀 짜기가 필요함. 특히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온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직업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물적·재정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

##### ○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행 역량 강화

- ◆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직업교육, 인적자원개발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 높은 정책 기획 및 실행이 가능해야 함. 더불어 단순히 인력 채용이 아니라 평생직업교육국이나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 ◆ 또한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직업교육 전문가자문단 그리고 이후 주기적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전문적 자문을 제공받고 새로운 경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조직 운영도 고려되어야 함. 여기서 포럼은 형식적이고 대외적인 포럼이 아니라, 한 문장의 주제라도 전문가의 식견을 얻고 이를 통해 평생직업교육 정책 및 사업의 발굴, 운영, 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임.
- ◆ 대외적으로는 서울시 산하 직업교육, 취업, 노동과 관련된 부서와 통합적 부서 또는 네트워크 부서를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외부 동력을 확보하는 것임. 현재 노동이나 취업에 대한 부분은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서울시 산하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외부 부서를 만들고 이에 참여하여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이 부분은 향후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과제로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함.

## □ 새로운 직업 만드는 잡크래프팅 활동 확대

### ○ 현재의 직업은 미래를 보여주지 않음

- ◆ 현재 유망 직업은 미래의 유망 직업이 되지 못함. 비행기 조종사는 고소득의 희망 직종이지만, 무인비행기의 증가로 지금 만큼 많은 비행기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음. 반면에 드론 조종사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성이 커지면서 향후 새로운 희망 직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혁신 변화는 직업 세계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직업을 없애버리는 직업증발 현상이 나타남. 많은 일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직업증발은 직업세계에서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음.

###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평생직업교육 활동 필요

- ◆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만들어서 스스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잡크래프팅(job crafting)이라고 함. 직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 미래의 직업의 경향을 알기 어렵고, 직업증발 등 역동적인 직업세계에서 자신이 희망하고 도전하고 싶은 직무 또는 직업을 만드는 작업을 도와주는 직업교육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기존에 직업을 정해놓고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것과는 달리 잡크래프팅 활동은 자신의 진로, 희망,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직무와 직업을 생각하고 제안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III.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유관정책 현황분석

## 1. 중앙부처 정책 현황

### 가. 교육부

#### □ 핵심 정책과제

- 2021년 교육부는 교육비 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온라인 기반의 교육체제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바우처 확대를 통한 교육비 경감, 온라인 평생직업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K-MOOC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음.
- 특히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을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를 위해 대학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혁신공유대학,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등을 신설하여 추진함.



[그림 III-1] 2021년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중점과제

<표 III-1> 2021년 교육부 중점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생직업훈련/일자리 관련사안
① 교육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비 부담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원)생 등 생애단계별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학비 부담 완화</li> <li>(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20. 8천명 → '21. 15천명)</li> </ul>
② 원격수업의 질 향상	-	-
③ 미래학교 전환 추진	-	-
④ 공유·협력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분야 인재 집중 양성</li> <li>지역 혁신·발전을 견인하는 대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공유대학) 다수의 대학이 교육자원과 교육 과정을 공유·개방하여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li> <li>(공동학과 개설) 대학 내/간 첨단분야 공동학과 설치, 교원·기술·시설 공유</li> <li>(지자체-대학 협력 지원) 지역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지자체,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취·창업 지원</li> </ul>
⑤ 전 생애 평생직업 교육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li> <li>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역할 강화</li> <li>중등직업교육 혁신 및 고졸 취업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학습·훈련이력 관리 등 평생교육배움터 운영</li> <li>(K-MOOC) 국내·외 석학 강좌, 신기술분야 강좌 등 우수 콘텐츠 제공. 인공지능 기반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도입</li> <li>(마이스터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고도화된 기술교육 제공 및 전문기술 석사과정 도입</li> <li>(신산업 기술인재)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신설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li> <li>(혁신지구)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 지원 및 지역대학에서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 가능하도록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21. 5개)</li> </ul>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 사업목적: 대학의 고품질 저비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공유경제 모델을 적용하고,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동하여 공유 성장을 통한 대학의 집단경쟁력 강화

○ **지원내역**: 8개 분야\* 46개교에 816억원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 **사업 내용**: 지역 간·대학 간 교육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핵심인재 양성 체계 구축



[그림 III-2]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개념도

- ◆ **(컨소시엄 구축)**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지방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해 신기술 8개 분야별 컨소시엄 선정
- ◆ **(표준 교육과정 공동개발)** 신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주기적인 질 관리, 기존 전공과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모듈형 과정 구성
- ◆ **(신기술분야 교육 기회 제공)**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 대폭 확대하고, 전공 선택 제한 및 취업준비 부담 걱정을 덜고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에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 **(성과 확산)** 각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신기술 분야별 교육 콘텐츠를 사업 수행 대학 전체가 공유, 활용하여 어디서나 신기술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안전망 구축하고, 사업 수행하지 않는 대학 소속 학생 및 일반 국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K-MOOC 탑재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사업목적**: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 지원

○ **지원내역**: 4개 플랫폼, 8개 지자체 2,439억원 투입

○ 사업내용



[그림 III-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개념도

<표 III-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분야 및 참여주체

구분	지자체	핵심분야(중심대학)
신규	대전/세종/충남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공주대) /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충남대) 충남대(총괄) 등 24개 대학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카카오 모빌리티, 삼성디스플레이 등 68개 지역혁신기관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창원대) / 스마트제조정보통신기술(ICT)(경남대) / 스마트공동체(경상국립대) / 미래모빌리티(울산대) / 저탄소그린에너지(울산대) 경상국립대(총괄) 등 17개 대학 / 한국토지주택공사, LG전자, NHN,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 46개 지역혁신기관
전환	경남/울산	

\* 광주/전남(전남대·목포대, 에너지산업·미래형운송기기), 충북(충북대·한국교통대, 제약바이오·정밀의료기기·화장품천연물)은 '20년 선정 후 계속지원

- ◆ 지자체, 대학을 비롯해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핵심분야를 선정
- ◆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 수행

□ 매치업(Match業)

- 사업목적: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중심의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 과정을 제공하여 기업-교육기관-학습자가 빠른 기술 변화

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지원내역: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189백만원

○ 사업내용

- ◆ (교육과정 확대 및 내실화) 신산업 분야 신규 선정, 핵심직무중심 교육과정 및 직무 능력인증평가 개발, 교육과정 품질관리 및 운영 내실화
- ◆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플랫폼) K-MOOC와 플랫폼 연계,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교류 활성화, 학습자 자기주도학습 지원
- ◆ (지속가능한 매치업 선순환 시스템 확립) 매치업 사업운영 로드맵 마련, 매치업 참여주체의 역할 강화, 매치업 홍보 및 활용 저변 확대

□ K-MOOC

○ 사업 목적 :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의 강의 구축

○ 예산 : 콘텐츠 개발, 시스템 운영 등 참여대학 지원, 23,690백만원 투입

○ 사업내용

- ◆ (다양한 강좌 제공) 국내·외 석학에게 듣는 최고 수준의 교양 강좌,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강좌 등 다양한 강좌 신규 개발
- ◆ (학습자 친화적인 학습환경 구현)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 강좌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학습 동기부여 시스템 마련
- ◆ (K-MOOC 활성화) 대학 학점으로 인정 확대, K-MOOC플랫폼 구축, 강좌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학습 동기부여 시스템 마련
- ◆ (참여기관 지원 강화) 강좌운영비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기관 맞춤형 시스템 제공, 블루리본 강좌 및 무크선도대학 지원 강화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핵심 정책과제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의 종식과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등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소외** 등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모두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디지털 뉴딜**의 실현을 위해 평생직업훈련과 관련한 중점 지원대상은 **청년, 여성,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다양한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소외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둠. 또한 VR·AR 등 가상융합기술과 5G를 교육에 접목, 디지털을 교육을 비롯한 전 산업과 사회로 확산하도록 지원함.

<표 III-3>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점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생직업훈련/일자리 관련 사안
① 코로나19 조기극복 총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를 활용한 방역과 일상의 공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교육·종교·문화활동, 원격수업 지원</li> </ul>
②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댐(플랫폼, AI학습 데이터, 클라우드) 확장 등 디지털 대전환 기술력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디지털집현전</b>)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등 국민 누구나 국가지식정보에 접근·공유</li> <li>VR·AR, 5G 기술을 교육·의료 등에 접목</li> </ul>
③ 과학기술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 중심 기초연구 지원, R&amp;D 생태계 강화</li> <li>청년 실험실 창업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b>) 창업선도기술 발굴, 정예인력 양성 등</li> <li>(<b>대학원생 창업교육</b>) 석·박사 기업가 정신교육, 시장지향형 창업탐색교육 등 제공</li> <li>여성과학인 경력복귀 지원, 청년 과학자 연구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실 등)</li> </ul>
④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인재 성장 지원</li> <li>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공계 대학 혁신,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실무융합인재 양성 등</li> <li>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교육, AI 윤리교육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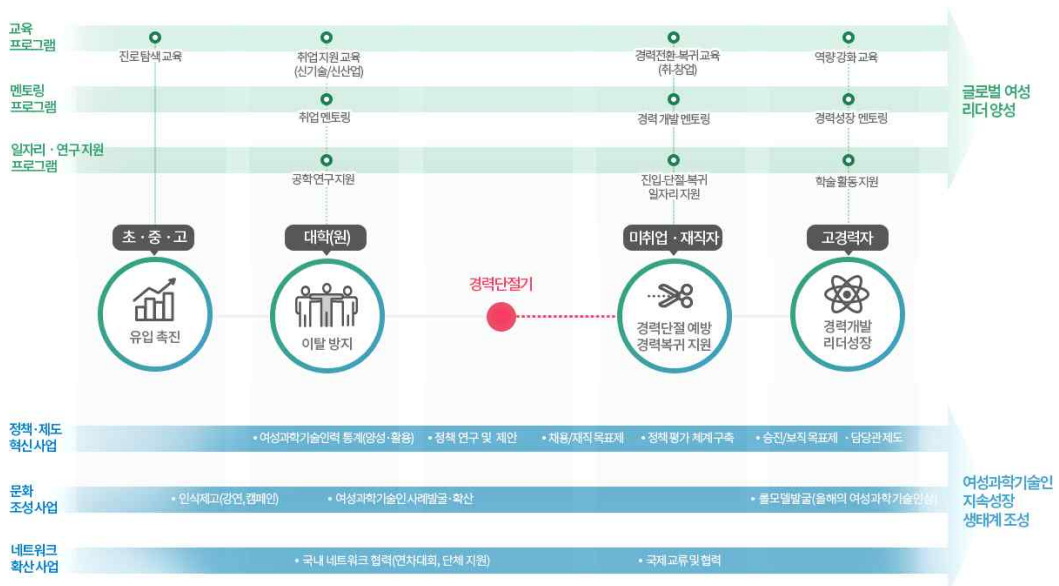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 **사업목적:** 창업 문화 확산, 우수기술 기반 창업 등을 위한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 지원, 창업교육부터 사업모델 설계, 사업화 멘토링 등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 구축
- **지원내역:** 인공지능대학원 10개교(건국대, 연세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 '21년 총 2,626억원 투입
- **사업내용:** 학사·인사제도 개선(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 창업교육, 스타트업 체험 현장실습 등 대학별 사업 운영
  - ◆ (**전문인재 양성**) 인공지능대학원(10개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9개교), SW스타랩(6개 연구실) 등 선정, 비정규과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 ◆ (**실무·융합인재 양성**) 지역 인공지능교육 거점인 'ICT이노베이션 스쿼어' 5개 거점 운영(협의체 운영, 전문강사풀 제공 등), 산업현장의 AI 활용 역량 강화지원(국방·치안·안전, 물류·유통, 반도체, 자동차·이동체, 전자·통신, 제조 등 6대 분야)
  - ◆ 수준별, 대상별 교육콘텐츠와 실습환경 제공을 위한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구축

□ 실험실패형 창업선도대학(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공동 진행)

- 사업목적: 창업 문화 확산, 우수기술 기반 창업 등을 위한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 지원, 창업교육부터 사업모델 설계, 사업화 멘토링 등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 구축
- 지원내역: 건국대, 연세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9개교 / '21~'22년, 2년간 교당 9억원씩 지원
- 사업내용: 학사·인사제도 개선(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 창업교육, 스타트업 체험 현장실습 등 대학별 사업 운영

□ W브릿지(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주관, 복권기금으로 운영)



[그림 III-4] W브릿지 사업 개념도

- 사업목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지원시스템을 통해 역량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원
- 사업내용: WISET 아카데미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운영(전문강사 추천, 교육과정 컨설팅,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맞춤형 콘텐츠·커리큘럼 제공 등),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1:1 밀착 멘토링, 기타 경력개발컨설팅 등 제공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 Seoul)

- **사업목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동료와 협업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
- **운영방식**
  - ◆ 프랑스 정보기술(IT) 교육기관인 에콜42를 벤치마킹, 교수, 교재, 학비, 학위가 없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 ◆ 1차 온라인 시험 → 4주간 집중 교육과정(La Piscine) 참여 → 교육생 최종 선발 → 2년 과정의 본교육 실시

#### □ 디지털배움터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일상이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집 근처 생활공간에서 모바일·실생활 중심의 실습형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 **지원내역:** 서울(140개), 부산(109개), 대구(27개), 인천(40개), 광주(32개), 대전(36개), 울산(20개), 세종(12개), 경기(124개), 강원(53개), 충북(50개), 충남(52개), 전북(58개), 전남(85개), 경북(85개), 경남(57개), 제주(20개) 등 전국 시·도에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 **사업내용:**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심화 3개 과정으로 운영
  - ◆ **(디지털 기초)** 스마트기, 화상회의의 솔루션, SNS 등 기초 디지털 사용법 교육
  - ◆ **(디지털 생활)**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고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바일 교통·금융·쇼핑·전자정부·공공서비스(정부지원금 신청 등) 교육
  - ◆ **(디지털 심화)** 한글·엑셀·포토샵 등 스마트오피스 프로그램, 각종 자격증, 기초 코딩 등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사회활동에 직결된 프로그램 활용법 교육
  - ◆ 고령자·장애인·농어업인·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최소 20% 이상 개설하고 디지털 기초·생활 교육의 비중을 70% 수준까지 늘려 디지털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다. 행정안전부

#### □ 핵심 정책과제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및 정부조직, 자치분권, 지방재정, 재난안전관리 등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2021년,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복구체계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의 정착과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혁신플랫폼,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등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중점 추진되며 이와 함께 재난 대응 등 안전교육, 자치분권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지원함.

<표 III-4> 2021년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생직업훈련/일자리 관련사안
① 코로나19 총력대응	▪ 지자체 중심의 코로나19 현장 대응체계 확립	-
② 재난안전 관리체계 혁신	▪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 ▪ 수요자 중심의 복구 지원	-
③ 자치분권 2.0	▪ 주민참여 3법 제·개정,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	▪ <b>(지역문제해결 플랫폼)</b>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④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지역소비, 일자리 창출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마을 정착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⑤ 디지털 전환 선도하는 정부혁신	▪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능형 서비스 등	-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의 창업·창농 등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자원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원
- **지원내역:** 11개 시·도 100개 팀, 팀당 800만원 지원
- **사업내용:**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역 내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동, 지역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주도 프로젝트 지원

< 청년공동체 활동사례(2020년) >

- (충남 홍성 '왓슈') 농업 관련 기술과 귀농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하고, 소규모 지역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무연고 귀농 주민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제주 '프로젝트그룹 짓다') 매월 마을 주민들의 영화 모임, 인문학 모임 등의 네트워크 행사를 운영하며 마을 주민, 청년, 이주민의 교류 촉진

#### □ 청년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공간, 주거, 각종 활동 등 지원
- **지원내역:** 12개 팀(마을), 각 5억원씩 지원
- **사업내용:** 지역 유휴공간의 리모델링 등 거주·창업·커뮤니티 공간 마련, 지역 특화 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창업, 창직의 경험 전수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역:** 만 39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에 취·창업 지원(지역정착지원형), 비대면·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과 관련한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OJT 등) 등 구직활동 지원

#### □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 **사업목적:**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를 기준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역량을 위한 분야별 안전교육 제공
- **지원내역:** 전 국민 대상 국민안전교육포털 운영
- **사업내용:**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6개 주기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교육 콘텐츠 제공

### 라. 문화체육관광부

#### □ 핵심 정책과제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향유와 관련한 산업(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등) 대부분의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이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반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추진
-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민의 문화소비 확산**을 위해 인문교육, 독서운동, 각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문화산업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AI 등 융복합 신기술 인력**을 콘텐츠

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을 추진함.

<표 III-5>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중점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생직업훈련/일자리 관련사안
① 문화생태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문화서비스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박물관·미술관 실감·체험형 프로그램 지원</li> </ul>
② 문화향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li> <li>지역사회 예술가치 확산</li> <li>문화인프라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밀착 인문교육(길위의 인문학) 등 주민 주도 인문·여가 프로그램 지원, 범국민 독서운동, 박물관·미술관 주간 확대 운영</li> <li>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종교별 치유·생명존중 프로그램 제공</li> <li>공립박물관, 작은미술관,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꿈꾸는 예술터,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등 지역 유희시설·부지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li> <li>문화도시, 관광거점도시 조성</li> </ul>
③ 문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산업 융복합 인재양성(영화아카데미, 예술/과학 융합인력, AI/실감 융복합 인력, 대중문화예술인력 역량 강화, 애니메이션 도제식 교육 등 지원)</li> </ul>
④ 문화국가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선도국가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학당 지정, 한국어 교원 양성 파견 등</li> </ul>

□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 사업목적: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
- 지원내역: 공립박물관·미술관 86개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8개관
- 사업내용: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존) 조성,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온라인콘텐츠 제작 등 추진

□ 콘텐츠 산업 창의인재 양성

- 사업목적: 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인재 양성 교육과정 제공
- 지원내역: 공립박물관·미술관 86개관, 사립박물관·미술관 18개관
- 사업내용
  - ◆ (핵심장르별 인력양성) 영화, 게임, 방송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핵심장르 선도인력 용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표 III-6> 핵심장르별 인력양성

영화	영화아카데미 과정 확대 (사전제작과정 등)	웹툰	웹툰융합센터('22.12.준공), 작가 집필공간 운영(스토리창작센터 등)
게임	신기술 게임제작역량 강화 (게임인재원)	애니	현업 실무진 참여 도제식 교육 신설
방송	실감영상/방송포맷 전문인재 육성	음악	지역 음악창작소 운영 등

- ◆ (산학 연계 협력 확대) 대학-기업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인턴십 연계, 콘텐츠 분야 계약학과 도입, 대기업-스타트업 참여 기업주도형 동반성장 교육 등
- ◆ (신기술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문화기술 R&D, 실감/인공지능 콘텐츠 전문인력 등 융복합 고급인재 양성
- ◆ 콘텐츠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취업멘토링, 온라인상담, 그룹 컨설팅 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사업목적: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지원내역: 총 6개 권역, 10개 기관 선정, 기관당 5천만원
- 사업내용: 지역에서 활동한 지역문화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 필요한 역량교육, 실무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 성장의 발판 마련

마. 고용노동부

□ 핵심 정책과제

- 2021년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고용유지, 디지털 전환 핵심인재 양성을 중점과제로 제시하였음. 특히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등을 비롯해 국가 수준의 윈스톱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강화를 추진함.
- 평생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여성, 청년, IT 비전공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형 핵심인재, 디지털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기존의 훈련비 지원 등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혁신 선도함.

<표 III-7> 2021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생직업훈련/일자리 관련 사안
① 일자리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확대, 청년고용 활성화 등 고용유지 총력</li> <li>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비전공자 대상 훈련과정 제공, 여성 특화훈련,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재택훈련 강화, 훈련-육아 연계모델 확산(K-move 등 여성특화 재취업지원 대책)</li> <li>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 등</li> </ul>
② 든든한 고용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li> </ul>	-
③ 노동시장 혁신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전환 핵심인재 양성</li> <li>전 국민 평생취업지원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카드, 취약계층 훈련수당 지원, 중장년 재취업 지원,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등</li> <li>(K-Digital Training)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훈련을 통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기타 범정부 디지털 인력양성 사업 운영</li> </ul>
④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자 권익 보호/구제 강화,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생의 노사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 노동인권교육 (한국노동교육원)</li> </ul>
⑤ 안전한 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안전관리체계 혁신</li> </ul>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목적: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역: 광역/기초지자체 지원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사업 운영(기초자치단체)
  - ◆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지원(광역자치단체)
  - ◆ 기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등 추진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 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내역: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창업 등 지원
- 사업내용: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 취창업 동아리 운영/컨설팅 지원, 취업자 직장적응 교육,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생애경력설계서비스)

- 사업목적: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도모
- 지원내역: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사업내용
  - ◆ (생애경력설계)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 지원
  - ◆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로 재취업·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유형별·단계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 (재직자) 1:1 상담, 심리안정·변화관리 등 전직교육, 역량진단,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전직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제공
  - ◆ (구직자) 1:1상담, 취업알선, 재취업지원교육, 취·창업 정보 제공, 동아리 운영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 사업목적: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구직, 실직, 경력단절 등 일자리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 제공
- 지원내역: 직업훈련기관, 대학 등 훈련기관 지정, 3년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훈련방식을 활용(기업과 연계한 현장맞춤

훈련, 플랫폼 기반 훈련, 프로젝트 기반 훈련 등)

- ◆ **(훈련직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안, 실감형 콘텐츠, 핀테크, 무인이동체 등 디지털 신기술 융복합분야
- ◆ **(과정설계)** 훈련수요가 있는 기업 발굴하고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협약 체결하고 훈련과정 편성
- ◆ **(프로그램 운영)** 350시간 이상(3개월~1년), 온/오프라인 혼합 LMS 운영

####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 **사업목적:**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Digital Divide)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
- **지원내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중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 6만명, 1인당 50만원 지원
- **사업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데이터 분석, 스마트기술 등 교육훈련비 지원

#### □ K-Digital Platform

- **사업목적:** 지역 내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을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개방, 시설·장비 등을 공유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 등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융합 훈련과정을 제공
- **지원내역:** 협력사 외 중소기업, 민간훈련기관 등
- **사업내용:**
  - ◆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훈련 관련 시설·장비 등의 구축 지원해 지역 또는 산업 내 중소기업 재직자·청년 구직자 등에 대한 디지털 융합 훈련 제공
  - ◆ 디지털 훈련 시설·장비 구축비 등으로 1년차에 최대 10억, 2~5년차 최대 5억씩 5년간 총 30억 지원

#### □ K-Move 스쿨

- **사업목적:**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글로벌기업, 해외진출기업, 해외유망직종 등에 취업 연계를 위해 글로벌 무역전문가, ICT 소프트웨어 전문가, 패션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직종과정 운영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 **사업내용:**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면접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선정 → 어학/직무교육, 국내외 현지 연수 실시(3개월~1년의 단기/장기 과정으로 운영) → 취업알선, 면접/고용계약 체결, 비자발급 등 지원 → 출국, 현지 정착 지원 등 사후관리

□ **청년취업아카데미**

- **사업목적:** 기업, 대학, 민간훈련기관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업능력과 인력수요 등을 반영해 대학 등과 협력해 청년 미취업자에게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취창업활동과 연계
- **지원대상:** 대학 재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 **사업내용**
  - ◆ (프로그램 운영)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무료 제공(정보통신, 경영·회계·사무, 기계,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영업·판매, 전기·전자분야 등 441개 과정)
  - ◆ (학점인정)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대학 참여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건국대, 전남대, 한국외대 등 179개 대학)
  -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청년 취업성공패키지(2단계)를 통해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한 경우 매월 최대 284천원 지급
  - ◆ (취업연계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 지원 (LG디스플레이, SK네트웍스(주)위커힐, 아워홈, 동우화인켐 등 3,222개 기업이 협약)



[그림 III-5]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세스

## 바. 중소기업벤처부

### □ 핵심 정책과제

<표 III-8> 2021년 중소기업벤처부 중점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생직업훈련/일자리 관련 사안
① 소상공인 경영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 일터(상권) 활력 제고 위한 상권회복 프로젝트</li> <li>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소상공인·전통시장 스마트화)</b> 스마트상점, 스마트슈퍼,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li> <li>수익모델 개발, 플랫폼 구축 등(2021.8.)</li> </ul>
② 선도형경제 주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붐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청년창업 활성화 등 기반 확충)</b>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자금, 지원프로그램, 인프라) 구축</li> </ul>
③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주력산업·선도기업 육성 등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혁신 인프라 확충)</b> 지역가치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발전전략 마련</li> </ul>
④ 새로운 상생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노동이슈 중소기업 현장안착 맞춤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안전한 기업현장 조성)</b>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교육, 컨설팅 강화 등</li> </ul>

- 2021년 중소기업벤처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통한 **상생의 확산**과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점 지원대상 중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회복을 위한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상권회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정책을 확대하였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디지털·비대면 경제, 그린 경제**에 대응하는 유망기업<sup>5)</sup>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창업,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음.

### □ 대학기업가센터

- **사업목적:** 대학의 풍부한 자원 극대화를 통해 교육, 네트워킹, 연구개발을 통한 창업모델의 도입·확산
- **지원내역:** 서강대·영남대·이화여대 / '15~' 20년, 5년간 600백만원씩 지원
- **사업내용**

5) DNA(Data, Network, 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중심의 종합 육성체계 구축 등 추진

- ◆ (창업교육) Cash class 등 최신 창업트렌드를 반영한 창업 전공강좌 운영
- ◆ (콘텐츠 개발) 교육 콘텐츠(교재, 모듈 등) 개발·보급
- ◆ (네트워킹) 동문기업, 성공 창업가, VC 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사업목적: 제조창업 촉진,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 시제품 제작 등 전문 메이커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 (창작활동 공간 운영) 시설 구축,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 등 254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창업연계형 전문랩, 생활밀착형 일반랩)
  - ◆ (프로그램 운영) 교육·체험 중심의 일반랩에서는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교육 실시, 코로나19 이후 특화 분야(디지털 콘텐츠, ICT, 바이오 등) 메이커 양성과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역: 대학·공공기관·민간단체 등 254개 법인 / 전문랩 최대 15억원, 일반랩 최대 1.5억원, 특화랩 전환시 최대 1억원 지원

#### □ 메이커 문화 확산

- 사업목적: 메이커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 지원, 네트워크 발굴·지원
- 지원내역: 개인, 법인, 단체 / 4,444백만원
- 사업내용
  - ◆ (창작프로젝트/동아리 지원) 메이커 주도의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시제품 제작 등 활동비 지원, 생활 속의 문제를 PBL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아리 지원
  - ◆ (메이커 교육 등) 농산어촌, 도서 지역 등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기타 지역 단위 메이커 행사 운영비 지원

#### □ 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 사업목적: 지역의 자원과 문화유산, 지리적·산업적 특성 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sup>6)</sup>를 발굴·육성

○ 지원내역: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140곳(명) 선정

○ 사업내용

- ◆ (사업화 지원) 일반바우처 최대 3,000만원, 투자 연계 최대 5,000만원 지원
- ◆ (프로그램 운영) 지역 창업가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사업 참여자 지원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CEO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교육, 시제품개발·제품판매 등 사업화과정,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단계별 지원

○ 사업내용

- ◆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지적재산권 출원 등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판로 개척(전시회 참가 등), 해외 펀딩 지원, 정책자금·투자유치 등 후속 지원
- ◆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공간, 네트워크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 (교육·코칭) 창업교육, 분야별 특화 코칭 등 사업화 코칭, 성장단계별 진도관리, 수시 코칭, 글로벌 연수·멘토링 등

○ 지원내역: 2개 광역자치단체, 각 5억원(총 10억원)

□ K-스타트업

○ 사업목적: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멘토링, 정보제공, 시설·공간 지원 등 단계별 지원시책 운영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 사업내용

- ◆ (창업준비) 전시·행사, 경진대회, 창업교육(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등), 멘토링·경영 지원, 창업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등
- ◆ (창업실행/창업성장) 사업화, 판로·마케팅, 글로벌·수출, 제도전 등, 지원, 융자·보증, R&D
- ◆ (창업인프라) 창작공간·입주공간 제공, 지원센터 운영, 사업 신청·접수·협약·정산 등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업입지 플랫폼 통해 전국 12,000여개 창업공간의 정보 제공

6) 전통적인 골목산업 뿐 아니라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스타트업 등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창업자

#### □ 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목적:**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지원
- **지원내역:**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 398.12억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 **사업내용**
  - ◆ **(창업지원)** 지역 특화분야와 연계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 창업 관련한 법률, 특허, 금융, 경영 등에 대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업목적:**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7개소, 총 44.6억원 지원 /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지원
- **사업내용**
  - ◆ **(발굴/교육)** 기업 대상 ‘찾아가는 중장년 맞춤형교육’, 창업상담, 창업 기초·일반·심화교육, 기술별 특화교육
  - ◆ **(인프라)** 사무공간, 회의실, 강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등 제공
  - ◆ **(보육)** 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 타 지원사업 연계, 투자유치,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창업 관련한 법률, 특허, 금융, 경영 등에 대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 □ 온라인 기술창업교육포털 ‘창업에듀’

- **사업목적:** 온라인 기술창업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지원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학생, 일반인 등 일반교육생과 기관 담당자
- **사업내용:** 창업관련 핵심 이론과 실사례 중심으로 15분 내외의 강의로 구성,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수료생에게 수료증 제공
  - ◆ **(일반 개별강좌)** 기업가정신부터 제도전까지 창업 전 과정을 총 305개 교육강좌와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창업 지식 제공

- ◆ **(패키지 강좌)** 창업단계별, 창업주제별, 창업지원사업별, 교육과정 개설 희망기관 및 출형 패키지 강좌 제공

## 사. 기타 평생직업교육 정책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진흥청)

- **사업목적:** 농촌진흥청과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연계하여 농업인 전문역량 향상, 공무원 직무교육은 물론 일반인 대상의 농업경영, 소비자교육 등 제공
- **프로그램**
  - ◆ **(농업인대학)** 식량작물·과사·특용작물·화훼·축산 등 품목별 교육, 친환경·관광·경영·유통·가공 등
  - ◆ 일반인과 농업인 대상 농업경영,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농촌진흥청 직영)
  - ◆ 기타 영농기술·농식품가공·창업지원 등 농업인 교육, 최미교양·여성농업인 등 소비자 교육, 농업기계 교육 등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 **사업목적:** 특허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 운영
- **프로그램**
  - ◆ **(지식재산학 전공 학점은행제 과정)**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정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과 관련한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

구분	과목명
전공필수(10)	기술경영론, 디자인보호법, 법학개론, 상표법, 연구개발과지식재산, 자연과학개론, 저작권법,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권관리론, 특허법
전공선택(29)	경제학개론, 공업 설계, 국제지식재산권, 국제출원실무*, 기술이전과라이선싱의이해, 디자인경영과브랜드전략, 디자인론, 문화산업법, 물리학개론, 민법총칙, 민사소송법, 발명의이해*,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상법총칙, 생물자원보호론, 생물학개론, 유전자와유전공학,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재료과학, 전기전자공학개론, 지구과학개론, 지식재산과경쟁법, 지식재산심판소송실무, 지식재산출원실무*, 채권총칙, 특허명세서작성실무*, 특허정보조사와분석*, 헌법 I, 화학개론

\* 실습포함

### [그림 III-6] 지식재산학 교육과정

- ◆ **(기타 프로그램)**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국제교육협력단(KOICA) 등 국제기구 공동 프로그램 운영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질병관리청)**

- **사업목적:** 특허청, 국립보건연구원, 지자체,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 등 공공 영역의 보건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제공
- **프로그램:** 혈액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연구윤리,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 DATA 활용 통계교육, 담당자 보수교육 등 40개 과정 운영

□ **대기과학 학점은행제 과정(기상청)**

- **사업목적:** 지구 온난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기과학 전문인력 양성
- **프로그램:**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정으로 대기과학 전공과정 개설, 미기상학, 대기대순환, 구름물리, 기상자료처리 등 학기 당 4~5개 과정을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기상청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전국 기상관서에서 운영)을 병행하여 제공

<표 III-9> 2021년 부처별 평생직업교육 정책현황

부처	2021년 중점목표	정책대상	온·오프라인 플랫폼 (맞춤교육, 상담·정보제공 등)	기관·지자체 위탁 (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지원 (공간제공, 코칭·멘토링 지원)	교육비 지원 (바우처 등)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프로젝트 지원 등)
교육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전 생애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대학 (대학생)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평생학습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공유대학(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li> <li>마이스터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학과 개설(첨단 분야 교원·기술·시설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바우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MOOC</li> </ul>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 대전환과 탄소중립의 기술적 기반 강화 새로운 세상을 모두 누리는 포용사회	청년, 여성, 디지털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SW 핵심인재 양성(인공지능대학원 등)</li> <li>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li> <li>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 Seou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기술인 지원을 위한 W브릿지 사업 (MSET 아카데미, 경력 복귀 지원, 멘토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배움터(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생활공간 활용)</li> </ul>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대응·복구체계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주권 구현	청년층 지역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안전교육포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li> <li>청년마을 조성사업</li> <li>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li> </ul>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생태계 회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능형 박물관 미술관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문화도시 지정·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통합문화이용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미술관 첨단기술 활용 실감·체험형</li> </ul>

부처	2021년 중점목표	정책대상	온·오프라인 플랫폼 (맞춤교육, 상담·정보제공 등)	기관·지자체 위탁 (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지원 (공간제공, 코칭·멘토링 지원)	교육비 지원 (바우처 등)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프로젝트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발전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활성화</li> <li>범국민 독서운동 등 문화운동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산업 창의인재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여행교육 프로그램, 문화치유 프로그램, 종교별 치유·생명존중 프로그램</li> <li>길위의 인문학 등 주민 주도 인문정신 프로그램</li> </ul> </li> </ul>
고용노동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충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 계층  디지털전환 핵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고용서비스 (고용센터·새일센터 연계 강화 → 훈련 후 재취업까지 통합서비스)</li> <li>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li> <li>HRD-net 고도화</li> <li>거점형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K-Digital Platform 구축)</li> <li>직무능력은행제(NCS Ban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li> <li>폴리테크닉(러닝팩토리, 하이테크 과정 신설)등 공공훈련 인프라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구직자 신기술 훈련비용 지원</li> <li>내일배움카드 (특별지원업종 훈련수당 확대 등)</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move 스쿨 여성특화과정</li> <li>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재택훈련 지원</li> <li>K-Digital Training(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핵심실무인재 양성)</li> <li>AI·빅데이터 등 재직자 훈련과정 콘텐츠 개발·지원</li> <li>지역특화형 간급 직업훈련 시범사업</li> </ul>

부처	2021년 중점목표	정책대상	온·오프라인 플랫폼 (맞춤교육, 상담·정보제공 등)	기관·지자체 위탁 (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지원 (공간제공, 코칭·멘토링 지원)	교육비 지원 (바우처 등)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프로젝트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인권교육(소규모 사업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li> </ul>
중소기업 벤처부	<p>지역혁신 생태계 조성</p> <p>디지털·비대면·친환경 선도형경제 활성화</p>	<p>소상공인/중소기업</p> <p>청년·지역 창업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에듀(온라인 강좌, 정보제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기업가센터 운영</li> <li>창조경제혁신센터</li> <li>중장년 기술창업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이커스페이스 운영</li> <li>창업존 운영</li> <li>K-스타트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크리에이터 바우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이커문화 확산 (동아리 지원, 메이커 교육 등)</li> <li>청년창업사관학교</li> </ul>
여성가족부	<p>지역사회의 촘촘한 돌봄 지원</p> <p>여성 고용안전망 구축</p>	<p>여성 (이·전직자,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양성평등센터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력단절여성 온라인 특화 서비스 제공 (직업 훈련 콘텐츠 개발, 학습 관리시스템 구축)</li> <li>청년여성 특화 장기훈련</li> <li>성평등교육, 성범죄예방 교육, 성인권교육, 폭력 예방교육 등</li> <li>다문화이해교육(콘텐츠 제작 보급, 컨설팅 등)</li> </ul>

부처	2021년 중점목표	정책대상	온·오프라인 플랫폼 (맞춤교육, 상담·정보제공 등)	기관·지자체 위탁 (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지원 (공간제공, 코칭·멘토링 지원)	교육비 지원 (바우처 등)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프로젝트 지원 등)
보건복지부	빈곤·불평등 대응 소득안전망 강화 국민돌봄부담 경감 보건복지분야 디지털 뉴딜 확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발달장애, 노인성질환 돌봄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치매국가책임제)</li> <li>▪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지역별 통합돌봄 모델 개발</li> <li>▪ 트레이닝-K 플랫폼 (의료 기기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이주기별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 치매환자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li> <li>▪ 한국형 NIBRT 시범운영, 임상시험 등 제약산업 전문인력 육성</li> <li>▪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li> <li>▪ 국제 K-뷰티 스쿨 설립, K-뷰티 아카데미 운영</li> <li>▪ 보건의료데이터 큐레이터 교육과정 신설, 자격화 추진</li> </ul>

## 2. 서울시 정책현황

<표 III-10>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사업/정책/기관명	구분	운영기관	사업내용/기관개요
SBA아카데미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업 재직자/구직자 대상 디지털 전환 역량 교육 제공
무역아카데미	민간	한국무역협회	수출입국을 선도할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 국제비즈니스 및 ICT전문교육기관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서울시	서울시자영업 지원센터	창업 기본소양을 다지기 위한 창업 기초이론, 업종별 창업 실천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위한 서울시 추진체계로 상담, 교육, 일자리 종합 지원공간인 50+캠퍼스(권역별 허브), 50+센터(풀뿌리 플랫폼) 운영
서울시기술교육원	서울시	-	정직한 시민, 창조적 직업인이 되기 위해 산업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와 전문 이론 및 기술교육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창의적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구직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수요중심 교육훈련을 제공

### □ SBA아카데미

○ **사업개요:**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기업과 시민, 밀레니얼세대의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 브랜드 플랫폼으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DT스쿨, 인사이트스쿨, 캠퍼스CEO 육성사업이 있음.

### ○ DT스쿨

- ◆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ntion)을 위한 역량교육 제공
- ◆ 평일 야간과 주말에 **업종특화 교육**(금융, 유통/물류, 제조 3개 분야)와 **직무특화교육**(서비스 기획, 디지털마케팅, 경영관리, 퍼블리싱, UI/UX 등 10개 과정) 실시
- ◆ 평일 주간에 DT입문교육(데이터 분석, 디지털 플랫폼 구현 2개 과정) 실시



[그림 III-7] SBA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도

#### ○ 인사이트스쿨

- ◆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커리어 성장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 제공을 위한 **원데이 세미나**로 운영
- ◆ **(DT세미나)** DT스쿨의 10개 주제에 대한 웨비나
- ◆ **(DT살롱)** 디지털 전환 동기부여를 위해 도서, 다큐멘터리 방송,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소규모 토론회

#### ○ 캠퍼스CEO 육성사업

- ◆ 대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팀프로젝트)을 구성하여 공공, 기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실무형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참여대학 간 문제해결 성과물을 발표하는 연합경진대회 등 개최

#### □ 무역아카데미

- **사업개요:**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무역, 국제비즈니스, ICT 전문교육 제공
- **온라인 과정:** 무역실무, 무역마케팅, 통상/FTA, 창업 등 4개 분야 24개 과정(30일 과정) 운영 /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으로 10~20만원 가량의 교육비 소요

<표 III-11> 무역아카데미 프로그램

1. Incoterms 2020 주요 개정사항 무료	2. 수출마케팅 기초 신규
3. 단기완성 영문 비즈니스 이메일	4. 수출입대금결제
5. 링크드인으로 해외바이어 발굴하기	6. 신입사원 Level Up! 패키지 추천 신규 할인
7. 무역계약	8. 실전 국제 비즈니스 협상
9. 무역실무 종합 패키지 신규 할인	10. 실전! FTA 활용 추천
11. 무역업 창업 첫걸음	12. 아마존 활용 온라인 해외판매 전략
13. 무역운송보험	14. 알리바바(Alibaba.com) B2B 마케팅
15. 바이어를 사로잡는 전시마케팅	16. 어서와 통상은 처음이지 무료 추천 신규
17. 사례로 배우는 실전 무역실무	18. 온라인 해외마케팅 종합
19. 생초보 핵심무역실무 신규	20. 유튜브 활용 실전 마케팅
21. 생초보 환리스크 관리	22. 통관관세환급
23. 수입실무와 해외소싱기법 신규	24. 해외바이어 화상상담 성공 전략 무료

○ **오프라인 과정:** 무역실무(15개 과정), 무역마케팅(17개 과정)에 32개 과정이 운영되며 일부 환급과정을 제외하고 주로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으로 운영되며 2~3일간 오프라인으로 실시

○ **SMART Cloud IT 마스터 과정**

-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2001년 개설한 일본IT기업 취업진출의 위한 국비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스쿨의 일환으로 추진
- ◆ **만 34세이하 대학졸업(예정)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정규직 취업을 위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인프라, 디지털/AI 등의 직무지식과 외국어 커리큘럼 중심으로 9개월간 집중교육(연 2회, 총 400명) 실시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 **사업개요:** 창업을 위한 기본 소양을 다지기 위해 ‘창업 기초 지식·이론’, ‘업종별 창업 실전 내용’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단기 교육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 소상공인
- **집합교육:** 창업 준비절차 및 창업가 정신, 창업자금 보증지원제도 및 신용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활용법, 온라인 마케팅전략 및 홍보, 창업세무·노무, 성공사업자 초청 특강, 불공정피해 예방교육 등
- **온라인교육:**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인터넷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창업과정(창업기본이론, 20시간)과 경영개선과정(실무중심 경영역량 강화, 8시간) 운영

- **열린강의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2시간 내외의 온라인 강의 운영



[그림 III-8]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구성도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기관개요:** 50+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의제와 상담·교육·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양코르커리어, 창업·창직 등 사회공헌형·혼합형 일자리 발굴, 50+캠퍼스(6개소)를 통한 교육·상담 등 제공



[그림 III-9]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 개요도

<표 III-12>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년 하반기)

기관명	역량개발	진로탐색	자기이해	사회참여	생활여가	소계
서부캠퍼스	18	24	26	10	18	96
중부캠퍼스	11	23	24	6	28	92
남부캠퍼스	5	10	16	5	18	54
북부캠퍼스	22	22	18	5	23	90
도심권센터	12	18	15	4	13	62
동작센터	7	10	10	3	12	42
영등포센터	18	29	26	5	18	96
노원센터	17	26	25	4	18	90
서대문센터	16	25	26	5	20	92
성북센터	4	9	15	4	16	48
금천센터	18	29	26	8	24	105
강서센터	18	29	28	5	32	112
서초센터	15	25	26	5	18	89
강동센터	18	29	26	5	18	96
양천센터	5	10	12	5	18	50
합계	204	318	319	79	294	1,214

□ 서울시기술교육원

- 기관개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 직업전문학교가 2012년 현재의 이름으로 통합, 동부/중부/남부/북부 기술교육원의 분교체제로 운영(각 기술교육원은 경북대, 명지전문대, 남서울대 등에 위탁 운영)
- 교육과정 현황

<표 III-13> 서울시 기술교육원 프로그램

훈련기관	과정	구분	훈련학과(훈련인원)
동부 24개학과 1,436명	정규과정 (1,276명)	주간 1년 (12개 484명)	건축인테리어(44), 에너지진단설비(33), 실내디자인(44), 의상디자인(44), 전기계측제어(44), 외식산업(44), 컴퓨터광고디자인(44), 컴퓨터금형기계(33), 특수용접(33), 전통조리(33), 그린카정비(44), 네트워크서버운영관리(44)
		야간6개월 (10개 792명)	건축인테리어(88), 웹서버마스터(88), 에너지진단설비(66), 의상디자인(66), 전기공사(88), 조경관리(66), 조리(88), 그린카정비(88), 스마트웹디자인(88), 특수용접(66)

훈련기관	과정	구분	훈련학과(훈련인원)
	단기과정 (160명)	일반 (2개 160명)	건물보수(80), 조경관리(80)
중부 23개학과 1,360명	정규과정 (1,100명)	주간 1년 (9개 374명)	컴퓨터그래픽디자인(33), 헤어디자인(44), 인테리어디자인(44), 주얼리캐드디자인(44), 패션디자인(44), 피부체형케어(44), 한국의상(44), 조리외식(44),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33)
		야간6개월 (9개 726명)	컴퓨터그래픽디자인(6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66), 인테리어디자인(66), 조리외식(88), 헤어디자인(88), 주얼리디자인(88), 패션디자인(88), 피부체형케어(88), 한국의상(88)
	단기과정 (260명)	일반 (3개 200명)	요양보호사(60), 전산세무회계(80), 봉제(60)
		재직자 (2개 60명)	한복산업기사(30), 패션산업기사(30)
북부 29개학과 1,613명	정규과정 (1,243명)	주간 1년 (12개 517명)	LED광고디자인(44), 신재생그린에너지(44), 공조냉동시스템(44), 미디어출판디자인(44), 스마트웹앱프로그래밍(44), 의료전자(44), 자동차컬러디자인(44), 전기시스템제어(44), 품질비파괴검사(44), 플랜트용접(33), 그린카정비(44), 자동차차체정비(44)
		야간6개월 (11개 726명)	신재생그린에너지(66), 그린카정비(66), 스마트e-Book디자인(66), 에너지관리(66), 스마트웹디자인(66), 자동차차체정비(66), 자동차도장(66), 전기내선공사(66), 전기용접(66), 조경관리(66), LED응용(66)
	단기과정 (370명)	일반 (4개 280명)	실내인테리어(60), 조경관리(80), 산림관리(60), 직업상담사(80)
		재직자 (2개 90명)	자동차정비기능장(30), 전기기능장(60)
남부 14개학과 840명	정규과정 (420명)	주간 1년 (10개 420명)	가구디자인(44), 그린자동차정비1(44), 전기(44), 외식조리1(30), 웹컨텐츠디자인(44), 주얼리디자인(44), 피부미용(33), 헤어디자인(33), 그린자동차정비2(44), 외식조리2(30), 가구디자인(10), 자동차정비산업기사(5), 주얼리디자인(5), 전기산업기사(5), 헤어디자인(5)
	단기과정 (420명)	일반 (4개 280명)	바리스타(80), 요양보호사(80), 가구DIY(80), 자동차정비(40)
		베이비부머 (2개 140명)	조경관리(80), 나전칠기(60)

####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 **사업개요:**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역량 강화 사업,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문 HRD 교육기관으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7개 인력개발원 운영
- **주요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해외 직업교육훈련지원, 교육부 협력사업,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지원사업 등 운영
  -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하여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구직자)에게 기계(CAD/CAM, 금형), 전기, 전자, IT, 가구, 용접 분야 교육훈련 제공,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신기술 교육 제공
  - ◆ **(해외 직업교육훈련지원)** 정부 해외조사업 중 개도국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훈련원 건립 및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을 수행

### 3. 민간 영역 평생직업교육 사례

#### □ 패스트 캠퍼스(Fast Campus)

- **사업 목적:** 25~50세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등 IT분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별 교육 실시
- **운영형식:** 시스템을 통해 카테고리별로 개설된 강의를 등록, 수강
- **주요 프로그램**
  - ◆ **(프로그래밍)** 코딩 입문,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개발자 커리어, DevOps, 모바일 앱, 게임
  - ◆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딥러닝/인공지능, 데이터분석
  - ◆ **(디자인)** 디자인툴, UX/UI, 시각디자인, 일러스트
  - ◆ **(영상/3D)** 영상 편집, 모션그래픽, 게임 그래픽, VFX
  - ◆ **(마케팅)** 디지털마케팅, SNS마케팅, 데이터마케팅, 글쓰기/카피라이팅
  - ◆ **(업무 생산성)** PPT/보고서, 엑셀/VBA, 커뮤니케이션, 업무자동화, 리더십
  - ◆ **(투자/재테크)**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 **기업대상 서비스**
  - ◆ **(온라인교육 구독 서비스)** 무제한으로 매주 업데이트 되는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으며 10분 내외의 마이크로 러닝으로 핵심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직무·직급별 강의 로드맵 제공

- ◆ (맞춤형 기업교육 설계)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 진행 방식, 강사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제공
- ◆ (온라인 세미나) 트렌드 파악에 용이한 주제를 엄선하여 업계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

#### □ SK 뉴스쿨(SK New School)

- 사업목적: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운영방식: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역량학습과 실습교육 실시,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주5일 전일제 교육(1년간) 통해 현장형 인재 육성
- 주요 프로그램
  - ◆ (학과) 조리과, 외식경영과, MD과, 정보보안과, 자동차판금도장과
  - ◆ (대상) 20~29세 청년(자동차판금도장과의 경우, 20~33세 청년)
  - ◆ (지원내용) 교육비 전액 무료, 장학금 지급, 진로상담 및 개인별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SK계열사 인턴십 기회 제공

#### □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

- 사업목적: 삼성의 SW 교육 경험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생에게 SW 역량 향상 교육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운영방식 : 전국 5개(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산) 캠퍼스에서 총 12개월간의 교육기간 동안 실습 중심의 몰입형 코딩 교육 실시
- 교육과정 로드맵

5개월	1개월	5개월	1개월
<b>기본과정</b>	<b>1차 Job Fair</b>	<b>심화과정</b>	<b>2차 Job Fair</b>
<b>목표</b> • 기초 코딩 역량을 갖춘 신입 SW 개발자 양성  <b>내용</b> • SW 필수 지식과 알고리즘 중심의 몰입형 코딩 교육 • 수준별 분반 운영	<b>내용</b> • 취업역량 향상 집중교육 (수준별 분반 운영) • 개인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및 채용정보 중점 지원 • 해외연수(성적 우수자 대상) • 계절학기 운영(SW 수준별)	<b>목표</b> • 프로젝트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한 실전형 SW 개발자 양성  <b>내용</b> • 교육생 수준에 맞는 자기 주도형 프로젝트 수행 • 실무 환경과 동일한 개발방식 활용	<b>내용</b> • 채용 박람회 개최 • 개인별 맞춤형 경력 설계 • 개인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및 채용정보 중점지원

[그림 III-10]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교육과정 로드맵

- ◆ (기본과정) 알고리즘 기반의 코딩 역량을 향상시켜 SW개발자로서의 기초를 다지고 웹부터 임베디드, IoT의 핵심기술을 집중 탐구

- ◆ (심화과정) SW 실전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 현업수준의 프로젝트 과제(공통/특화/심화)를 경험함으로써 취업 경쟁력 제고

#### □ 숨고(Soomgo)

- 사업목적: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
- 운영방식: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수의 숨은 고수(전문가)들로부터 견적서를 각각 받아 비교 선택
- 서비스 분야
  - ◆ (레슨) 학업, 댄스, 스포츠/건강, 외국어, 외국어 시험, 공예, 악기, 사진/영상, 취미/생활, 투자/부업/N잡, 요리/조리, 미술, 음악이론/보컬, 연기/마술, 계절스포츠, 실무교육/컴퓨터·디자인·마케팅, 취업준비, 시험/자격증, 패션/뷰티
  - ◆ (홈리빙) 이사, 청소업체, 인테리어, 야외 시공, 부동산, 철거/정리, 펫/반려동물, 문/창문, 수도/보일러/전기, 가전제품, 가구, 도우미
  - ◆ (이벤트) 웨딩, 촬영 및 편집, 뮤직/엔터테인먼트, 음식, 뷰티/미용, 기획 및 장식, 장비 및 자동차 대여
  - ◆ (비즈니스) 통·번역, 문서, 마케팅, 음향, 아웃소싱, 컨설팅, 회계/세무/재무, 인사
  - ◆ (디자인/개발) 디자인 외주, 개발 외주
  - ◆ (건강/미용) 심리, 미용, 건강
  - ◆ (기타) 여행, 공예제작, 의류/잡화, 자동차, 대여/대관, 금융, 법률 등

#### □ 탈잉

- 사업목적: 프리랜서 재능마켓 앱으로 누구나 강사가 되어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자기계발 서비스 제공
- 운영방식: VOD 클래스와 함께 오프라인, 라이브스트리밍, 이북, 출판 등 제공, 현재 3만여명의 튜터가 등록하여 200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수는 150만명임. 특히 코로나19 이후 라이브스트리밍 클래스가 매월 30%씩 성장
- 서비스분야: 외국어, 액티비티, 취미·공예, 디자인·영상, 뷰티·헬스, 라이프, 머니(주식투자, 마케팅, 부동산, 창업 등), 커리어(취업/이직/진로, 데이터분석, 실무역량 등) 등

#### □ 클래스101(Class101)

- 사업목적: 클래스 콘텐츠, 상품의 판매 또는 판매 중개를 포함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운영방식:** 개설된 클래스 중 원하는 수업에 등록하고 수강 / 기업 단위로 계약 체결하여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클래스101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는 기업대상 서비스도 제공
- **서비스 분야**
  - ◆ (크리에이티브) 드로잉, 공예, 요리 음료, 베이킹, 음악, 운동, 라이프, 사진 영상
  - ◆ (커리어) 디자인, 개발, 직무교육(직장인 스킬, 마케팅, 취업 이직, 전문 직종, 더 새로운 직무교육-커리어 성장법, 메이크업, 태블릿 활용법, 연기레슨, 필라테스, 원격 근무 솔루션 등), 글쓰기, 언어 등
  - ◆ (기타) 머니(수익 창출 관련), 키즈(아동교육), DIY키트

##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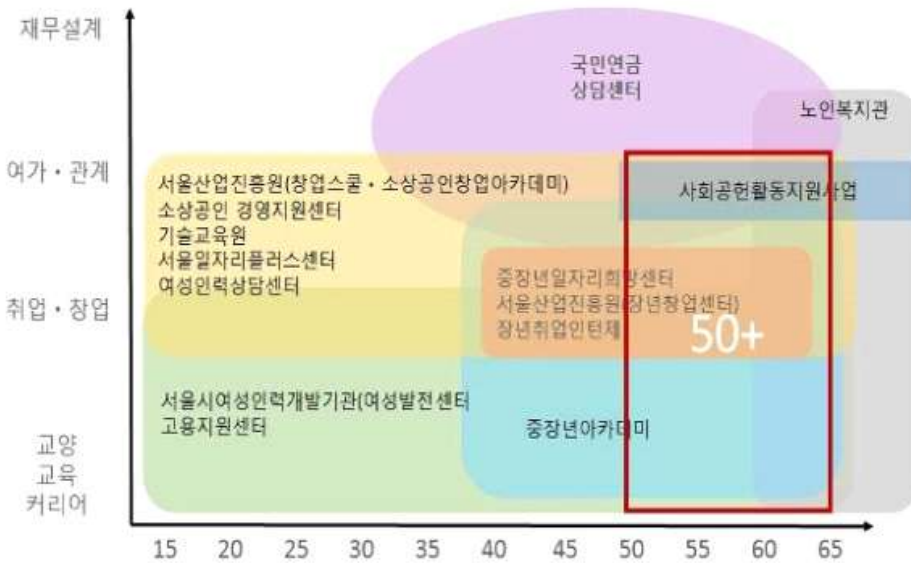
### □ 부처별 평생직업교육정책

- 부처별 평생직업교육 정책을 보면, 취창업 지원, 핵심분야 인력양성, 소상공인 지원, 안전교육 제공 등 타겟그룹이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포털 등)을 구축하여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운영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음.
- 타겟그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학 등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자체 등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부처별로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은 온라인 고등교육과정, 취창업 지원,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과 관련하여 대학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직업전문학교 등 비롯해 민간 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음.
- 정책별 타겟그룹은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 대학 지원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음. 이외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디지털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취·창업 등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중장년층의 인생전환을 탐색하는 정책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정책

- 서울시의 평생직업교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추진되는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중심의 평생교육정책, 기술교육원 중심의 직업훈련과정, 50플러스재단 중심의 전환교육과 일자리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서울시의 평생직업교육정책은 평생교육, 직업훈련, 복지 등 생활지원의 영역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음. 특히 일자리와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보면 아래 그림(연령별 일자리정책 운영기관 현황)과 같이 재무설계, 여가·관계, 취·창업, 교양교육·커리어 개발 등 영역에 따라 다양한 운영기관과 추진체제가 혼재되어 있음.



[그림 III-11] 연령별 일자리정책 운영기관 현황

출처: 50+재단 실태분석 보고서(2016)

- 서울시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전반에 거점기관과 하위 시설을 지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풀뿌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다만 온라인의 경우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구축한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추후 ‘서울비전2030 (2021.9)’ 을 통해 강조한 온라인 교육지원 플랫폼 ‘서울런’ 등 유사 플랫폼과의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민간영역 평생직업교육 사례

- 민간영역의 평생직업교육은 SSAFY와 패스트캠퍼스 등 기업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프런(온라인 개발자 양성), 생활 코딩(무료 코딩 플랫폼) 등 일반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재능공유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기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SW, 자동차 등 국가의 전략산업군을 중심으로 청년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었

다면 재능공유 플랫폼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단순히 재능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소득을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

- 대표적인 재능공유 플랫폼인 탈잉, 크몽, 슝고의 이용자 33.4%가 부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재능거래를 한다고 응답할 만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자신의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통해 홍보하고 플랫폼을 통해 강의 콘텐츠(VOD, 라이브스트리밍, e-book 등)로 연결하는 수익창출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주된 직업 외에 부수입을 창출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 SSAFY 등 대기업이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은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력단절 등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층을 포용하지 못함. 온라인 재능공유 플랫폼은 경로의 특성상 중장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의 평생직업교육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내용의 측면에서는 부업, 알바, 부수입 등 경제적 이유 외에도 시민성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원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시사점

- 유관 부처의 평생직업교육 정책에서는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비전과 관련한 인재 양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의 지원대상이 청년층 혹은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평생직업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 영역의 평생직업교육 역시, SW 등 청년층의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재능공유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중장년층이 평생직업교육의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음.
- 특히 수명 연장 등으로 인생의 주기가 확대되면서 중장년층의 학습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평생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수 분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주민의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교육훈련기관의 접근성 강화,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지자체-시민-평생교육기관 간의 소통채널 확보 등이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와 함께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 맞는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청사진이 필요함. 이는 단순히 메타버스 등 비대면 시대의 도구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에 맞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의 도입, 기존 제도·시스템과의 결합, 중점 지원대상의 설정과 그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IV.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

### 1. 조사개요

#### 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델파이 조사

##### □ 조사 대상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비전과 주요 과제 도출과 관련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델파이조사 대상자는 평생교육 분야 6명, 직업교육 분야 6명, 미래·경제 분야 4명, 청소년·어르신 등 대상별 전문가 4명씩 총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음.

<표 IV-1> 델파이조사 참여 현황

조사대상자(A)	1차 조사		2차 조사	
	응답자(B)	응답률(B/A)	응답자(C)	응답률(C/A)
20명	18명	90.0%	17명	85.0%

- 1차 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18명이 응답에 참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17명이 응답하였음. 1-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

<표 IV-2> 델파이조사 응답자 명단

연번	이름	구분	소속	최종학위	평생직업교육 관련경력
1	김 * *	정부/공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	18년
2	박 * *	정부/공공	국가교육회의	박사	9년
3	박 * *	정부/공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사	22년
4	변 * *	정부/공공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18년
5	신 * *	대학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30년
6	심 * *	정부/공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사	20년

연번	이름	구분	소속	최종학위	평생직업교육 관련경력
7	안 * *	기업	LG전자	박사	24년
8	오 * *	대학	연세대학교	박사	15년
9	오 * *	정부/공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사	11년
10	위 * *	대학	한국폴리텍대학교	박사	21년
11	이 * *	정부/공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	6년
12	이 * *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7년
13	이 * *	정부/공공	서울연구원	박사	15년
14	최 * *	대학	경희대학교	박사	15년
15	한 * *	대학	김포대학교	박사	24년
16	홍 * *	정부/공공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박사	34년
17	황 * *	정부/공공	50플러스재단	박사	23년

#### □ 조사절차와 조사도구

- 1차 조사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일간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는 11월 8일부터 10일간 실시하였음. 1~2차 조사 모두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회수하였음.
- 1차 조사는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비전 수립과 과제 설정을 위한 기초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응답식 질문 7개 문항과 응답자 배경정보에 관한 6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IV-3> 1차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영역	구분	문항내용
1	응답자 배경정보	이름, 성별, 연령, 소속, 평생·직업교육 관련 경력, 현 소속기관 근무기관
2	주요 이슈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의 주요 이슈와 그 이유
3	중점과제	'서울비전2030' 중 평생·직업교육분야의 중점 과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강화해야 할 과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추가해야 할 과제
4	타겟그룹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의 주요 타겟그룹과 지원방안
5	추진체계	현재 분산된 평생·직업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기타 의견	기타 의견(자유 기술)

-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선택하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IV-4> 2차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영역	구분	문항내용
1	주요 이슈	3개 영역 10개 이슈에 대한 중요도(5간 척도)
2	중점과제	'서울비전2030' 4개 영역별 중점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4개 영역별 중점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4개 영역별 추가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3	타겟그룹	타겟그룹별(세대별/대상별) 지원방안에 대한 중요도(5간 척도)
4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중요도(5간 척도)

## 나. 교육기관 관계자 및 대상자 의견 수렴 위한 초점집단면담(FGI) 조사

### 면담 대상

- 본 면담은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관내 평생직업교육을

- 운영하고 있는 공공·민간 기관의 현장 전문가 및 정책 당사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운영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점 등에 대해 심층 토의를 진행함.
- 초점집단면담은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영역별 평생직업교육 관계자 9명과 생애단계별 정책 당사자인 시민 18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였음.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V-5> 초점집단면담 일정 및 대상

구분	일시	대상
영역별 평생직업교육 관계자	2021.10.26.(화) 10:00~12:00	- 공공 분야 여성 직업훈련 현장 담당자 2명 - 자치구 평생교육 관계자 1명 - 공공 분야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 1명
	2021.10.27.(수) 13:00~15:00	- 중장년 교육 관계자 1명
	2021.10.28.(목) 10:00~12:00	- 민간 직업훈련 현장 담당자 1명 - 공공 직업교육 관계자 1명 - 공공 청년지원사업 관계자 1명
	2021.10.28.(목) 15:00~17:00	- 여성 직업훈련 총괄기관 담당자 1명
평생직업교육 정책 당사자 (시민)	2021.11.16.(화) 18:00~20:00	- 청년 학습자 4명
	2021.11.18.(목) 10:00~12:00	- 경력단절 여성 학습자 5명
	2021.11.18.(목) 19:00~21:00	- 중장년 학습자 5명
	2021.11.11.(목) 14:00~16:00	- 노년층 학습자 4명

□ **면담 절차와 도구: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집단 면담(4~5명 대상)**

-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대상별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면담을 실시함.
- 평생직업교육 관계자 대상 면담 질문
-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상별 직업교육(정책) 현황 : 사업의 운영방식과 규모(프로그램 수와 예산), 정책대상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1인당 투입 비용,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비용, 만족도 및 성과(ex. 취업률 등), 우수 사례
  -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대상별 직업교육(정책)의 아쉬운 점 혹은 문제점
  -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

- 향후 서울시민들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에서의 필요 과제
- 정책 당사자(시민) 대상 면담 질문
  - 당사자의 프로그램 참여 계기와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된 과정
  - 새로운 직업탐색과 인생설계 과정에서 받았던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문제점
  - 향후 인생전환과 전직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 제도

## 2. 요구 분석을 위한 FGI결과

### 가. 기존의 평생직업교육의 한계

#### □ 직업 관련 최초 플랫폼인 고용센터 및 워크넷 운영의 한계

- 시민들은 대부분 퇴직을 한 후 정부의 지원을 찾게 되는데, 퇴직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공 플랫폼은 ‘자치구 고용센터’ 임. 시민들은 이 센터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 구직 분야 혹은 구직처 등에 대한 간단한 상담과 이력서 작성 등의 교육을 받게 됨.
- 이 과정에서 구직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고용센터의 실적위주 운영으로 인해, 이력서 제출 혹은 면접 경험 등을 의례적으로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여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는 인식이 강함.
- 또한 구직자가 고용 정보 수집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안내 받는 것은 국가수준에서 구축한 일자리 및 교육훈련 관련 종합 포털인 ‘워크넷’ 임. 그러나 이에 접근하는 것에 고용보험 수급자만 접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6개월 간의 고용보험 수급 기간이 지나면 국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고용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됨.

제가 이제 처음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러 노동청에 가잖아요. 가면은 구직을 해야 준다고 이게 그런데 그거 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떻게 알고 거기를 찾아가고 거기 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받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으로 보면 스트레스는 받고 시간과 노력도 허비하는 거거든요.(중장년학습자)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 들어가서 인사 담당자한테 이러니까 사인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던 게 거의 다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는 받고 시간

도 뺏기고 채용도 안 되고 이게 첫 번째 퇴직하고의 난관이어서...(중장년학습자)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프리랜서는 워크넷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180일 이상 어디에 소속이 돼서 4대 보험을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고용보험 저도 5개월 받았거든요. 그 교육 받고, 그리고 거기서 안내해주는 국비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워크넷에서 하는 기관들은요... 그거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안 하고 제 사비로 한 이유가 있어요(중장년 학습자)

#### □ 퇴직 이후 심층적인 진로 정보 및 설계에 대한 지원 부족

- 고용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구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술,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 쓰는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설치·운영되며, 구직자 입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효용성이 떨어짐.
- 오히려 퇴직 후 시민들은 퇴직 과정에서의 겪었던 ‘막막함’에 대해 종합적인 심리, 진로탐색과 설계, 구체적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며, 구체적 취업 성과 위주의 기관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족이 야기됨.

미리 알려주면 2년 걸릴 걸 지금 생각하는 제도권으로 이런 지금 이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퇴직자한테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교육이 있으면 6개월이면 다 될 것 같아...(중장년 시민)

무슨 ‘취업성공패키지’니 뭐 어찌고 해서 아시겠지만 기관마다 다 똑같아요. 면접 보는 이력서 쓰는 뭐 이런 게 쉽게 말해서 국가 보조금이 중복되는 사업에 다 들어가...(중장년 시민)

제가 이제 국비 지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고용센터를 가서 거기서 소개를 받아서 국비 지원하는 데로 연락을 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면접을 봤는데 자꾸 한 10번을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걸 과정을 마칠 자격이 있는지를 한 10번을 물어봐요. 한두 번 물어봤을 때는 걱정해주는가 생각을 했는데 10번을 물어봤을 때는 기분이나빔어요... 내가 안 끼길 바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포기를 했습니다.(중장년 학습자)

□ **국비 지원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넓지만, 학습자 개인이 원하는 장소나 시간에 개설되지 않거나, 취업 실적 중심의 운영기관에서 무리하게 기간을 늘려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음.

제가 어떤 거는 저거 한 일주일만 받으면 될 걸 왜 3개월을 할까, 한 달만 받을 걸 왜 10개월로 늘릴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중장년 학습자)

어떤 교육은 6개월 동안 제가 그걸 국비로 받으려면... 대구로 가야 해요, 대구에서만 그 교육을 해요. 내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대구에 어떤 교육은 거기로 가야... 거기 가서 제가 숙소도 정해야 하죠, 밥도 해 많이 먹어야 하죠, 그리고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러나 수업료만 무료입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높으면은 용돈도 한 3~40만 원 줘요. 그런데 과연 내가 6개월을 내가 국비로 해서 거기까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 내가 사비로 다른 사비로 그냥 여기 1개월에 끝날 건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비로 1개월 만에 끝냈어요.(중장년 학습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딱 받았을 때 그냥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주거나 이런 느낌은 안 받았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아주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과정만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역량을 높이거나 그런 직업적인 역량을 높이거나 그럴 때는 그런 기관에서 주는 것보다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경력단절 여성)

- 공공 영역의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경력 단절 학습자는 기초 수준의 교육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나 ‘(민간보다) 질이 낮다’ 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별 학습자의 배경과 학습준비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획되지 못했고, 공공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애초에 낮은 강사비 책정 등으로 교육 품질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음.

구청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을 때도 연령 구분 없이 받았는데 제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보다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됐어요... 공공기관에서 한 교육이라고 딱 들어보면 사

람들의 인식이 좀 질이 낮다 일반 민간보다는 질이 낮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경력 단절 여성)

과정을 지원하신 분들을 보면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원했었는데 퀄리티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되게 실망하셨다... 교재를 어떻게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교재비를 수강료는 무료지만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뭔가를 직업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력단절 여성)

## 나. 시민들의 직업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과정 기획

### □ 평생직업교육 대상의 구체적 타겟팅

- 인구구조의 변화, IT기술 발달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직업전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평생직업교육의 전달체제는 행정 부처 혹은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어, 일자리와 연관된 직업훈련, 기초직업소양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이 분리되어 제공되어 왔음.
- 서울시의 '50플러스재단' 이 혁신적 사례로 평가된 이유도, 사업의 초점을 단순한 취업 재개에 맞춘 것이 아니라, 50대 중장년에게 상담을 토대로 일을 포함하여 인생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임.
- 더욱이 포괄적인 경제활동인구(15~64세)와 구분하여 세대 특성을 지닌 중장년 세대를 '50플러스' 로 호명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음. 퇴직한 중장년 세대도 자기 세대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데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사실상은 그리고 이제 상담은 저희가 일자리 상담만은 하지 않고 그냥 인생 이모작 전반에 대한 7대 분야 상담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중에 근데 제일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문의가 한 70% 정도 된다고 뭐 재무, 여가, 가족, 이런.... (중장년 교육 관계자)

종합적이고 윈스톱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지향이고 지향하는 바죠. 그게 실제 완벽하게 작동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고...중장년층에 대한 모든 욕구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커버해야 하고... (중장년 교육 관계자)

근데 거기서 제일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명확하고 수강 신청도 쉬웠던 곳이 50 플러스 세대였어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접근하기가 쉬웠어요. 일단은 그리고 과정이 한눈에 보기 쉬웠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양한 거를 다 배웠고... (중장년 학습자)

#### □ 보다 세분화된 학습자 요구의 반영

- 기존에 없던 중장년층 요구를 반영하여 일을 포함한 인생설계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학습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비교적 오래 전부터 ‘여성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위해 운영되어 온 여성 교육 기관들의 경우에도 같은 여성이라도 세대와 상황에 따른 분화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노년층과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본격적인 경제활동보다는 사회봉사활동 수준의 ‘가벼운 일자리’를 요구한 반면, 3040세대 여성의 경우 경력수준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등 세부적인 요구의 분화가 존재함.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일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남편한테 누가 가지 않을까 이런 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노년 학습자)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임신, 출산, 육아를 반복하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늘 일을 하고 싶은 갈망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경력단절 여성)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물론 되게 보람 있고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 기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 개인의 보람, 성취감 이런 걸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다못해 (취미 교양 활동에만 참여해도) 엄청난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공공기관에서 그래도 일을 하게 됐다는 게 그런 자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생계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편한테 조금 당당해지더라고요. 내가 번 돈으로 뭔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서 그런 면에서는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참여가) 되게 좋았어요.(경력단절 여성)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계랑 연관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 이 정도 생각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을 좀 나눠서 교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력자, 스펙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 과정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또 역량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책적인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경력단절 여성)

- 개별 교육기관들에서 이러한 세분화된 시민들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를 일일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개별 기관들에서는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 을 통해 직업 흥미 검사를 활용하거나 그룹상담 진행 등의 노력을 하지만, 학습자들이 인지할만큼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움.

본인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해서 적합한 또 워크넷에도 보시면 알지만 직업 흥미 검사라든가 이런 거 저희도 다 워크넷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력 플러스 본인의 어떤 현재 하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구두로의 표현, 그다음에 여러 검사의 결과를 ‘당신은 이런 직업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권유를 하시게 되겠죠.(여성 직업훈련 총괄기관 담당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애초에 참여 불가능한 거예요. 오죽하면 지역 맘카페 주인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화해서 여기 엄마들이 아기들이 다 어리다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없냐 그랬는데 불가능하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해서 아니 엄마들이 참여를 많이 못 했어요.(경력단절 여성)

이제 여성인력개발에서 제가 수업도 들어보고 일도 해 봤지만 실적 위주인 거예요. 뇌 건강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인데 취업을 이쪽에서 연결을 해줬든 본인이 알아서 취업했든 간에 무조건 취업이 되면 그 수강생은 취업이 된 걸로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서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취업 연계해 주는 걸 보면 정규직은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든가 단기 알바라든가 전혀 수업과 상관없는 내용의 그런 단순 노동 같은 거 그런 걸로 많이 취업하시는 거 같더라고요.(경력단절 여성)

#### □ 현실성있는 평생직업교육 과정의 기획과 운영 필요

- 구체적인 직업훈련 이전에 직업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상담이나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낭비가 된다고 인식하게 됨.

애들이 키우면서 궁금한 점을 교육 교사한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나 카페지기처럼 그런 정보나 그런 것들을 리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직업 상담을 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는 생각... (경력단절 여성)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해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쪽 일을 계속했어요. ... 그래서 정보가 전혀 없었으니까 인터넷 검색하다가 저도 OOOO센터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NCS 교육 기획자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 재미있겠다. 그럼 이쪽(디자인) 관련해 또 OOOO센터니까 취업을 보장하는...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매일 근데 이제 9to6는 아니고 9시부터 1시 12시까지 해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해서 한 3개월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내용도 굉장히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뭐라 그래야 하나, 요즘은 어떤 직업 훈련 교육 과정 같은 거나 어떤 교육 과정 보면 NCS 교육에도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강의 내용은 되게 좋았고 전문적이었고 내용도 만족도도 되게 높았어요. 근데 사실 취업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경력단절 여성)

-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 특히 심화된 IT관련 교육, 혹은 NCS기반 직업 훈련 등에 관련해 개설하지만, 당초에 교육대상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정 설계로 해당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학습자들의 기회비용을 유발시키게 됨. 각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에 기인함. 교육과정에 대한 정교한 기획과 세부적인 사전 상담을 통해 학습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다. 학습자 생애단계 직업탐색과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의 윈스톱 서비스 필요

### □ 직업수요와 직접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의 운영

- 한 사람이 ‘일자리’를 선택하고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입직의 탐색과 실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일을 유지하는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
- 하지만, 정책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 진로지도는 시의 해당 부서 혹은 관할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각각의 지원은 정책 성과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참여자수’, 직업교육 부분에서는 ‘취업률’ 등에 치중하기에, 정작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함.

그 과정을 수료하면 취업으로 연계를 해 주고 그 과정을 수료하고 아르바이트나 뭐가

됐든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엄마도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해서요. 아르바이트를 6개월 이상 하면 무슨 케이크 기프트콘을 준다고 해서 그 케이크 기프트콘과 6개월 알바를 맞바꾼 거냐 그거 받으려고 한 거냐...(경력단절 여성)

- 서울시 50+의 경우 중장년의 일자리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먼저 직업수요처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취업처에 배치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비교적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예를 들면 지역에서 돌봄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낸 채용 계획을 저희와 협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모집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있는 기업하고 애초에 계획된 인원만큼을 적합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 과정을 거치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쪽으로 취업이랑 연계시키는 거고...저희 일자리 사업본부에서는 일자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냥 교육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부분은 사실은 그 교육에 대한 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거는 그 기업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도 그 기업에서 전문가들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이런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이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그 일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를 저희 저희가 일자리 본부에서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연계시키는 것까지가...(중장년 교육 관계자)

제일 좋은 게 더 직접적으로 내가 가진 능력이나 또 내 기질이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찾아주는 찾아주고, 실무적으로 역량 개발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든 트레이닝이든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더 요구하는 거죠... 더 나한테 맞는 일자리로 연계될 확률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는 거(중장년 학습자)

- 또한, 일자리에 직접적인 직업훈련에 더해 사전에 해당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소양 혹은 포괄적 역량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예컨대, IT교육 및 OA교육, 세대간 의사소통 교육 등이 적절히 병행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습자가 지속적인 ‘제2의 일자리’ 를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음.

#### □ 교육참여-일자리 연계 이후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 일자리와 직업교육이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뿐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주기적으로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개개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구직처도 발굴해 알선하며, 구직에 실패하거나 중도탈락한 대상자에 대해 응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이 연결되어질 수록 평생직업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그래서 이제 직훈을 계획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할 때도 되게 정말 성심성의 하는 여성의 어떤 특유의 어떤 장점으로,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다른 여타 직훈보다는 높아요. 항상...

(여성 직업훈련 총괄기관 담당자)

- 다만, 이러한 직업교육 후 사후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3개월 이상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온전히 교육담당자의 사후관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공공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 직업교육이라는 건 평생교육으로 평생 직업교육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정말 한 달 석 달 6개월 12개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후 관리가...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인 업체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이런 그 구직자들을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취업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일련의 그 과정이...(여성 직업훈련 현장 담당자)

이거 굉장한 시간과의 싸움이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하는 작업인데... 그 사후 관리가 저희는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여성 직업훈련 현장 담당자)

- 학습자들이 시기적절하게 원하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은 학습자 개개인의 일자리 탐색-구직처에 맞는 직업훈련-학습자의 상담-사후관리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예산 등의 채원과 적절한 인력이 배정되지 않으면, 평생직업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라. 정보 제공과 상호 격려 가능한 ‘의미 있는 타자’의 연결과 학습공동체 필요

### □ 가치 높은 정보의 교류

- 학습공동체는 학습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며, 학습이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됨. 면담 과정에서 시민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학습 참여 동기 및 향후 진로에 대해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 동료 학습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저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임신, 출산, 육아를 반복하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늘 일을 하고 싶은 갈망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연치않게 지인 소개로 0000복지관에서 주 1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일하는 다른 직장맘들을 보잖아요.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경력단절 여성)

-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강하다 만난 동료 학습자의 소개와 추천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지인을 소개받아 함께 일하는 것처럼,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직업활동을 학습자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함.

또 부모 교육에서 만났던 지인이 0000에 00000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 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바로 그걸 등록하고 온라인 학점은행계랑 병행하면서 00000 자격증을 취득했지요. 그러면서 학습 매니저도 그분이 저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거 양성 과정 수려하고 학습 매니저로 하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경력단절 여성)

## □ 긍정적 정서적 지지

-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새로운 학습을 시작할 때 학습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중도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 학습의 진입에서부터 교육과정 중, 과정 후의 구직과 입직에서도 학습자들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기관에서는 일일이 학습자 ‘돌봄’을 지원하기 어려움.
- 관계망이 잘 형성된 네트워크에는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데, 소위 약한 결합(weak tie)로 분류될 수 있는 학습조직에서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음(Granovetter, 1973).
- 학습자 간 관계망은 서로가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됨. 중도 포기하려 했던 학습자도 해당 교육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료로써 프로그램을 수강했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에 의해 케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음.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날 저녁에 가서 밤새서 잠을 못 잤어요... 고민이

돼서요. 그게 그래서 내가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지금 못하면 그건 아니 되고 이대로 갈 것이다. 이겨내야 한다는...(노년층 학습자)

동아리로 지금 이제 커뮤니티로 해서 50 플러스 재단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집합 교육이 아니라 동아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훨씬 빨리 자기가 아닌 거는 빨리 털어내고 필요한 동아리로 계속 한 두세 개 다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네 시간 있을 때는 그러면 거기서 취사선택해서...(중장년 학습자)

- 관심사가 비슷한 학습자를 묶어 내는 작업은 일반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임. 프로그램 주제나 내용이 한정되기 때문에 교육설계 입장에서도 대중 다수를 대상으로 기획할 때보다 깊이 있게 구상할 수 있어, 교육 효과나 취업 성공 등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학습자 간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런 분들에 대한 동아리 모임을 그냥 동아리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이수한 동질 집단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하면 빨리 성과도 나고 취업을 하든지 창업 하든지 자기 앞길을 훨씬 빨리 교착할 것 같다.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 같이 식사라도 하든지 같이 무슨 술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가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 저는 거기서 진짜 해외여행 포기하고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한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일부러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만 원의 행복이라는 술자리 계속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산 교육이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어서 투자, 프리랜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중장년 학습자)

### 3. 정책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가. 1차 조사 결과

##### 주요 이슈

- 2번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자 18명의 답변을 유사한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3개 영역 10개 이슈로 정리하였음.
- ‘시민의 직업역량 강화’ 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이·전직 등 직업적 전환

기 교육, 노년기 사회적응과 기초학습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재직자의 기술 전환을 위한 Reskill & Upskill 교육이란 응답이 많았음.

<표 IV-6> 평생직업교육 ‘주요 이슈’ 응답 결과(1차)

영역	주요 이슈
시민들의 직업역량 강화	직업적 전환기에 대한 교육 지원(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 학습,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병행)
	노년기의 사회적응, 시민의 기초학습력과 인문학적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Reskill & Upskill을 위한 기술 교육 (재직자 기술전환 등을 위한 재교육, 실업자 교육 등)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제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고독과 우울의 해소 (삶의 의미와 자기정체성 구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환경, 빈곤, 성평등 등 인류보편의 문제와 관련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교육
	일반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 (일상생활에서의 범죄나 사고, 치안, 고독사 등)
	포스트코로나에 맞춘 생활웰빙교육 (노년 준비를 위한 경제교육,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다양화, 취미·여가·건강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등)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개선	기술중심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의 전환(기술훈련과 학습경험의 연계 등)
	학습결과가 지역사회 활동·취창업, 공공일자리 등에 활용되는 선순환 모델
	지역기반의 학력-자격-직업훈련과의 연계체계 강화

-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제고’ 와 관련해서는 고독과 우울의 해소를 위한 공동체 교육, ESG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을 위한 안전교육,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생활웰빙교육으로 나타났음.
- 평생직업교육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역량중심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 학습결과와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선순환 모델 개발, 학력-자격-직업훈련 연계체계 강화로 나타났음.

□ 중점과제

- 1차 조사에서는 중점과제 도출을 위해 기존에 수립된 ‘서울비전2030’ 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을 토대로 강화해야 할 과제와 추가·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서울비전2030’ 과 연계한 중점과제를 묻는 문항에서 유사한 응답을 범주화하여 ‘서울비전2030’ 중 평생교육분야 주요 과제로 ‘상생도시와 청년활력 제공’, ‘50+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온라인 플랫폼 등 교육사다리 구축’,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의 4개 영역, 17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 ‘상생도시와 청년활력 제공’ 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인생설계 지원과 고용연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에서는 시니어 맞춤형 교육지원, 공공일자리 연계 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음.
- ‘온라인플랫폼 등 교육사다리 구축’ 에서는 온라인 학습의 접근성과 교육기회 제고를 위한 플랫폼의 확대, 오프라인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인간성·공동체성 회복 프로그램, 지역산업과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표 IV-7> ‘서울비전2030’ 중 중점과제(1차)

영역	내용
상생도시와 청년활력 제공	전 생애에 걸친 인생설계 지원 (기술·직업교육에서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확대)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메타버스 도입, 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한 대한 통합적 접근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학습격차 해소, 관계회복 지원 (기초역량, 관계교육, 인문교육 등)
	산업구조, 청년수요 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과의 차별화)
	대학-기업-지자체간 협력체계 구동, 지역 산업구조에 기반한 고용연계율 제고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교육공간·교육방법(대학 등 연계, 비대면교육),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노년층의 학습생태계 조성
	수요자 맞춤형 교육(경로) 설계(연령대별/성별/경제활동상태별 등 다양성을 고려한 다품종소량 교육지원체계 구축)
	공공일자리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강화 (금전적 수익창출형, 지역사회 봉사형 등 범주화)
	치매예방 등 노년층의 시민건강 캠페인

	(학습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온라인플랫폼 '서울런' 등, 교육사다리 구축	시민들의 생활권 중심의 일상적 학습 지원
	온라인학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지역 내 학습공간, 기기, 시설 등 제공)
	대학,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플랫폼 참여
	중소기업 등 직업교육 사각지대,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메타버스 서울' 구축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적응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로컬브랜딩(지역산업 명품화) 등 지역사회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인간성 회복,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역량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세대통합, 공동체의식 제고, 고독과 우울의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강화해야 할 과제를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시민교육, 실천학습' 분야에서는 기관(기업) 연계 시민대학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연계 시민 대학 운영, 지역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V-8>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강화해야 할 과제(1차)

분야	내용	빈도
1. 시민교육 실천학습	1-1. 기관(기업) 연계 시민대학 운영	8
	1-2. 대학 연계 시민대학 운영	4
	1-3. 지역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3
	1-4.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2
	1-5. 시민정책가 교육과정 운영	2
	1-6. 청소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2
2. 일상학습 학습문화	1-1. 비문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운영·지원	6
	1-2. 동네배움터 운영	3
	1-3.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	3
	1-4. 일상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1-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2
	1-6. 도심권 시민학습활동 공간 조성·운영	1
	1-7.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상생활 응원 맞춤형교육 지원	1

분야	내용	빈도
3. 전환학습 함께학습	1-8. 모두의학교 운영 활성화	4
	1-9. 서울시 인생학교 운영	4
	1-10. 미취업 청년 활력 지원	3
	1-11.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	3
	1-12. 인생2막 도전을 위한 자립강화 지원	2
	1-13.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사업	1
	1-14. 장애인 자립·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1
	1-15. 어르신 학습활동 지원	1
	1-16.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1
4. 전달체계 거버넌스	1-17. 화상교육·쌍방향 학습플랫폼 구축·운영	1
	1-18.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4
	1-19.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지도 제공	4
	1-20. 시·구·동의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비	3
	1-21.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운영	2
	1-22. 평생학습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
	1-23. 지역 평생학습컨설팅 서비스 제공	2
	1-24. 평생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1
1-25. 평생학습문화 대중화·저변 확대	1	

- ‘일상학습, 학습문화’에서는 비문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동네배움터 운영,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환학습, 함께학습’에서는 모두의 학교 운영 활성화와 서울시 인생학교 운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달체계, 거버넌스’에서는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학습지도 제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시민교육, 실천학습’ 분야에서 시민주도형 실천교육 활성화, 주민활동가 양성, 실무실습을 위한 학습경험 증강 프로그램 등의 응답이 있었음.
- ‘일상학습, 학습문화’에서는 학습휴가제 도입, 일상학습을 위한 소규모 학습 지원, 학습바우처·학습상당 등 지원체계 강화 등의 응답이 많았음. ‘전환학습, 함께학습’에서는 학습동아리 활성화, 대학 등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등의 응답이 많았으며, ‘전달체계, 거버넌스’에서는 동 단위 추진체계 확대,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복합 학습공간 마련 등에 대한 응답이 있었음.

<표 IV-9>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추가해야 할 과제(1차)

분야	내용
1. 시민교육 실천학습	1-1.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위한 시민주도형 실천교육 활성화 공공아젠다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문제해결형 워크숍 등)
	1-2. 주민자치학교,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주민활동가 양성 주민활동가의 활동 범위 확대 등 지원
	1-3. 산업별 노조 등 근로자 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직업훈련 사각지대 근로자 역량교육
	1-4. 실무실습을 위한 학습경험 증강 프로그램
	1-5. 성별/세대간/지역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
2. 일상학습 학습문화	1-6. 학습휴가제 도입(중소기업에는 학습휴가제 시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1-7. 일상학습을 위한 소규모 학습(학습동아리 등) 지원
	1-8. 비형식·무형식 학습-형식교육간 연계체계 마련
	1-9. 전문과정 프로그램 인증, 학습상담, 학습바우처 등 지원시스템 고도화
	1-10. 개인 단위의 학습콘텐츠 생성, 유통, 활용 지원
3. 전환학습 함께학습	1-11. 전환기 학습 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학습공간, 콘텐츠 지원 등 포함)
	1-12.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나노디그리 등 지자체 인증체제 마련
	1-13. 대학 등 지역 교육기관간 네트워킹, 자원 공유 등
	1-14. 탈북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한 취약계층 가족 지원 프로그램
4. 전달체계 거버넌스	1-15. 정부-지자체-교자체간, 교육-복지-노동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1-16. 동(洞)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추진체계 확대
	1-17. 학습경로, 학습양식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1-18. 복합 학습공간 마련(스튜디오, 공유주방, 공연장 등과 결합한 학습시설 등)

□ 주요 타겟그룹과 지원방안

<표 IV-10> 연령별 지원방안(1차)

분야	내용
20-30대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 변화의 이해, 진로관련 직·간접 체험 등 청년 인생설계 교육
	청년 재직자의 직장적응, 소통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창업을 위한 교육 지원
	비정규 근로자, 니트족, 1인가구, 고시원 생활청년 등 학습소외계층 교육 지원
40-50대	이·전직, 실직, 은퇴 등에 대비한 생애전환기 학습(자기정체성·일의 의미 탐색 등)
	자녀양육 등 부모교육,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교육 등
	지역사회 활동 증진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60대	치매예방 등 건강교육 활성화
	생활밀착형 작은 일자리 참여 증진
	인생선배로서의 멘토링, 세대간 공동체 교육 등
70대 이후	복지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
	죽음준비 등 웰다잉에 대한 교육

- 연령별 지원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20~30대는 청년층의 인생설계 교육을 비롯해 취·창업, 재직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40~50대는 생애전환기 학습을 비롯해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60대는 건강교육, 세대간 교육, 작은 일자리 참여, 70대 이후는 웰다잉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기타 주요 타겟 그룹과 그 지원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장애인의 평생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 복지정책과 연계한 저소득층 자활 지원, 소상공인 등 직업교육 사각지대의 직무역량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표 IV-11> 기타 주요 타겟그룹과 지원방안(1차)

대상	내용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독립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자립교육(생활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
저소득층	복지정책과 연계한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1인가구	1인가구별 맞춤형(소득수준별/세대별/직종별 등)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소외·우울감 해소 등)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 (직종별 안전교육, 경영교육 등 포함)
경력단절여성	숙련 여성기술인 발굴, 일자리 연계 등

#### □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마지막으로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정책이 평생교육, 직업훈련과 고용, 복지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되면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대상별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되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부서간 칸막이 없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학습결과 활용 등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음.

## 나. 2차 조사 결과

#### □ 주요 이슈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요도(5간 척도)를 묻는 문항에서 직업적 전환기 교육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4.35, 고독·우울·자기정체성 등과 관련한 공동체 회복 활동이 4.29, 학습결과와 일자리의 선순환 모델이 4.24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 밖에도 민주시민교육, 역량중심교육 전환 등이 ‘중요하다(4.0)’ 고 응답하였음.

<표 IV-12> 평생직업교육 ‘주요 이슈’ 응답 결과(2차)

영역	주요 이슈	평균	CVR	수렴도
시민 직업역량 강화	직업적 전환기 교육	4.65	0.88	0.50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4.35	0.76	0.50
	Reskill & Upskill 기술 교육	3.71	0.41	0.50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제고	고독·우울 해소, 자기정체성과 공동체 회복	4.29	0.76	0.50
	ESG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4.12	0.65	0.50
	일반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	3.71	0.06	0.50
	포스트코로나에 맞춘 생활웰빙교육	3.76	0.18	0.50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개선	기술중심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4.00	0.41	0.50
	학습결과-일자리의 선순환 모델	4.24	0.53	0.50
	지역기반의 학력-자격-직업훈련 연계체계	3.76	0.29	0.50

□ 중점과제

- ‘서울비전2030’의 중점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르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영역별로 보면 ‘상생도시와 청년활력 제공’에서는 대학, 기업 등 지자체 기반의 고용연계를 제고, 산업구조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 생애에 걸친 인생설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 중 1순위라고 응답한 빈도는 ‘전 생애에 걸친 인생설계 지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음.
-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인프라와 일자리를 연계한 ‘학습 생태계 조성’에 대해 응답자 17명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7명이 1순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음.
- ‘온라인플랫폼 등 교육사다리 구축’에서는 온라인학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플랫폼 참여주체 다양화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순위 빈도를 기준으로는 생활권 중심의 일상적 학습지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IV-13> ‘서울비전2030’ 중 중점과제(2차)

영역	내용	빈도	1순위 빈도
상생도시와	전 생애에 걸친 인생설계 지원	15	10

영역	내용	빈도	1순위 빈도
청년활력 제공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11	-
	교육공백·학습격차 해소, 관계회복 지원	14	7
	산업구조, 청년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15	4
	대학-기업-지자체간 협력기반 고용연계를 제고	16	4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교육공간, 일자리연계 등 시니어 학습생태계 조성	17	7
	수요자 맞춤형 설계, 다품종소량 교육지원체계 구축	16	2
	공공일자리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강화	15	5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시니어 건강 캠페인	13	3
온라인플랫폼 '서울린' 등, 교육사다리 구축	생활권 중심의 일상적 학습 지원	14	6
	온라인학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16	2
	플랫폼 참여 주체 다양화(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16	4
	중소기업 등 직업교육 사각지대 교육기회 확대	15	9
'메타버스 서울' 구축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적응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15	8
	로컬브랜딩 등 지역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14	3
	인간성 회복, 인문학적 소양, 문화역량 신장	14	5
	세대통합, 공동체의식 제고, 고독과 우울의 해소	17	3

- '온라인플랫폼 등 교육사다리 구축'에서는 온라인학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플랫폼 참여주체 다양화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순위 빈도를 기준으로 생활권 중심의 일상적 학습지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음.
-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서는 세대통합, 고독과 우울 해소 등 공동체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순위 빈도를 기준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8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IV-14>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강화해야 할 과제(2차)

분야	내용	추가의견	빈도	1순위
1. 시민교육 실천학습	1-1. 기관(기업) 연계 시민대학	중소기업·소상공인·퇴직예정자 등 교육 일반시민에 대기업 기초직업교육 개방	17	8
	1-2. 대학 연계 시민대학	서울내 60여개 대학간 파트너십 강화	14	5
	1-3. 지역활동가 역량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13	6

분야	내용	추가의견	빈도	1순위
	1-4.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건전한 정치참여의식 함양(토론방법, 진보·보수 등 주요개념 공유 등),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모델 참조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	14	3
	1-5. 시민정책가 교육과정	문제해결형 주민참여 활성화 (예.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11	1
	1-6. 청소년 학습동아리 지원	청소년기관/단체 전문성 확보 필요	11	1
2. 일상학습 학습문화	1-1. 비문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운영·지원	디지털리터러시, 생활문화 강화 문해교육기관 존속 지원(지역기관 연계, 학습공간 확보 등)	17	9
	1-2. 동네배움터 운영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16	5
	1-3. 고교-대학연계 인재육성사업	청소년 진로설계와 평생교육의 연계 고교학점제 등 광역단위의 중등교육, 진로교육 특화	13	1
	1-4. 일상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학습튜터 등 일상학습 지원	10	4
	1-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14	2
	1-6. 도심권 시민학습활동 공간 조성·운영	도서관 등 지역교육기관간 연계/공유체제 구축	13	3
	1-7.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상생활 교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확보, 학습지원 인력 확보 등	10	1
3. 전환학습 함께 학습	1-8. 모두의학교 운영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혁신 사례 발굴, 확산	13	6
	1-9. 서울시 인생학교 운영	전환기 포괄적 직업 지원 (사회정서적 지원, 삶·일의 의미 탐색, 커뮤니티 구성 등) 스터디서클, 인문역량 강화, 대학 연계 등 콘텐츠·서비스 다각화	15	9
	1-10. 미취업 청년 활력 지원	자아정체성 회복, 도전적 진로설계, 미래대응 역량 강화 등에 초점	16	6
	1-11.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12	3
	1-12. 인생2막 도전을 위한 자립강화 지원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	12	3
	1-13. 서울형 혁신학교	청소년의 기술교육, 미래대응역량 제고	13	2

분야	내용	추가의견	빈도	1순위
	지원사업			
	1-14. 장애인 자립·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국가적 지원체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완 필요	10	4
	1-15. 어르신 학습활동 지원	초기 노인에서 후기 노인까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	10	1
	1-16.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	11	5
	1-17. 화상교육·쌍방향 학습플랫폼 구축·운영	-	9	1
4. 전달체계 거버넌스	1-18.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운영	서울 내 대학의 온라인 콘텐츠 연계, 국가(혹은 지자체) 이력관리시스템 연계	15	4
	1-19.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지도 제공	지자체 교육자원, 정책사업 등에 대한 총체적 재구조화 등	16	9
	1-20. 시·구·동의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비	복지관, 문화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유관시설간의 연계	16	8
	1-21.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운영	비문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동	11	1
	1-22. 평생학습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 정책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12	4
	1-23. 지역 평생학습컨설팅 서비스 제공	-	10	0
	1-24. 평생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	10	3
	1-25. 평생학습문화 대중화·저변 확대	-	10	5

- ‘시민교육, 실천학습’ 영역에서는 기관(기업) 연계 시민대학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8명이 1순위 과제로 응답하였음. 이어 대학연계 시민대학,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가 14건, 지역활동가 역량강화는 13건으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시민대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일상학습, 학습문화’ 에서는 문해교육 운영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7건, 1순위 빈도가 9건으로 가장 많았음. 특히 문해교육 운영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 등 생활문해를

비롯해 문해교육기관의 존속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어 동네배움터가 16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14건의 순으로 뒤를 이음. 동네배움터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전환학습, 연계학습’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활력 지원과 서울시 인생학교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6건, 15건으로 가장 많았음. 1순위 빈도 기준으로는 서울시 인생학교가 9건, 미취업 청년 활력 지원이 6건으로 집계되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직업능력 향상 외에도 도전적 진로설계, 자아정체성 회복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서울시 인생학교의 경우, 스터디서클 등 인문역량 강화와 삶과 일의 의미를 탐색하는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전달체계,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도 제공, 시-구-동 평생교육전달체계 정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순위 빈도 기준으로는 수요자 중심 학습지도 제공이 9건, 시-구-동 평생교육 전달체계 정비가 8건으로 집계되었음. 특히 시-구-동 전달체계 정비의 경우 복지관, 문화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지역의 유관인프라와의 연계, 활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IV-15>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2021)’ 중 추가해야 할 과제(2차)

분야	내용	빈도	1순위 빈도
1. 시민교육 실천학습	1-1.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위한 시민주도형 실천교육 활성화 공공아젠다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문제해결형 워크숍 등)	16	8
	1-2. 주민자치학교,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주민활동가 양성 주민활동가의 활동 범위 확대 등 지원	16	7
	1-3. 산업별 노조 등 근로자 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직업훈련 사각지대 근로자 역량교육	12	1
	1-4. 실무실습을 위한 학습경험 증강 프로그램	12	2
	1-5. 성별/세대간/지역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	15	9
2. 일상학습 학습문화	1-6. 학습휴가제 도입(중소기업 학습휴가제 시행 보조금 지급 등)	16	5
	1-7. 일상학습을 위한 소규모 학습(학습동아리 등) 지원	13	5
	1-8. 비형식·무형식 학습-형식교육간 연계체계 마련	11	2
	1-9. 전문과정 인증, 학습상담, 학습바우처 등 지원시스템 고도화	15	4

분야	내용	빈도	1순위 빈도
	1-10. 개인 단위의 학습콘텐츠 생성. 유통, 활용 지원	15	3
3. 전환학습 함께학습	1-11. 전환기 학습 등 학습동아리 활성화(학습공간, 콘텐츠 지원 등)	17	8
	1-12.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나노디그리 등 지자체 인증체제 마련	15	3
	1-13. 대학 등 지역 교육기관간 네트워킹, 자원 공유 등	14	5
	1-14. 탈북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가정 등 취약계층 가족 지원	14	6
4. 전달체계 거버넌스	1-15. 정부-지자체-교차체간, 교육-복지-노동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14	7
	1-16. 동(洞)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추진체계 확대	15	4
	1-17. 학습경로, 학습양식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13	5
	1-18. 복합 학습공간 마련(스튜디오, 공유주방, 공연장 등과 결합한 학습시설 등)	14	4

- ‘시민교육, 실천학습’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워크숍 등 시민참여, 시민주도형 실천 교육, 주민자치학교 등 주민활동가 양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음. 1순위 빈도 기준으로도 시민주도형 참여교육이 8건, 주민활동가 양성이 7건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일상학습, 학습문화’에서는 학습휴가제 도입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프로그램 인증, 학습상담, 학습바우처 등 지원시스템 고도화와 개인 단위 학습콘텐츠 생성·유통·활용 지원이 15건으로 뒤이어 나타남. 1순위 빈도 기준으로는 학습휴가제 도입이 5건으로 가장 많았음.
- ‘전환학습, 함께학습’에서는 전환기 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가 1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1순위 빈도도 8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우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러닝 등 지자체 차원의 온라인 학습플랫폼과 인증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건으로 집계되었음. 1순위 빈도 기준으로는 탈북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가존 지원 프로그램과 대학 등 지역교육기관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 6건, 5건으로 집계되었음.
- ‘전달체계, 거버넌스’에서는 동 단위 추진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순위 빈도 기준으로는 정부-지자체-교차체/교육-복지-고용의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건으로 가장 많았음.

□ 주요 타겟그룹과 지원방안

<표 IV-16> 연령별 지원방안(2차)

분야	내용	평균	CVR	수렴도
20-30대	자아정체감 형성, 사회 변화의 이해, 진로관련 직·간접 체험 등 청년 인생설계 교육	4.71	0.88	0.00
	청년 재직자의 직장적응, 소통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3.65	0.18	0.50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창업을 위한 교육 지원	3.47	-0.18	0.50
	비정규 근로자, 니트족, 1인가구, 고시원 생활청년 등 학습소외계층 교육 지원	4.76	0.76	0.00
40-50대	이·전직, 실직, 은퇴 등에 대비한 생애전환기 학습 (자기정체성·일의 의미 탐색 등)	4.71	0.88	0.00
	자녀양육 등 부모교육,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교육 등	4.12	0.41	1.00
	지역사회 활동 증진을 위한 학습 네트워킹	3.88	0.29	1.00
60대	치매예방 등 건강교육 활성화	4.06	0.65	0.00
	생활밀착형 작은 일자리 참여 증진	4.47	0.76	0.50
	인생선배로서의 멘토링, 세대간 공동체 교육 등	4.12	0.65	0.50
70대 이후	복지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	4.47	0.88	0.50
	죽음준비 등 웰다잉에 대한 교육	4.29	0.65	0.50

- 세대별 지원방안의 중요도에 대해 묻는 문항(5간 척도)에서 20~30대는 비정규직, 니트족, 1인가구, 고시원 생활청년 등 학습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이 4.76으로 가장 높았고 청년 인생설계 교육이 4.71로 나타났음.
- 40~50대는 이·전직, 실직, 은퇴 등에 대비한 생애전환기 학습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60대는 생활밀착형 작은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 지원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70대 이후는 복지정책과 연계한 교육지원이 4.47로 가장 높았음.
- 그 외 기타 주요 타겟그룹과 그 지원방안의 중요도에 대해 묻는 문항(5간 척도)에서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29로 높았으며 저소득층은 복지정책과 연계한 자활 지원이 4.35, 소상공인·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직업교육 사각지대 근로자의 직무역량 교육이 4.35로 높게 나타났음.

<표 IV-17> 기타 주요 타겟그룹과 지원방안(2차)

대상	내용	평균	CVR	수렴도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29	0.41	1.00
	독립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자립교육 (생활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	4.18	0.65	0.50
저소득층	복지정책과 연계한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4.35	0.65	0.50
1인가구	1인가구별 맞춤형(소득수준별/세대별/직종별 등)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소외·우울감 해소 등)	4.06	0.41	1.00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직무역량 교육(직종별 안전교육, 경영교육 등 포함)	4.35	0.65	0.50
경력단절여성	숙련 여성기술인 발굴, 일자리 연계 등	3.88	0.18	1.00

□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문항(5간 척도)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학습결과 활용, 일자리 연계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동,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행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00으로 높게 나타났음.

#### 4. 시사점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기관 관계자 및 정책 당사자 초점집단면담에 대한 시사점

- 첫째, 기존의 고용지원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찾게 되는 ‘고용센터’는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공 플랫폼임. 면담 결과 ‘고용센터’를 이용해 본 결과, 고용보험 지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 노력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만 평생직업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이용자들이 느끼기

에 ‘고용센터’의 경험은 ‘스트레스’ 혹은 ‘시간 낭비’, ‘허송세월’, ‘난관’, ‘좌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계가 있음. 시민들은 퇴직자가 겪게 되는 ‘막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본 정보나 소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 퇴직자들이 고용분야에서 제공받는 프로그램 또한 비효율적이고 평함. 구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즉각적인 기술, 예를 들어, 면접 보는 방법, 이력서 쓰는 방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구직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됨. 그러나 해당 교육이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기관에서 중복 운영되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해 시민 입장에서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국비 지원 프로그램도 취업에 유리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국비를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 외 세대가 전직이나 이직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도리어 이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설되지 않고 무리하게 운영기간을 늘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구직을 위해 직업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시민 입장에서는 본인 돈을 들여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생활권의 공공시설에서 개설되는 평생직업교육을 수강했을 경우, 구직보다는 취미교양, ‘시간 때우기’ 목적으로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수준의 강의가 운영되므로 무료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보임.
- ◆ 실망스러운 고용지원 정책은 도리어 전직이직 의욕을 떨어뜨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보임.

○ 둘째, 시민들의 직업 전환 과정에 종합적이면서도 일대일 수준의 개인 맞춤형 코칭, 상담, 교육이 필요해 보임.

- ◆ 기존의 고용지원 정책에서 고용보험 수급 단계에서 ‘상담’이 이뤄지지만, 그 대상으로 전직/이직을 위한 수요자보다는 고용보험 수급자로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 ◆ 반면, ‘50 플러스 사업’이 현실적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단순 취업 재개보다는 상담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인생 재설계’를 가능했다는 것임.
- ◆ 특히, 기존에 정책적으로 소외되거나 다른 경제활동인구와 동일하게 분류되었던 중장년층을 ‘50플러스’로 호명하고, 그들의 원하는 욕구에 맞게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서울시 관내만 보더라도 원스톱 포털 서비스(‘우먼업’)와 광역단위의 여성능력개발원, 권역별 여성발전센터, 자치구별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정책 대상에 인지도 높음
- ◆ 프로그램 운영도 학습자에 대한 사전 진단과 학습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연계해 제공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경제적 이유로 생계 해결을 위한 대상에 맞춰진 전일제 강의만 운영되어 30~40대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맞지 않음.
- ◆ 직업 상담 또한 당사자의 필요나 이전 경험에 근거해 이뤄지기보다는 즉각적 생계를 위한 직업 획득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에 ‘시간 낭비’나 잘못된 진로 설계를 자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셋째, 단순 직업교육이 아닌, 생애설계 및 직업기초교육부터 취업 후 적응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함

- ◆ 기존의 직업교육은 ‘교육’과 ‘취업’이라는 두 단계에 개입하는 한계가 있고, 성과 자체도 교육 후 취업 현황에만 초점을 맞춰 관리되고 있음.
- ◆ 50플러스재단의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채용)가 확정된 경우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고, 수요 지향적으로 채용예정 기관의 전문가가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참여하며, 취업의사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정책대상을 사전 선발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 방식은 일반 시민의 보편적 참여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허수를 제외하고 일자리를 원하고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시민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실질적 수요자에게 적합한 교육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
- ◆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새일센터)은 직업훈련이 단순 교육에서 멈추지 않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취업 여부 모니터링, 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 알선, 구직 실패 및 중도 탈락 대상자에 대한 응원지지 등의 사후관리를 충실히 진행해, 사업 효과 및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 평생직업교육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으로 완료되지 않고, 새일센터 사업과 같이 적어도 1년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할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넷째, 개개 학습자에게 가치 높은 정보의 제공, 학습지속을 위한 상호 격려, 동료 학습

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타자의 체계적 연결 필요

- ◆ 면담자들이 학습 참여 계기나 필요한 프로그램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 동료 학습자를 공동적으로 언급함.
- ◆ 새로운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전의 학습경험을 공유하고 학습자 간 상호교류가 활발했던 관계망의 경우, 학습자 서로가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돌봄으로써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작동함.
- ◆ 경력단절 여성들은 직업교육과 관계 없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동료 학습자를 통해, 직업교육과 향후 진로,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습득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열어가고 있음.
- ◆ 중장년 학습자들은 ‘50 플러스 사업’의 효용에 대해, 비슷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중장년층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동아리나 커뮤니티를 구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직업교육과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조언·격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했다고 평가함.

####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정책의 비전과 주요과제 도출을 위해 2차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중점과제로 직업적 전환기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일상 회복을 위한 공동체 교육, 교육-복지-고용의 통합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 직업적 전환기 교육

- 직업적 전환기 교육과 관련하여 청년층에게는 단순히 기술 중심의 직무교육 차원을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인생설계를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년층에게는 이·전직, 은퇴 등 직업적 전환기에 대비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삶과 일의 의미를 탐색하는 사회정서적 지원을 강조함.

####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델파이조사 결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사회의 적응을 위해 일반 시민의 생활문해 지원과 관련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특히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통적인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관의 존속을 위한 지역 교육자원(시설, 인력 등)의 공유·연계를 강조하였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생태계 등 서울시의 비전 2030 등과 관련한 사회변화 적응을 위해 사회적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공동체 복원

-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고독과 우울의 해소, 사회적 관계망의 재건 등을 위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특히 인문교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일상적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와 관련해 인문교양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일상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기관(시민대학, 동네배움터, 인생학교 등)을 비롯해 온라인학습플랫폼 등 학습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온라인 학습의 경우에도 생활권을 중심으로 온라인학습을 위한 전용시설, 학습기기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 교육-복지-고용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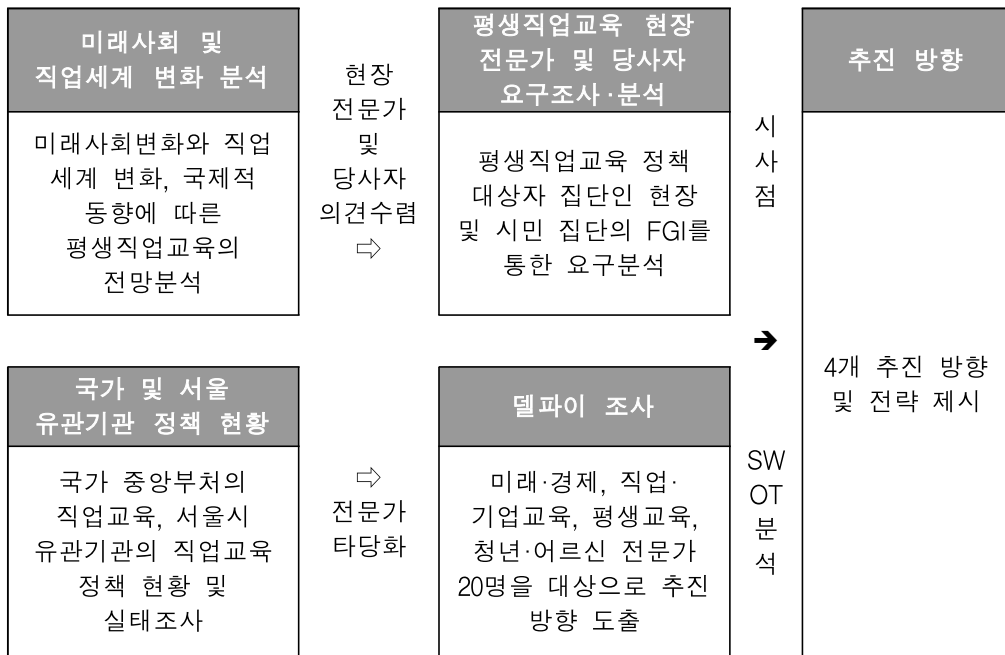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의 추진체계로는 교육-복지-고용의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함.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역 산업구조(로컬브랜딩 등), 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직무설계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작은 일자리 등 지역사회 참여, 복지정책과 연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평생교육,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으로 분리된 서울시의 평생직업교육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등 제도적 근거에 따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V.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방향 및 전략

## 1. 추진 방향 도출 개요

### 가. 도출 과정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방향 도출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 분석’, ‘국가 및 서울시 등의 유관기관 정책 현황 조사’, ‘관련 분야 현장 전문가 및 정책 대상자 요구조사·분석’, ‘델파이 조사’ 순으로 이루어짐.
- 각 영역별 분석 결과는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거시적·미시적 환경의 SWOT 분석을 통해 추진 방향과 전략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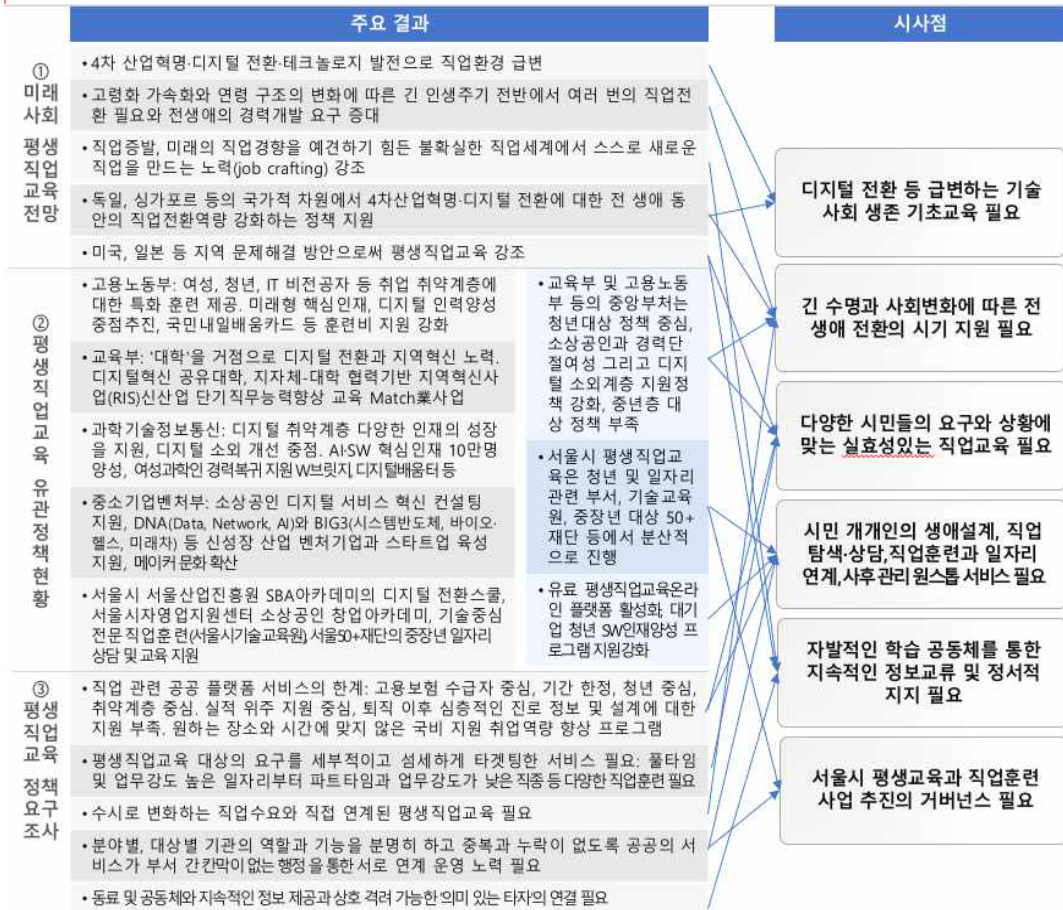


[그림 V-1]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방향 도출 과정

## 나. 영역별 주요 결과

○ 미래사회 평생직업교육 전망, 국가 등의 평생직업교육 유관정책 현황,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평생직업교육 정책요구조사 각 영역별 주요 결과 분석을 통하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①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기술 사회 생존 기초교육 필요
- ② 긴 수명과 사회변화에 따른 전 생애 전환의 시기 지원 필요
- ③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실효성있는 직업교육 필요
- ④ 시민 개개인의 생애설계, 직업탐색·상담,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사후관리의 원스톱 서비스 필요
- ⑤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정서적 지지 필요
- ⑥ 서울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사업 추진의 거버넌스 필요



## 다. 추진 방향에의 시사점

###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환경의 SWOT 분석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시 거시적 환경에서의 기회와 위기, 미시적 환경에서의 강점, 약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미시적	강점(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의 전 생애 시민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역량</li> <li>- 미래 필수적인 핵심기본직업역량(소프트스킬) 교육에 대한 이해</li> <li>- 서울의 풍부하고 폭넓은 기업 및 산업, 대학 등 직업교육 인프라</li> <li>- 서울시의 대상별 세분화된 다양한 직업교육 정책</li> </ul>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행 역량 부족(전담부서 부재)</li> <li>- 서울시의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문화교육, 시민교육 정책</li> <li>- 전 시민 대상의 교육-일자리 연계 서비스 부족</li> <li>- 서울시의 일자리,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단절된 정보 제공</li> </ul>
	거시적	기회(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역량 요구 및 교육 수요 증가</li> <li>- 수명 연장 등으로 긴 인생주기 전반에서 경력전환 요구 증대</li> <li>- 국제적으로 디지털전환 대응, 전 생애의 직업전환을 위해 직업역량 교육과 평생교육의 통합연계 경향</li> <li>- 지역 문제해결 방안으로써 평생 직업교육 서비스 강조</li> </ul>	위협(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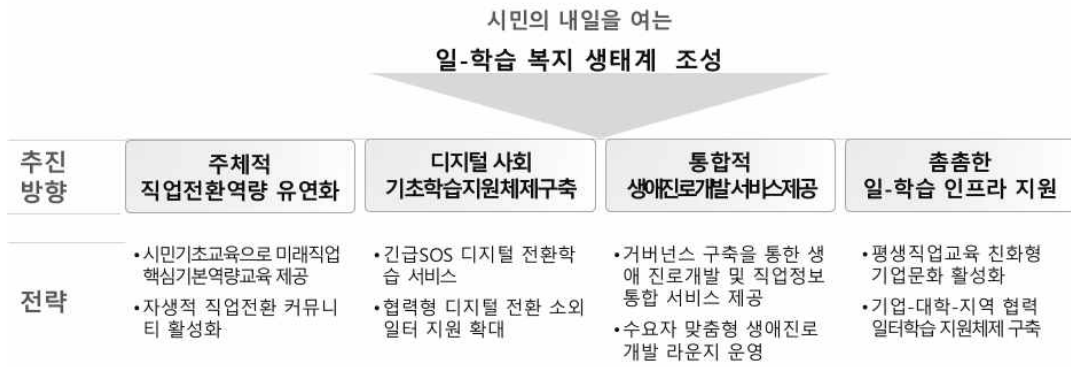
[그림 V-3]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 □ 시사점: SWOT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 SO 전략1: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기술 사회의 적응할 수 있는 기초교육 제공
- SO 전략1: 불확실한 미래의 직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핵심기본역량(Soft skills) 강화
- ST 전략: 긴 수명과 사회변화에 따른 전 생애 주체적 전환 능력 강화 지원
- WO 전략: 시민 전 생애의 직업진로 설계·교육·정보 통합 지원체제 구축
- WT 전략: 지역의 공공과 민간 영역 협력을 통한 교육-복지(돌봄)-일자리 연계체계 마련

## 2. 추진 방향 및 전략

### □ 추진 방향 및 전략 요약



[그림 V-]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방향 및 전략(안)

- ◆ 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의 큰 방향성은 ‘시민의 내일을 여는 일-학습 복지 생태계 조성’ 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시민의 미래 준비를 촘촘히 지원하는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 ※ ‘내일’ 은 ‘내일(來日)’ 의 한자 의미대로 서울시민의 미래를 뜻하며,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일(work)을 뜻함.
- ◆ ‘시민의 내일을 여는 일-학습 복지 생태계 조성’ 의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다음 4가지로 제안함.
  - 주체적 미래 직업전환역량 유연화
  - 디지털 사회 기초학습지원체제구축
  - 통합적 생애진로개발 서비스제공
  - 촘촘한 일-학습 인프라 지원

## 추진 방향 1

## 주체적 미래 직업전환역량 유연화

<p>전략1. 시민초교육으로 미래직업 핵심기본역량 교육 제공</p>	<p>불확실한 미래의 직업 환경에서 유연한 전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미래 핵심기본역량(Soft skills)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기관 협업 및 콘텐츠 연계를 통한 생애주기별 핵심기본역량 교육과정 개발</li><li>- 직업교육훈련 기관 협력을 통한 하드스킬과 소프트스킬 통합적 직업교육 운영체제 구축</li></ul>
<p>전략2. 자생적 직업전환 커뮤니티 활성화</p>	<p>시민 스스로 직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일을 탐색하고 전환할 수 있는 자생적이고 능동적인 온·오프 연계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새로운 일에 대한 탐구와 전환을 위한 시민 커뮤니티 지원체제 구축</li><li>- 구조화된 교육과정 중심이 아닌 자생적·능동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li></ul>

### 가. 현황 및 요구

- 국내외 경제전문기구의 미래직업사회 핵심기본역량으로 소프트스킬 강조
    - 국내외 경제전문기구(포브스, 2019; 세계경제포럼, 2015, 2020; 한국고용정보원, 2020)는 미래사회 핵심직업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 변화수용 자세, 문제해결능력 등의 소프트스킬 강조함.
    - OECD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인재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 책임감, 긴장·딜레마 대응’ 등의 소프트스킬을 제시함.
  - 서울시 직업교육은 대부분 기술 중심의 하드스킬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
    - 청년대상 직업교육인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소프트스킬 교육을 일부 진행하나, 일반 시민 대상 직업교육기관에서는 하드스킬 교육만을 진행함.
  - 인생 주기 전반에서 직업전환에 대한 요구 증대
    - OECD(2019)의 미래직업기술교육2030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인생주기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
    - 수명 연장에 의한 여러 번의 직업 전환의 시대 도래함.
- ※ 중·고령기로 갈수록 직업전환에 대한 준비의 필요 증가(Gratton, 2011). 일본사회변화에 따른 직업전환 추이 연구(가치히로, 2019)는 앞으로 직업전환이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측.

○ 다양한 주제의 자발적 학습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 자기개발, 취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과거 교육과정 중심의 평생학습생태계가 자발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평생학습생태계로 변화해감.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사례: 온라인 모임 매개 플랫폼 ‘소모임’ · ‘문토’, 인문학과 문화예술 공동체 플랫폼 ‘문래당 1063’, 독서모임 플랫폼 ‘트레바리’, 온·오프라인 운동 커뮤니티 플랫폼 ‘버핏서울’

나. 전략 구현 방안

○ 미래사회 생존에 필수적인 직업 기초능력 강화 교육과정 개발

- 역량기반 미래사회 직업 기초능력 교육과정 연구

- 국내외 미래사회 기초능력 조사 결과 우선순위 기본교육과정 도출
- 생애주기별 핵심기본역량 도출내용 토대로 한 표준 소프트스킬 교육과정 개발

<미래직업 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위기대처능력	대응력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조적 논리적 사고로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위기상황이 예상되거나 피해 외중에도 문제를 침착히 극복해나가는 능력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 능력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

※ 출처: 박가열 외(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직업능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중

- 대학-교육전문기관-기업체 협력 ‘미래사회 기초능력 교육과정’ 콘텐츠 연계 개발 및 발굴

- 온라인 교육전문기관 및 MOOC 등 소프트스킬 관련 교육 콘텐츠 연계 협력
- 생애주기별 핵심기본역량에 맞는 교육 콘텐츠 큐레이션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애주기별 핵심기본역량 교육과정 체계적 운영

- 통합적인 미래 직업교육에 요구되는 신생기술 관련 하드스킬 교육과 소프트스킬의 통합성과 연결성 도모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

- ‘(가칭)미래직업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교육과정 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미래직업교육 특화-심화-공통 교육과정 운영협력체제 구축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미래직업 핵심기본역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전 세대의 생애주기별 소프트스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시교육청, 서울시민대학, 50+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의 유관기관 협력 구축

○ 자생적 잡 트랜스포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 다양한 일 주제 중심의 사람과 사람을 온·오프 상태로 연결하는 매개 시스템 구축
-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민 요구에 민감한 개방형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규약 마련
- 회원 정책, 커뮤니티 플랫폼 사용 규약, 공개 및 비공개 커뮤니티별 개인정보 관리 및 운영 정책 등

○ 다양한 주제의 잡 트랜스포머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자발적인 다양한 일 주제별(지정주제, 자유주제) 커뮤니티 공모·선발
- 100개의 새로운 주제와 1000명의 잡 트랜스포머 공모전
- 신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한 독려 지원체제 구동
- ‘(가칭)삼삼오오’ 지원: 3인 이상이 3번의 모임을 한다면 5개월 동안 매달 5만원 모임 운영비 지원 등

○ 복잡다단한 커뮤니티 단계별 성장 지원

- 커뮤니티 성숙 단계별(운영 연차, 참여도 등) 및 문제 상황별 컨설팅 지원
- 찾아가는 멘토, 커뮤니티 진단 컨설팅, 커뮤니티 팀빌딩 퍼실리테이터 파견 등
- 커뮤니티 활성화 툴킷 개발 및 배포

○ 잡 트랜스포머 커뮤니티 문화 공유·확산

- 다양한 커뮤니티의 주제와 과정 아카이빙 체제 구축
- 커뮤니티 관련 공유 자료 수집 및 제공, 자발적인 커뮤니티 자료실 활성화
- 커뮤니티 다양한 활동 자료 공모 및 공유회
- 커뮤니티 온라인 기록전시, 커뮤니티 파트너 페어 등

## 추진 방향 2

## 디지털 사회 상시적 기초학습지원체제 구축

<p>전략1.</p> <p>긴급SOS 디지털 전환학습 서비스</p>	<p>일터 및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사회의 기술 활용 능력과 문화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능력을 기르는 기초교육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누구나 일터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역량교육 지원체제 강화</li> <li>- 급변하는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른 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안전망 구축</li> </ul>
<p>전략2.</p> <p>협력형 디지털 전환 소외 일터 지원 확대</p>	<p>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확대를 소규모 일터 학습 복지의 격차 해소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처 및 유관부서 유사 사업 협력을 통한 소규모 직장의 근로자 디지털 역량개발 제도 지원 확대</li> <li>- 서울시 공공 평생교육시설 어디서나 소규모 일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 교육 지원</li> </ul>

### 가. 현황 및 요구

-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에 대한 시급한 기술전환교육의 필요성 증대
  - 디지털 기기 사용능력 외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민 존재함.
    - ※ 전통적인 디지털 비문해자였던 노년세대 외에도 다양한 세대 내에서 ‘메타버스, 핀테크, NFT 등’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과 문화 적응을 힘들어하는 시민 증대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과정 전환으로 평생교육기관 강사의 시급한 디지털 전환 교육 필요성 부각
- 디지털 기초교육의 내용과 대상의 한계, 디지털 사회문화 등의 포괄적 교육 필요
  - 어르신 대상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임.
    - ※ 과기정통부 ‘디지털 배움터’, 서울디지털재단 ‘노노(老老)케어’방식의 어디나 지원단을 활용한 키오스크, 사물인터넷(IOT), 로봇, 무인점포 체험교육 시행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언어나 태도, 금융거래제도, 윤리의식 등에 대한 디지털 사회문화 교육 등 필요

○ 직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학습기회 제한

-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터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숙련기술 개발 한계

※ 일터 비형식 직업교육훈련 조사(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 결과,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직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 보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비형식 교육훈련 참여율이 평균 이하로 내려가고 있음.

○ 독일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취약 산업 분야 근로자 역량 지원 정책 시행

※ 독일의 디지털 AI 학습 온라인캠퍼스 ‘KI Campus’ : 디지털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제조업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마련. 프로젝트 참여하며 실질적인 학습가능, 디지털 전환이 취약했던 제조업 근로자 지원에서 전 국민이 AI 관련 학습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확대됨.

## 나. 전략 구현 방안

○ 다양한 세대 요구 맞춤형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 중앙부처와 서울시 유관 부서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필요역량 맞춤형 1:1 대응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숨고(Soomgo), 탈잉 등 전문가 1:1 매치형 학습 서비스 플랫폼 형태의 ‘(가칭)서울시민 디지털 긴급SOS 학습브릿지’ 구축

- 디지털 관련 시민 재능자원봉사단 활용 등을 통해 상시 디지털 학습 전문가 풀 구축

• ‘(가칭)디지털 긴급SOS 학습브릿지’ 플랫폼과 연동하여 ‘(가칭)긴급SOS 디지털학습봉사지원단’ 발굴·양성을 통한 전문가 풀 구축

- 시민 역량 및 요구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 (예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역량진단(활용/소양/예방/참여) 및 관련 교육 추천 시스템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관계자 연수

•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3차원의 학습공간 운영, 스마트 학습기구나 프로그램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활용한 직업전문 교육 제공 등

○ 디지털 세상의 법, 문화, 언어, 윤리 등 디지털 시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디지털 시민성 연구 및 관련 이슈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

- 디지털 안전 및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 증진을 위한 기본교육과정 운영 확산

※ (예시) 서울시민대학 디지털시민대학 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과정 등

○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조사 및 모니터링

-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조사 도구 개발 및 관련 조사 연계 실시

-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조사 및 모니터링 연계사업 추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 역량진단’ 활용 연계 분석
- 정기적인 관련 조사 실시 → 분석 및 모니터링 → 관련 정책수립

○ 소규모 직장 대상 전문적인 디지털 역량교육을 위한 학습바우처 지급 확대

- 학습바우처 지급대상을 소규모 일터 근로자로 확대하여 원하는 디지털 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성인근로자 장학금 제도로 전환하여 지원

○ 소규모 일터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학습휴가제 지원

- 특정 기간동안 디지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학습집중기간 제공

- 희망 근로자의 학습휴가제 활용 지원을 위한 인력 파견 및 인건비 등 관련 제도 지원

○ 찾아가는 일터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제공

- 소규모 사업장 등의 교육기관 접근성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일터 요구 진단 → 관련 전문가 배치를 통한 소규모 디지털 전환 교육 제공

○ 일터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학습을 위한 1:1 온라인 학습 지원

- 온라인 디지털 전문교육기관 협력을 통한 1:1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

**추진 방향 3**

**통합적 생애진로개발 서비스 제공**

<p>전략1.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생애진로개발 및 직업정보 통합서비스 제공</p>	<p>생애전환기 시민에게 일-학습의 체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 관련 유관부서 협력체제 마련으로 진로설계 및 교육 등의 진로개발과 관련 직업정보의 연계·통합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시민 생애전환기의 진로설계 및 교육 등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수요맞춤형 진로개발 정보 제공</li> <li>- 시민이 원하는 평생직업교육 정보가 한곳에서 서비스되도록 진로설계 및 교육, 일자리 관련 정보사이트의 상호 연계 체제 구축</li> </ul>
<p>전략2. 수요자 맞춤형 생애진로개발 라운지 운영</p>	<p>다양한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시민 주도적인 진로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의 장 조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애진로개발 관련 정보의 탐색과 공유 환경 조성</li> <li>- 일상 공간에서의 진로개발 상담과 컨설팅 접근성 강화</li> </ul>

**가. 현황 및 요구**

- 국가단위 및 서울시 유관기관의 다양한 진로개발과 직업정보 서비스 제공
  - 중앙 부처의 커리어넷, 워크넷, HRD-net 등
  - 서울시 유관기관의 일자리포털, 50+포털, 어르신취업지원센터, 평생학습포털, 서울런 등
  
-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시민 모두에게 열린 맞춤형 서비스 부족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직업정보가 분절적으로 제공됨.
  - 직업교육 및 취업 서비스 수혜 자격기준 등으로 모든 시민의 평생직업교육 요구를 포괄하지 못함.
  
- ※ 고용센터가 알려진 워크넷 등은 고용보험 수급 기간이 지나면 국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나 고용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정책 당사자 FGI 내용 中)

- 청년 등 대상의 진로절계 및 일자리 상담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 확대
  - 서울시 청년센터, 일자리 카페 등 직업진로개발 관련 커뮤니티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특성 세대 또는 대상 중심. 전 세대를 위한 확대 필요
  
- 시민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커뮤니티 경험 축적과 시민의 세분화된 생애진로교육 요구 등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단위를 선호함에 따라 관련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 증대 예측됨.

## 나. 전략 구현 방안

- 생애진로개발 통합 정보제공 및 운영체제 구축
  - 시민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시민유형별 필요정보 수집 및 분류, 제공 서비스 방안 연구
    - 유관 서비스 연계 통합 체제 분석
    - 평생직업교육 정보의 통합 분류체계 및 서비스 방안: 시민 필요 민감형 정보 큐레이션 및 정보 매칭을 위한 사용자 화면 설계 방안 등
  - 평생직업교육 관련 부서 및 기관, 자치구 시스템의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 통합 정보 서비스 체계에 따른 관련 플랫폼 연계 서비스
  - 유관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강화와 민관협의체 구축
    - 평생직업교육 정보 수집·공유 및 협력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관련 정보 수집 정례화: 생애주기별 생애진로교육 시민 요구조사(격년 단위) → 관련 프로그램 정보 수집(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조사 연계)
  
- 수요자 유형별 맞춤 생애진로개발 서비스 지원
  -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이용을 통한 개인별 진로개발 요구 진단 및 맞춤 서비스
    - ※ (예시)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진로심리검사도구
  - 맞춤형 정보 기반의 개인 역량 진단 및 상담과 교육훈련-취창업 등 고용 연계가 가능한 교육-일자리 연계 지원시스템(안) 마련
    - ‘역량 및 요구진단 ⇨ 심층상담 ⇨ 직업교육훈련 실시(직업 유지 또는 고용연계) ⇨ 사후관리(성과평가 및 피드백)’ 관련 지원체계 및 운영시스템 구체화

○ 지역별 진로설계 정보 제공 공간 ‘라이프 디자인 라운지’ 조성·운영

- 일상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생애주기별 진로설계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공간 조성 및 운영

- (1단계: 권역별 조성)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50+캠퍼스 등의 기존 시설의 일부 공간 리모델링, 관련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해 권역별 ‘라이프 디자인 라운지’ 조성 및 운영
- (2단계: 자치구 확대) 자치구 평생학습관, 50+센터, 동네배움터 등의 시설 지정 지원으로 관련 공간 조성 및 운영

- 라운지 안의 ‘라이프 디자인 서재’ 운영을 통해 (미래기술, 직업 등) 관련 도서 및 큐레이션된 맞춤형 정보 제공

○ 개인별 생애진로 ‘정보 탐색-진단/상담-컨설팅’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시민 개개인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상담과 컨설팅 제공

○ 다양한 주제의 진로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라이프 디자인 라운지’가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진로개발 환경이 되도록 관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진로개발 커뮤니티 발굴 및 신규 조직화 지원(공간 및 활동 활성화 지원 등)
- 진로개발 커뮤니티 전시회, 커뮤니티 데모데이, 창직 해커톤 등 다양한 진로설계 커뮤니티 공유 및 이벤트 운영

**추진 방향 4**

**촉촉한 일-학습 인프라 지원**

<p>전략1. 평생직업교육 친화형 기업문화 활성화</p>	<p>평생학습 친화형 기관(기업) 인증 등 일터에서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일-학습-여가가 선순환되는 일터 생태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터 근로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기관(기업)의 책무성 강화</li> <li>- 일-학습-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일터 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생애 경력개발 기반 제공</li> </ul>
<p>전략2. 기업-대학-지역 협력 일터학습 지원체제 구축</p>	<p>급변하는 지역 인구 및 산업 변화 시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지역 일터학습 지원체제 구축으로 지역-대학-기업의 동반 성장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기업(산업기관)-자치구의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협력 추진 체제 구축</li> <li>- 일터학습 지원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대학과 지역 평생직업교육 자원 연계 제공</li> </ul>

**가. 현황 및 요구**

- 평생교육법의 학습휴가제 규정이 있으나 적극적 활용 부재
  - 평생교육법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의 일터 현장 적용 필요
    - ※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상시적인 학습 요구 증대
  - 기업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직원의 학습을 상시적으로 요구, 반면 임직원은 일과 여가의 균형, 이른바 ‘워라벨(WLB)’를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인생의 세 상자(Three Boxes of Life): 교육-일-여가’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원체제 강조됨.
- 국내외 지역-대학-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 확대
  - 핀란드 남서부지역 ‘FITech’ 기술네트워크 대학은 지역산업니즈에 적합한 고등교육 실시, 지역일터 근로자를 양성하고 일반 시민에도 직업교육 실시

- 국내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RIS'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수도권 대상),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R&D 중심) 등이 유사하게 추진됨.

○ 서울의 기업 규모별로 평생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일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지원이 요구됨.

## 나. 전략 구현 방안

○ 일-학습 연계의 평생직업교육 친화형 기업 인증체제 구축·운영

- 서울시 평생학습친화형 기관 인증체제 개발 연구 및 시스템 구축

• 서울시 평생학습 친화형 기관 인증모형 및 평가지표, 활용방안 등에 관한 연구

※ (예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기업 인증

• '공고-평가-인증-활용/모니터링' 의 안정적 인증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운영

• 인증 상담·컨설팅: 인증제도 상담 창구 운영, 인증 준비 기관 1:1 컨설팅

- 인증체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예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중심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협력체제 구성하여 추진

- 평생학습 친화형 인증 기관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확산 홍보

• 평생학습 친화형 기관 사후 관리: 정기적인 실태분석 및 모니터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 평생학습 친화형 인증 제도에 대한 기관(기업) 인식 확대 및 홍보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관계기관 설명회, 포럼 연계 기관 시상식 등

• 학습휴가제 운영, 학습비 지원 등 평생학습친화형 사업운영 사례 발굴·확산

○ 중소기업 직장인 학습 휴가제 확산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학습 휴가제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전문 기관 협력 하의 중소기업 근로자 학습 휴가제 지원 제도 정책 연구

• 중소기업 학습휴가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역할 분담

• 참여 중소기업 대상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개발 및 시범운영

- ※ 학습휴가로 발생한 빈 일자리를 청년층 시간 선택형 일자리로 대체하는 등 기존 제도 매칭형 재정 지원 방안 검토(평생학습 친화형 인증기업 사업 연계 등)
- 중소기업 학습휴가제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협의체 운영
  - 참여 중소기업 사례 분석 및 정책 효과 모니터링
  - 정기적인 협력 기관 정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계부처 및 인증기관 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확산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등 활성화 지원책 개발·운영
- 중소기업 종사자 필요기술 관련 자치구-대학 협력기반 ‘(가칭)커뮤니티 평생직업대학’ 클러스터 조직·운영
  - 권역별 커뮤니티 평생직업대학 클러스터 사업 모델 개발 및 공모
  - 권역별 자치구-대학-기업(산업) 자원에 따른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 컨설팅
    - ※ (클러스터 추진체제 구축 예시): 교육부 RIS 사업, 지역협업위원회(심의의결기구:사업계획확정)-총괄운영센터(총괄 실행기구:사업분야, 역할분담 사업추진행정)-실행기구(지자체부서, 총괄대학, 중심대학)
  - (프로젝트 기반) 커뮤니티 평생직업대학 교육체제 개발 및 운영
    - 급변하는 사회 및 기술,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민감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체제 개발 및 운영
    - ※ (예시) 핀란드 FITech 교육체제: 지역-기업(노동조합)-대학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되, 교육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들이 계획과 동시에 실행되는 방식(doing and planning simultaneously)
- 지역 특화 영역별 중소기업 종사자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지역권역별 참여기업 수요별 관련 민·관 전문교육기관 협력 직무역량 교육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미래경쟁력을 증진하는 교육 개발 및 운영
- 소규모 일터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 구축
  -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이 원하는 교육 1:1 매칭형으로 개발하여 제공
  - 지역권역별 평생학습시설의 공간이용, 프로그램 수강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미래에셋대우(2016). 4차 산업혁명 산업지도: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 서울: 미래에셋대우.

박노동(2016).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대전세종연구원.

박상철, 고준, 류성열, 윤혜정(2021). 디지털노동의 외부화: 개념, 주요 이슈, 그리고 연구 제안. 2021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자료집, 456-462.

박상철, 이용규(2019). 문헌 고찰을 위한 근거이론방법의 활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그림자 노동 개념 도출. 지식경영연구, 20(2), 183-195.

석보라, 김활빈(2019). 유튜브 1인 미디어 뷰티 채널의 이용 동기가 채널 평가, 제품 태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1(4), 168-198.

위키백과(2017). MOOC. <<https://ko.wikipedia.org/wiki/MOOC>>에서 2017년 6월 12일 인출.

위키백과(2020). 탄소발자국. <[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86%8C\\_%EB%B0%9C%EC%9E%90%EA%B5%AD](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86%8C_%EB%B0%9C%EC%9E%90%EA%B5%AD)>에서 2021년 6월 20일 검색.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해외 ICT R&D 정책 동향, 2016-04호.

제3기 인구정책 TF(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17>>에서 2021년 8월 3일 검색.

조대연 외(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적자원정책 설계 및 추진체계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조선아(2018). 독일 지역 사회 열린 교육의 산실, 시민대학.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리포트, 11호. <<https://50plus.or.kr/org/detail.do?id=2320817>>에서 2021년 7월 1일 검색.

코트라(2013).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3-020.

통계청(2017).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index/index.do?mb=N>>에서 2021년 7월 5일 검색.

통계청(2020). 201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Xq7OkwKfvAhXsKqYKHcY\\_DpYQFjAEegQICRAD&url=http%3A%2F%2Fkostat.go.kr%2Fportal%2Fkorea%2Fkor\\_nw%2F1%2F6%2F1%2Findex.board%3Fbmode%3Ddownload%26bSeq%3D%26aSeq%3D384161%26ord%3D2&usq=AOvVaw3H6wqO9-tMdkXZRC0Qub7w](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Xq7OkwKfvAhXsKqYKHcY_DpYQFjAEegQICRAD&url=http%3A%2F%2Fkostat.go.kr%2Fportal%2Fkorea%2Fkor_nw%2F1%2F6%2F1%2Findex.board%3Fbmode%3Ddownload%26bSeq%3D%26aSeq%3D384161%26ord%3D2&usq=AOvVaw3H6wqO9-tMdkXZRC0Qub7w)>에서 2021년 3월 11일 검색.

한국고용정보원(2016). 기술변화에 따라 일자리 영향 연구.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싱가포르의 평생교육지원정책 “SkillsFuture”. 과학기술인 재정책 동향브리프, 19, 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8). 집단지성 형성과정의 비밀, 빅데이터로 풀어낸다. <[https://repository.kisti.re.kr/bitstream/10580/14983/2/%EC%A7%91%EB%8B%A8%EC%A7%80%EC%84%B1%20%ED%98%95%EC%84%B1%EA%B3%BC%EC%A0%95%EC%9D%98%20%EB%B9%84%EB%B0%80%2C%20%EB%B9%85%EB%8D%B0%EC%9D%B4%ED%84%B0%EB%A1%9C%20%ED%92%80%EC%96%B4%EB%82%B4%EB%8B%A4\\_%EC%B5%9C%EC%A2%85.pdf](https://repository.kisti.re.kr/bitstream/10580/14983/2/%EC%A7%91%EB%8B%A8%EC%A7%80%EC%84%B1%20%ED%98%95%EC%84%B1%EA%B3%BC%EC%A0%95%EC%9D%98%20%EB%B9%84%EB%B0%80%2C%20%EB%B9%85%EB%8D%B0%EC%9D%B4%ED%84%B0%EB%A1%9C%20%ED%92%80%EC%96%B4%EB%82%B4%EB%8B%A4_%EC%B5%9C%EC%A2%85.pdf)>에서 2020년 11월 17일 검색.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20).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9&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21년 3월 11일 검색.

현영섭(2017). 나노디그리: MOOC의 새로운 동향.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현영섭, 김준희, 박지원, 김정원(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안 연구. 서울: 고려대HRD정책연구소.

현영섭, 김준희, 박지원, 최유연(2020).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심화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HRD정책연구소.

현영섭, 신은경(2018). 성인친화적 대학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학점당 학위제 도입방안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HRD정책중점연구소.

후생신보(2018). 고령사회 노인 기대수명 82.4세 건강수명 64.9세. <<http://www.whosaeing.com/105631>>에서 2021년 7월 11일 검색.

B2U(2020). Crossing the chasm in the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 <<https://www.business-to-you.com/crossing-the-chasm-technology-adoption-life-cycle/>>에서 2021년 6월 29일 검색.

BMBF(2021). Organizational Chart. <<https://www.bmbf.de/en/political-staff-and-organization-1403.html>>에서 2021년 4월 16일 검색.

Bolles, R. N. (1981). The Three Boxes of Life. Berkeley: Ten Speed Press.

DVV(2021). DVV International: Education for Everyone. <<https://www.dvv-international.de/en/>>에서 2021년 5월 6일 검색.

Garter(2020). While five new AI solutions enter this year’s Hype Cycle for AI, the democratization of AI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AI megatrends dominate the AI landscape in 2020.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2-megatrends-dominate-the-gartner-hype-cycle-for-artificial-intelligence-2020/>>에서 2021년 4월 15일 검색.

Google(2021). 코로나바이러스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gl=KR&ceid=KR%3Ako>>에서 2021년 8월 11일 검색.

Gratton, L.(2011). The Shift: The future of work is already here. 조성숙 역(2012). 일의 미래: 1년 후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경기: 생각연구소.

Illich, I.(2009). 노승연 역(2015). 그림자 노동. 경기: 사월의 책.

KI Campus(2021). KI-Campus. <[ki-campus.org](http://ki-campus.org)>에서 2021년 11월 5일 검색.

KMK(2021). Standing conference. <<https://www.kmk.org/kmk/information-in-english/standing-conference.html>>에서 2021년 4월 28일 검색.

Manchester Bidwell Corporation(2020). Manchester Bidwell Corporation. <<https://www.manchesterbidwell.org/our-story>>에서 2021년 9월 2일 검색.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OECD-Future-Of-Education-And-Skills-2030-OECD-Learning-Compass-2030-C-OECD-2019\\_fig1\\_345077193](https://www.researchgate.net/figure/OECD-Future-Of-Education-And-Skills-2030-OECD-Learning-Compass-2030-C-OECD-2019_fig1_345077193)>에서 2021년 7월 1일 검색.

Original Clear(2020). Water is new gold: Crossing the technology adoption chasm. <<https://www.originclear.com/ceo/crossing-the-technology-adoption-chasm>>에서 2021년 4월 23일 검색..

Shell International Limited(2005). The Shell Global Scenarios to 2025. <<https://rjohnwilliams.files.wordpress.com/2016/02/shell-global-scenarios2025summary2005.pdf>>에서 2021년 7월 18일 검색..

Skillsfuture 홈페이지(2021). skillsfuture. <<https://www.skillsfuture.gov.sg>>에서 2021년 8월 27일 검색.

SSG-WSG 홈페이지(2020). SkillsFuture Singapore. <<https://www.ssg-wsg.gov.sg/about.html>>에서 2021년 8월 27일 검색.

UDC Initiative(2020). UNCD. <[udc-initiative.com/udc/udcn/](http://udc-initiative.com/udc/udcn/)>에서 2021년 11월 6일 검색.

VHS(2017). Adult education centres in Germany. <<https://www.volkshochschule.de/verbandswelt/dvv-english/adult-education-centres-germany.php>>에서 2021년 4월 13일 검색.

WEF(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ies for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http://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에서 2017년 4월 14일 인출.

SLEI-2021-A-005

---

## 서울시 평생직업교육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연구

---

**발 행** 2021년 12월  
**발행인** 김주명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도화동) 14층  
전화 : 02.719.6093  
FAX : 02.6730.7166  
<http://smile.seoul.kr/>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